www.humanrights.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92-01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대학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대학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0. 11.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류태호(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자	이명선(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일(고려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 연구원)
	임용석(고려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 연구원)
연구보조원	신주영(고려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 연구원)
	배증윤(고려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 연구원)
	임영신(고려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 연구원)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연구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대학 스포츠는 스포츠 전체의 인권침해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대학은 한국사회의 경쟁적 제도 교육의 틀 안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학제이며 대학교 운동부 역시 가장 엘리트에 속하는 준거집단이다. 둘째, 대학 스포츠는 선수층이 얇은 우리나라 스포츠 구조 속에서 이후 직업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범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볼 때, 대학 스포츠의 변화는 중·고등학교 운동부뿐만 아니라, 직업 스포츠의 운영체계 및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학교 운동부는 중·고등학교 운동부와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교 운동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무엇보다 진학이 아닌 진로를 목적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언론이나 대중매체, 스포츠 현장에서 체감되는 대학 스포츠 문화는 외견 상 중·고등학교 운동부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몇몇 폭력 사건들은 대학 스포츠에서 폭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의 정도 역시 성인인 대학교 운동선수들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편 우리나라는 '스포츠 = 남성'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스포츠 문화의 기저에 남성문화가 존재한다. 이에 스포츠계는 남성 중심적 문화와 성차별적 구조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대학 스포츠에서 역시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자 학생선수들이 겪게 되는 성희롱, 성폭력, 정체성 혼란, 적응의 어려움, 역할모델의 부재 등에 주목하여 스포츠 문화 속에서 여성 운동선수들이 직면하는 문제 상황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도되어야 한다.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인권실태 및 현황을 토대로, 대학교 남녀 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하며, 셋째,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범위

○ 이 연구는 1)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일반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 탐색, 2) 학업 실태 및 진로에 대한 인식과 준비 상황 분석, 3) 대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폭력 실태 및 사례, 폭력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영향 등의 분석, 4) 성폭력 실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영향 등의 분석, 5)대학 스포츠의 문화,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실태 파악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0년 5월 ~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1) 질문지 조사

○ 설문지는 대학 운동부문화, 학업 실태 및 진로 상황, 폭력/성폭력 인식, 폭력/성폭력실태, 대상자 일반적 특징 등을 묻는 총26문항(세부71문항)의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질문지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 대상자들이 응답하기 민감한 설문지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이에 연구원 들이 직접 방문하여 배포 및 수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질문지는 총 배포 질문지 1,000부 중 824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81부를 제외한 643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 대학교 운동부 1부 리그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2) 질적 조사

○ 연구원들의 면접 방문이 용이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초 25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15명을 주요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 면담참여자의 성별을 고려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미진하였던 성인지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면담 참여자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였다.

▣ 실태조사 결과

질문지 및 면접 조사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운동부 문화와 특성

○ **운동 중심의 대학생활 :** 대학교 운동부는 시합이 없을 때 일일 3-4시간(42.3%), 5-6시간(36.0%) 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횟수로는 시합이 없을 때 하루 2회(39.6%)와 3회(37.5%)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연간 대회에 참가하는 횟수는 50% 정도의 운동부가 3-4회로 밝혀졌다. 특히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67.5%가 300일 이상 합숙을 한다고 인식할 정도로 대학교 운동부는 운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운동부 여건과 생활 :** 고교 운동부와 비교한 결과,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대학 입학 후 경기 성적 스트레스(64.3%), 학업의 중요성 인식(51.5%), 훈련 외의 생활 어려움(46.7%) 및 훈련량(45.3%) 등이 증가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면담 결과, 특히 대학 스포츠의 경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운동실력 향상의 어려움 및 운동선수로서의 미래 불안감 등을 크게 경험하고 있다.

○ **엄격한 위계와 통제문화 :**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87.4%는 코치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자신의 생각보다 운동부의 규율을 우선시 하고(74.9%), 외모나 복장(56.8%) 및 훈련 이외의 시간 사용(41.3%)역시 의지대로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자기표현이나 자유 시간조차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운동선수의 정체성과 성별 인식 :**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66.1%), 주변에서 운동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한다(63.9%). 그러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제한적인 진로 상황(46.8%)에 놓여 있으며, '운동을 위해 여성스러움을 포기해야 하며'(35.9%), '여자는 운동선수로서 적합하지 않다(30.8%)'는 통념과 운동부 내의 차별적 인식에 따라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과 갈등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 상황은 여학생의 60.3%가 자신의 몸에 대해 콤플렉스 즉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된다.

2) 학업과 진로

○ **학업 및 수업참여 실태 :** 지난 학기 50% 미만 출석한 학생선수들은 전체의 41.5%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89.0%의 학생선수들이 '훈련이나 시합과 겹쳐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높게 응답한 '훈련 때문에 피곤해서'(60.3%)라는 이유를 포함하면,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또는 출석할 수 없는 이유는 '훈련 때문'이었다. 그 외에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오니까'(7.7%), '운동부 분위기 상 수업에 안 들어가서'(6.4%) 등의 제도적 묵인 역시 수업 불참의 이유가 되었다.

○ **진로준비 실태 :** 학생선수들 중 73.0%의 남학생과 49.3%의 여학생이 직업 운동선수로 진로를 희망하며, 약 50% 정도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상 운동선수의 직업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단적으로, 진로 확신 정도를 묻는 질문인 '운동이외의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 두겠다'라는 질문에 여학생 60.3%와 남학생 43.4%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폭력 실태

○ **폭력의 인식 :**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들(99.2%)은 폭력의 유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유형의 폭력뿐만 아니라 자유 시간, 외출, 외박과 같은 통제도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 운동과 관련된 것은 교육적 체벌로, 개인적 감정으로 행사하는 폭력은 감정적 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교육적 체벌은 운동부 내에서 용인되어야 한다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 **폭력의 경험 :** 조사대상자의 89.7%는 본 조사에서 제시한 10가지 폭력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합숙소와 훈련장소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타의 69.4%가 합숙소, 35.7%가 훈련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행위자는 구타(83.2%, 247명), 기합(88.0%, 417명), 욕설(67.7%, 292명), 공포 조성(84.6%, 367명) 등은 주로 선배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코치와 감독이 다음 순으로 나타난다. 폭력 발생빈도는 구타의 경우 1주일에 1-2번 이상이 11.6%로 나타났고, 기합은 1주일에 1-2번 이상이 22%,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이 40.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폭력의 발생이유와 영향 :** 폭력 발생의 이유를 '훈련 태도가 나쁘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69.8%), '경기력, 정신력, 팀워크 등의 향상을 위해서'(39.2%) 등 훈련과 연관 지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감정적 문제가 원인(37.0%)이라 생각하는 학생선수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한 폭력에 의해 '운동을 그만 두고 싶어지고'(55.5%),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의 심리적 어려움'(49.9%)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의 불가(18.2%)와 불면, 자살 충동 등(12.2%)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폭력에 대한 대처 :**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는 폭력을 '참고'(84.6%) 있었으며, 대응한다 하더라도 그만하라는 의사표명(6.6%)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10.5%) 등 소극적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69.9%), 폭력이 '훈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39.5%), '운동부에서는 당연한 일'(20.8%) 등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대응해봐야 소용이 없다'(36.5%) 라고 체념하고 있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폭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폭력문화를 체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폭력피해의 사례와 특성 :** 면접조사를 통해 다양한 폭력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 입장에 있는 지도자나 선배들은 '훈련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정신력 강화를 위해', '경기결과의 문책으로' 등 소위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분을 갖고 체벌이나 기합 등의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피해학생들이 이야기하는 폭력경험은 '따귀를 맞고, 발로 채이고, 2-3시간씩 머리를 박고, 잠을 자다 불려나와 운동을 하고, 술에 취한 채 몇 시간씩 운동을 시키는' 그야말로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폭력 경험이었다.

5) 성폭력 실태

○ **성폭력의 인식 :**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명백한 신체적 접촉이나 강요를 포함하는 소위 전형적 성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성적 농담'이나 '불쾌한 시선' 등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강제적 성행위, 몸의 노출 강요, 성적 농담이나 놀림 등과 같은 모든 유형에서 여학생의 성폭력 인식 응답률이 남학생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 **성폭력 피해 실태 :** 전체 응답자 643명중 16.2%(104명)가 1가지 유형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다. 성별로는 여학생 26.5%(36명), 남학생 13.4%(68명)로 여학생의 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 유형별 피해를 살펴보면, '성적농담이나 놀림'이 8.1%(52명),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 7.2%(46명),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및 '원치 않는 신체접촉' 이 각각 3.3%(21명), '훈련을 핑계로 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피해가 2.5%(16명)로 나타난다. 성별차이로 보면 일상적인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그리고 술자리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나 데이트 강요 등에서 여학생의 경험 비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남학생의 경우 비율은 낮지만 '몸의 노출강요(1.4%, 7명)', '원치 않는 성행위 강요(0.4%, 2명)', '강제적인 성행위(0.8%, 4명)' 피해를 보고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세 유형 모두 피해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성폭력 가해자 :**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감독, 코치 선배로 나타난다. 특히 '원치 않는 신체접촉', '훈련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 '술자리 등 사적인 모임에서의 성폭력', '데이트 강요' 등의 유형은 '남자지도자-여자선수', '남자선배-여자후배' 관계의 특징을 보이지만, 동성 간의 성폭력도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스포츠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동성 간의 성폭력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합숙소 등 공동생활을 하고 있거나 성별로 분리된 훈련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성폭력의 피해와 영향 :** 성폭력 피해자의 51.7%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다. 그러

나 동시에 '모욕감, 두려움, 공포 등을 느낌(34.8%)', '오랫동안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의 경험(7.9%)'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거나, '운동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19.1%)', '합숙소나 팀 이탈(6.7%)',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경험(6.7%)'하기도 한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은 '모욕감, 두려움, 공포(55.9)%'등 정서적인 피해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고, 남학생의 경우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23.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성폭력에 대한 대처 :** 대부분 학생선수들은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49.4%)', '그 자리를 피했다(28.2%)', '혼자참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갔다(27.1%) 등과 같이 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여학생들의 경우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37.5%),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31.3%), '장난이라고 생각해서'(28.1%), '민망하거나 부끄러워서'(25.0%)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나며, 남학생은 '장난이라고 생각해서'(47.1%)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권위와 권력, 일이 공식화되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27.5%),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23.5%)의 순서로 응답한다. 특히 성폭력을 '장난 이라고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는다' 의 경우 남학생이 47.1%, 여학생 28.1%로 비교되는데, 이는 남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여학생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 주며,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 '민망하고 부끄러워서'라고 응답한 여학생이 25.0%인 반면 남학생의 3.9%만이 응답하는데, 이는 여학생의 경우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종합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교 운동부 문화 및 인권 실태, 그리고 남성 문화 속에 놓여 있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문화적 위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운동부의 기대와 현실

대학교 운동부는 중·고등학교 운동부와 다를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 운동부 역시 '단절된 섬 문화', '일방적인 소통 문화', '운동이라는 외길 문화' 등이 상존하며 다음과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 **운동중심의 일상과 스트레스 :**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83.9%는 기숙사나 합숙소와 같이 단체생활을 하고 있으며, 단체 생활은 운동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67.5%의 학생선수들은 연간 300일 이상 '합숙'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운동중심 학교생활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운동 외의 시·공간적 삶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운동 중심 일상에서 학생선수들은 학업의

중요성(51.5%), 훈련 외의 생활 어려움(46.7%) 및 훈련 양 증가(45.3%) 등의 문제 등을 경험하지만, 특히 경기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64.3%)를 가장 크게 경험한다. 면담 결과, 학생선수들은 전형적인 제로섬(zero-sum) 경쟁 체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지고 있으며, 실패에 대한 불안감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 **학업으로부터의 소외 :**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코치, 교수와 조교, 그리고 대학 행정부서 등의 제도적 묵인과 방임에 따라 학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결국,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표현처럼, 대학교 운동부에서 학생선수들은 바보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업 적 소외현상은 학습권 침해로 볼 수 있지만,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자율적 성인이라는 점을 볼 때, 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다루어지는 학습권 침해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외가 자발적 선택이나 결정이 아닌 대학교 운동부와 대학 학사 관행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는 보다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엄격한 위계와 통제** : 대학교 운동부는 자율성을 갖는 성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기보다, 위계와 서열, 권력과 통제, 지배와 복종의 규범이 작동하는 마치 '군대'와 같은 집단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도자는 '잘 되게는 못해도 못 되게는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지도자의 권위는 '법'이라고 인식될 만큼 거의 절대적이다. 단적으로 지도자를 오우너(owner)라고 칭하는 학생선수들의 표현은 지도자와 학생선수간의 일방적인 권력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또한 권력과 권위를 위임받는 선배들 역시 또 다른 서열 관계에 놓인다. 지도자와 선배에 의해 지배되는 엄격한 서열과 통제는 운동부 내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통제된 삶을 체화한 결과 학생선수들은 운동 이외의 생활에서 비주체적이고 타율화(他律化) 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2) 인권침해의 실태, 폭력과 성폭력

폭력 문화는 어느 한 집단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가장 소극적인 기준이다. 성폭력은 인권침해의 극단적 양태의 하나로써 폭력의 개념적 연속선 위에 위치지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침해의 양태로서 폭력과 성폭력은 분석될 필요가 있다.

○ **운동부 폭력, 통제의 수단** : 대부분의 조사대상자(89.7%)들이 10가지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운동부 내 폭력은 일상화되어 있다. 그 유형 역시 구타나 기합, 체벌은 물론 정서적 폭력 등 다양한 구타와 같은 각양각색의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지배와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폭력의 수단화가 용인되는 것은 학생선수들이 '폭력의 사회화' 또는 '폭력의 체화' 과정에서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운동부의 폭력문화는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선배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 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과정에서 재생산되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운동부 후배들은 심리적 무력감, 공포감, 좌절감, 자존감 상실, 육체적 손상, 운동중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 **성폭력, 왜곡된 권력의 행사** : 이 연구의 조사결과는 기존의 성폭력에 관한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실상 피해율의 높고 낮음은 실태의 심각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일 뿐, 피해율이 낮다고 해서 피해의 심각성이 덜하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인인 대학생들이 조사결과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장을 두려워해서, 혹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해서 조사에 정직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비록 수치 상 낮지만,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 중 단 한건도 피해사례가 없으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인 '강제적인 성행위'와 '원치 않는 성해위의 강요' 도 각각 4건과 2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대학교 운동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은 스포츠적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훈련이나 코칭 중에 일어나는 신체접촉이나 시각적 성폭력 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성폭력이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의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증거이며, 특히, 남성 선·후배 간의 성폭력은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합숙소 등 외부세계와 차단된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

무엇보다, 대학교 운동부 내의 성폭력은 비(非)가시화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학생선수들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상당히 높지만,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성폭력 인식 정도가 낮다. 게다가 스포츠 성폭력의 특성 중 하나는 성폭력과 일상적인 장난행위, 지도자의 보호나 애정의 표현, 훈련이나 코칭을 위한 신체접촉 등과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 가해자 역시 훈련을 핑계로 성폭력을 하거나, 성폭력을 하고서 장난이었다고 회피할 수 있으며, 피해자 역시 성폭력과 지도자의 애정을 혼동하거나, 훈련과 성폭력의 경계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스포츠 내 남성지도자와 여성선수 간의 성폭력은 일종의 '성적인 길들이기'의 특성을 지닌다(Celia, 2001). 즉 훈련과 보호를 매개로 오랫동안 유대와 친밀감을 가져온 지도자는 어린 선수에 대해 성적인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성폭력을 가하는데, 선수는 이를 자신에 대한 애정 혹은 보호행동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특성으로 성폭력은 은폐되거나 비(非)가시화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3) 남성적 운동부 문화와 여자 학생선수

'스포츠 = 남성' 이라는 등식이 상징하듯, 우리나라 사회에서 스포츠는 철저히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권력은 남성에게 집중되며, 운동부 역시 남성문화의 작동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즉 운동부는 작은 그러나 강화된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적 사회', '남성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 **여성 학생선수의 '다른' 경험** :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선수들은 운동부내에서 남성선수와 분명히 차별적 경험을 하거나 인식 상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정체성이나 진로문제, 폭력과 성폭력 경험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들은 성별 차이와 특성을 나타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폭력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이다. 여성선수들은 남성선수들에 비해 대부분의 성폭력 유형에 대해 높은 민감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남녀의 인식 차이는 성폭력이 기반으로 하는 권력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가해자이기보다 피해자의 경험과 입장에 더 익숙한 여성선수 혹은 스포츠 현장에서 '소수이자 주변인'인 여성선수들은 남성선수들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여성선수들은 운동부의 남성적 특성은 물론 폭력적 특성의 많은 부분에서 남성선수들과 함께 하거나 공유된 문화를 보여준다. 결국 남성문화 속에서 여성선수들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성공적인'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남성화(또는 남성됨)' 이라는 동화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면접사례에서의 여학생들 역시 남성선수 못지않은 위계와 서열, 선배에 대한 복종, 폭력, 술자리 문화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결론: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로써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교 운동부만의 문화적 특성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학업 실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분석 되었다. 대학교 운동부의 폭력실태는 매우 일상적인 경험이며, 지도자와 선배가 학생과 후배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휠 용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의 반복적 학습은 폭력문회를 체계화시는 과정이며 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이다. 대학교 운동선수들의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선배나 코치/감독으로 나타났으며, 주목할 점은 동성간의 성폭력이다. 이러한 특성은 성폭력이 우발적인 성충동이나 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권력에 기반 한 행위라는 점을 의미한다. 스포츠에서는 성폭력이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 혹은 훈련의 일종으로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은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관계적 특성은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비(非)가시화하는 구조로 작동하며, 폭력의 은폐시키거나 대처를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위 와 같은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실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 **'강요'가 아닌 '선택'이 주가 된 대학교 운동부 정책 :** 성인으로서 보장 받아야 할 선택의 자유보다는 주로 강제적 측면이 존재하는 대학교 운동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첫째, 운동이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및 규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 둘째, 운동부 구성원들의 나는 없고 ,

우리 혹은 지시만 있는 운동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 하였다. 셋째, '학생으로서 학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인 학습권에 대한 해결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보장(Guarantee)의 관점으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증진의 측면에서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전문선수나 그 이외의 직업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하며, 이러한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한다.

○ **인권 보장을 위한 환경 구축 :** 인권의 관점에서 대학교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 보장, 증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첫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교 운동선수들의 최저 학력제 도입으로 인한 학업 강요가 아닌 학업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대학교 학생선수 인권 교육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주제별 인권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과 프로그램이 요구 된다. 또한 엘리트 체육 전반에 걸친 인권 예방교육의 정례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상별(학생선수 및 학부모, 지도자,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각 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 한다.

○ **체육계 내의 학문적 합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 :**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스포츠 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한 체육계 내에서 학문적 합의과정과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제안 하였다.

▣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를 갖는다.

○ 국내 최초로 대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된 인권실태 조사이다.

○ 대학생 운동부 문화의 관점에서 학생선수들의 폭력, 성폭력, 학습 및 진로 등 인권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스포츠 인권 침해 구조를 분석 하였다.

○ 젠더 적 관점에서 대학 스포츠 문화를 바라보고 이를 토대로 소외되는 여성 운동 선수들의 경험을 분석 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 초, 중, 고등학교 학생운동 선수들의 폭력, 성폭력 실태와 중고등학교 중토탈락 선수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토대로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 조사의 최종 보고서로써의 큰 의의가 있다.

○ 스포츠 가이드라인은 전제로 이를 스포츠 현장으로의 확대 보급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 보장, 증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 하였다.

<제목 차례>

연구요약 ····· i

Ⅰ. 서 론 ·····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관점 및 범위 ····· 7
   1) 연구 관점 ····· 7
   2) 연구 내용 및 범위 ····· 8
3. 선행 연구 분석 ····· 10
   1) 학원 스포츠의 문제와 과제 ····· 10
   2) 스포츠 분야 성폭력 관련 연구 ····· 14
   3) 대학교 운동부 관련 연구 ····· 16

Ⅱ. 연구방법 및 절차 ····· 23

1. 연구 방법 ····· 23
2. 연구 대상자 범위 ····· 24
   1) 양적 연구대상자 범위 ····· 24
   2) 질적 연구대상자의 범위 ····· 25
3. 연구 절차 ····· 25
   1) 질문지 조사 ····· 26
   2) 질적 조사 ····· 29

Ⅲ. 연구결과 ····· 35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5
   1) 성별, 종목별 응답자 특성 ····· 35
   2) 운동선수 시작시기 ····· 37
   3) 학년별 분포 ····· 37
   4) 운동경력 ····· 38
   5) 학기 중 거주지 ····· 39
2. 대학교 운동부 문화와 특성 ····· 40

1) 운동중심의 대학생활 ····· 40
2) 운동부 여건과 생활 ····· 44
3) 엄격한 위계와 통제문화 ····· 51
4) 운동선수의 정체성과 성별 인식 ····· 57
5) 소결론 ····· 63
3. 학업과 진로 ····· 65
1) 학업 및 수업참여 실태 ····· 65
2) 진로준비 실태 ····· 74
3) 소결론 ····· 84
4. 폭력 실태 ····· 86
1) 폭력의 개념 및 인식 ····· 86
2) 폭력피해의 일반적 특성 ····· 90
3) 폭력 발생이유 및 폭력피해 영향 ····· 102
4) 폭력에 대한 대처 ····· 108
5) 폭력피해의 사례 및 특성 ····· 113
6) 소결론 ····· 123
5. 성폭력 실태 ····· 126
1) 성폭력의 개념 및 인식 ····· 126
2) 성폭력 피해 실태 ····· 130
3) 성폭력의 피해와 영향 ····· 147
4) 성폭력에 대한 대처 ····· 149
5) 소결론 ····· 156

Ⅳ. 종합 논의 ····· 161

1. 대학교 운동부의 기대와 현실 ····· 161
1) 운동중심의 일상과 스트레스 ····· 162
2) 학업으로부터의 소외 ····· 163
3) 위계와 통제 ····· 164
2. 인권침해의 실태, 폭력과 성폭력 ····· 166
1) 운동부 폭력, 통제의 수단 ····· 167
2) 성폭력, 왜곡된 권력의 행사 ····· 169
3. 남성적 운동부 문화와 여자 학생선수 ····· 172
1) 스포츠와 남성문화 ····· 172
2) 여자선수의 ‘다른’ 경험 ····· 173

Ⅴ. 결론 : 정책제언 ····· 179

1. 결론 ····· 179
   1) 대학교 운동부 문화의 특성 ····· 179
   2) 대학교 학생선수의 학업과 진로 실태 ····· 180
   3) 대학교 학생선수의 폭력실태 ····· 180
   4) 대학교 학생선수의 성폭력 실태 ····· 181
2. 정책제언 ····· 183
   1) 학생선수 인권정책 탐색 ····· 183
   2) 인권 가이드라인 : 폭력, 성폭력, 학습권 ····· 185
   3) 대학교 운동부 정책제언 ····· 189

<참고문헌> ····· 197

부록1 : 설문지 ····· 203

<표 차례>

<표 1> 대학교 학생선수 관련 선행연구 ····· 16
<표 2> 연구 절차 ····· 25
<표 3> 질문지 조사 과정 ····· 26
<표 4> 질문지 내용 및 구성 ····· 27
<표 5> 면담 참여자 특성 ····· 31
<표 6> 종목별·성별 응답자 수 ····· 35
<표 7> 운동선수생활 시작시기 ····· 37
<표 8> 성별·학년별 응답자 수 ····· 38
<표 9> 성별·운동경력별 응답자 수 ····· 38
<표 10> 학기 중 거주지 ····· 39
<표 11> 시합이 있을 때 운동시간 ····· 41
<표 12> 시합이 없을 때 운동시간 ····· 41
<표 13> 시합이 없을 때 운동 횟수 ····· 42
<표 14> 시합이 있을 때 운동 횟수 ····· 42
<표 15> 연간 대회 참가회수 ····· 43
<표 16> 연간 합숙일수 ····· 43
<표 17> 운동 여건 ····· 45
<표 18> 대학교 운동부에서의 변화(고등학교와의 비교) ····· 47
<표 19> 대학교 운동부에서의 변화에 대한 성별 평균 비교 ····· 48
<표 20> 대학교 운동부 권력 ····· 51
<표 21> 대학교 운동부에서의 생활문화에 대한 평균 비교 ····· 52
<표 22> 운동선수에 대한 인식 ····· 59
<표 23> 수업 출석 정도 ····· 66
<표 24> 학기 중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 68
<표 25> 성별·종목별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 74
<표 26> '나는 내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75
<표 27> 진로 준비에 관한 성별 평균 비교 ····· 76
<표 28> '코치와 감독은 나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76
<표 29> 진로에 대한 인식의 종목별 평균 비교 ····· 77
<표 30> '나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 78
<표 31> 진로 확신에 관한 성별 평균 비교 ····· 80

<표 32> 대학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 ····· 81
<표 33> 성별에 따른 폭력 인지 ····· 87
<표 34> 폭력 경험 유무 ····· 91
<표 35> 성별·유형별 폭력경험 횟수 ····· 93
<표 36> 성별·유형별 폭력경험 정도(고등학교와의 비교) ····· 95
<표 37> 고등학교와 비교한 폭력 정도의 성별 평균 비교 ····· 97
<표 38> 성별·유형별 폭력 행위자 ····· 98
<표 39> 성별·유형별 폭력 장소 ····· 101
<표 40> 폭력발생이유에 대한 개인의 인식(성별) ····· 102
<표 41> 폭력발생이유에 대한 개인의 인식(학년별) ····· 103
<표 42> 폭력발생이유에 대한 개인의 인식(경기형태별) ····· 104
<표 43> 폭력경험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성별) ····· 106
<표 44> 폭력경험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학년별) ····· 107
<표 45> 폭력경험에 대한 개인의 대응 ····· 108
<표 46> 폭력경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성별) ····· 109
<표 47> 폭력경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학년별) ····· 112
<표 48> 성별에 따른 성적 폭력 인지 여부 ····· 127
<표 49> 성적 폭력 경험 유무 ····· 130
<표 50> 성별·유형별 성적 폭력 행위자 ····· 133
<표 51> 성별·유형별 성적 폭력 장소 ····· 134
<표 52> 원치 않는 신체접촉 행위자 ····· 136
<표 53> 원치 않는 신체접촉 발생장소 ····· 137
<표 54> 원치 않는 신체접촉 행위자 ····· 139
<표 55>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자 ····· 140
<표 56>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 행위자 ····· 141
<표 57> 개인적인 데이트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자 ····· 142
<표 58> 성적 놀림이나 농담 행위자 ····· 143
<표 59> 불쾌한 시선 행위자 ····· 145
<표 60> 불쾌한 시선 발생장소 ····· 145
<표 61> 성추행 및 강간 행위자 ····· 146
<표 62> 성추행 및 강간 발생장소 ····· 146
<표 63> 성적 폭력경험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 ····· 148
<표 64> 성적 폭력경험에 대한 개인의 대응 ····· 150
<표 65> 성적 폭력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 ····· 152

<표 66> 스포츠 폭력 사례 ····· 187
<표 67> 스포츠 성폭력 사례 ····· 188

<그림 차례>

그림 1. 시기별 중단 비율 ····· 129

서 론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학교운동부의 반인권적 구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2009년 국가대표 배구 선수인 박철우 선수에 대한 코치의 폭력 사건은 스포츠계의 폭력이 학교라는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인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 선수에게까지 그리고 그러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곳에서까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스포츠계의 반인권적 구조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공간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라는 명목으로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여전히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학교 운동부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보고한 연구(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10)에 따르면, 비록 5년 전에 비해 수치 상 폭력이나 성폭력 경험이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40%의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학생들은 폭력을 경험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학교 운동부의 인권 상황 실태보고는 여전히 유효한 연구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운동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운동부의 폭력과 인권침해문제는 사실상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학 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운동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전체 스포츠계의 인권침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크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찾으면, 첫째, 대학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경쟁적 제도 교육의 틀 안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학제이며 대학교 운동부 역시 가장 엘리트에 속하는 준거집단이다. 즉 최종적으로 직업 선수의 꿈을 갖더라도,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및 학부모에게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적어도 학생으로서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 스포츠는 선수층이 얇은 우리나라 스포츠 구조 속에서 이후 직업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범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학교와 직업 선택의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 스포츠의 변화는 중·고등학교 운동부 뿐만 아니라, 직업 스포츠의 운영체계 및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학운동부 문화와 제도는 중·고등학교와 크게 달라야 한다. 왜냐하

면 대학교 운동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무엇보다 진학이 아닌 진로를 목적에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 스포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요구받는다. 첫째, 운동선수로서의 소질을 보완 및 발전시켜 전문 스포츠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다른 측면에서 최종 교육 기관으로써 운동을 통한 직업 획득이 어려운 학생들의 그 외의 직업적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교 운동부의 특성을 기반으로 유추해 볼 때,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 진로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운동에 매달릴 것이고, 부족한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이들은 운동부 내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보장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언론이나 대중매체, 스포츠 현장에서 체감되는 대학 스포츠 문화는 외견 상 중·고등학교 운동부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스포츠 폭력 장면이 대중매체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제기되자, 중·고등학교 경기에서의 경우 최소한 시합 중 구타 사건은 드러나 보이지 않게 된 반면, 오히려 전년도 대학교 농구 경기 휴식시간에 코치가 선수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폭력 사건은 대학 스포츠에서 폭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의 정도 역시 성인인 대학교 운동선수들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문제가 되어온 학업권 침해 역시 대학운동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대학의 운동부 소속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업보다는 훈련이나 시합참가를 우선시하며, 학교 역시 암묵적으로 이를 묵인해주거나 심지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많은 대학에서는 운동부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스포츠 내 인권 인식이 고양됨에 따라, 대학 스포츠 당국에서도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관련해 의미 있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NCAA(대학운동협의회)를 모델로 한국형 대학운동협회를 만들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상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몇몇 주요 대학들도 정상적인 특기생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대학 스포츠의 변화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역으로 그동안 대학

학생선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또한 스포츠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성차별적 구조와 남성 중심적 문화가 대학 스포츠에서 역시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자 학생선수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구의 많은 스포츠 학자들은 남성 중심적 문화 속에서 여자 운동선수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며 정체성의 혼란, 적응의 어려움, 역할모델의 부재 등의 문제를 겪는다고 지적한다.

우리사회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벤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상화 선수는 네티즌 사이에서 '22인치 금벅지'로 통한다. 이는 1980년대 씨름판을 휘저었던 이만기 선수의 '22인치 종아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 같다. 이를 테면, 후자의 22인치는 남성적인 힘과 건강하고 강인한 육체를 의미하지만, 여성 스포츠 스타의 몸에 대한 평가는 섹슈어리티의 의미가 가미된다. 또한 대중의 관심과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여자 프로 스포츠에서 여성의 몸을 노출시키는 경기복의 도입 등도 여성 운동선수를 성적 대상화하는 성적 담론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러한 성적 담론은 스포츠 내 여성 운동선수들에 행해지는 성폭력 문제 및 평가절하 현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2007년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팀 감독의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 2008년 KBS 시사기획 <쌈>의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보도,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실태 조사연구 등은 스포츠 내 성폭력 수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스포츠 지도자 = 남성"이라는 스포츠 내 성별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은 여성 운동선수의 지도자로서 능력을 격하시켜 그들의 스포츠 진로를 운동선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진로뿐만 아니라, 소위 남성적 원리의 지배 아래 여성선수들이 성불평등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 남성화되거나 남성처럼 자신을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로 확대된다. 즉, 여성 운동선수들은 스포츠의 남성적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교 여성 학생선수의 인권 상황 실태는 보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의 양적 실태뿐만 아니라 성별(gender)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등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흔히 스포츠로 성공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99%는 운동을 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학의

기능이 학문과 직업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99%의 그들이 직업적 선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스포츠 관계자가 이러한 문제를 접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애들이 할 의욕이 없어요."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학생선수들은 이러한 직업 선택, 즉 미래 지향적인 삶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오해일 가능성이 큰 것은 다음의 질문을 통해 확인된다. 과연 우리사회가 운동선수들에게 적절한 교육제도를 제공하거나 환경을 뒷받침 해주었는가? 그리고 이들이 운동 이외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가? 누구도 이 질문들에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도자나 부모, 그리고 우리사회는 운동선수들에게 '죽도록 훈련해서' 운동에서의 우수한 성적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제적인 조력을 통해, 그들이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대학스포츠는 궁극적으로 사회와 맞닿아 있는 최상층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직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학은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제기한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운동부 내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문화로 사회적 인격 형성에 장애를 주고,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선수 이외의 길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특히, 여성들은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여성 운동선수의 성적 편견에 부딪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위치와 중요성을 고려 보면, 대학 스포츠가 바뀌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문제 역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교 학생선수 인권 실태 연구는 단순히 대학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운동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시리즈를 총괄하는 연구로 대학교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및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대학교 운동부의 인권실태 현황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교 운동부의 학업 및 운동부생활, 성폭력, 폭력 경험 등을 중심으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 상황 실태를 파악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개발된 설문지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대학 운동부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와 함께,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여자 학생선수들 성별 경험과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내용을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인권실태 및 현황을 토대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스포츠계의 문화적 특성 혹은 공동체 문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론화함으로써, 운동부의 인권침해 실태 발생의 구조적 배경과 재생산, 유지 기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실태조사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관점 및 범위

연구의 관점, 내용, 범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관점

연구 내용에 앞서 연구의 관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권적 관점을 견지한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학생'이자 '선수'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본 연구는 현행 체육계의 여러 문제와 병폐들(특기생제도, 폭력, 성폭력, 학업권 제한, 학습된 무기력 등)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와 관련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둘째, 상황적 관점을 고려한다. 상황(맥락)적 관점은 현상의 이해와 관련된다. 즉, 여러 가

지 인권적 상황(맥락)에 위치한 개인(대학교 학생선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경험은 개인과 사회(환경)의 상호 작용,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 물질적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 세 가지 특성이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을 상황 또는 맥락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맥락)적 관점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경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실천적 관점을 견지한다. 실천적 관점은 문제가 발견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이론적 작업 둘 다를 통해서 관철된다. 본 연구는 대학교 학생선수의 제(諸)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정책과 교육이 현장에서 최적화 될 수 있는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실천적 관점을 견지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성별을 중요한 고려 변수로 인식하며,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 해서 수행된다. 성인지적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의 간의 경험과 요구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 정책이나 연구, 교육결정 및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남녀 성원이 갖는 차이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적인 결과를 지향한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남녀 간의 경험에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요구되는지 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해 내기 위해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대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학업실태, 운동부 문화, 폭력・성폭력과 관련된 인권실태로 한정한다. 기존의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는 주로 학습권, 폭력, 성폭력을 주요한 분석 범주로 하여 수행되어왔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대학생임을 고려하여 학습권을 학업실태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운동부의 생활 및 문화를 포함하였다. 즉 기존의 스포츠 관련 연구들은 인권침해를 폭력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가시적인 형태나 '사건'중심의 문제에 집중해 온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폭력, 성폭력뿐 아니라 선수들의 생활문화나 스포츠공동체의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인권제약이나 통제의 문제, 적절한 진로준비의

미흡 등의 문제 역시 인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의 체육학 연구에서 미진했었던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여, 여자 운동선수들의 인식과 성별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교 학생선수의 일반적인 운동부 문화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탐색한다. 즉 대학교 스포츠공동체의 일반 문화, 규율, 생활, 위계관계, 스포츠에 대한 인식, 성별인식 등을 중심으로 학생선수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공동체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인권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학업권 실태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준비상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으로서 학생선수들의 학업권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장래 진로나 미래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학생으로서 학생선수들의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더 나아가 이들의 적절한 교육과 성장을 위한 환경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실태 및 사례, 폭력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영향 등을 분석한다.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몇 년간 하나의 프로젝트로 수행해 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의 스포츠폭력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제도 교육 안에서 수행되는 스포츠 폭력실태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넷째, 폭력과 더불어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영향 등을 분석한다. 대학교 운동부의 성폭력 역시 폭력과 더불어 초·중등학교와 비교해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수행된 연구가 거의 부재하다. 또한 성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성인인 여자선수들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데 심각한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스포츠의 문화,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실태를 파악함에 성별(gender)를 주요한 변수로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즉 운동부에서의 문화, 학업과 진로준비, 폭력, 성폭력 등의 경험에 성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인식과 경험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선행 연구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로 첫째, 학원 스포츠의 문제와 과제, 둘째, 여자 운동선수의 성폭력 관련 연구, 셋째, 대학교 학생선수와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였다.

1) 학원 스포츠의 문제와 과제

2000년 14살이었던 수영선수 장희진 선수가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며 태릉선수촌 입촌을 거부한 사건을 필두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문제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의 전반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학생선수들의 강압적인 위계 문화, 합숙문화, 폭력문화 등 운동부 문화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하는 학습의 권리, 성장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2007년 여자 프로농구 감독의 선수 성추행 파문과 2009년 배구대표팀 코치의 선수구타 사건은 폐쇄적인 운동부문화가 아마 스포츠 뿐 아니라 엘리트 체육 전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사건들이다. 이러한 학생선수들의 문제들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승리지상주의, 제로섬(Zero-sum)경쟁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 무한경쟁의 원칙하에 승리를 최고의 목표로 관행화처럼 되어버린 수업결손, 과도한 훈련, 운동부 내 복종 관계 등은 운동선수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엘리트 체육계의 성폭력, 성차별 실태는 이러한 거대한 엘리트 체육의 그림자에 묻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엘리트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운동부 문화는 대중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직·간접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부 문화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운동부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있다. 그만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에 대한 중요성은 오랫동안 주된 연구주제였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학교운동부의 수업참여 현황에서 오전수업만 받고, 오후에 운동하는 경우가 평상시에는 27.2%지만, 시합 직전에는 40.7%나 되고 전체 수업을 빠지는 경우도 1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6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까지 3년간 시·도 교육감이 주관하는 329개 대회 중 주중 개최가 229개(69.6%)로 수업결손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보충수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중학생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선수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학년석차에서 중학교는 하위 80%미만이 76%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97.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선수들의 82.4%가 학년석차 하위 8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에 따른 학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엘리트 선수들(68명 대상)의 60% 이상은 학생시절 시합과 상관없이 하루 평균 6~8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합 준비기간에는 7시간 이상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주당 6일 이상 운동을 하는 학생선수가 69%로 가장 많았고, 매일 운동하는 선수도 10%나 되었다. 합숙일수도 방학 중에는 11일 ~ 20일이 48%로 가장 높았고, 학기 중에도 11일 ~ 20일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국내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합숙훈련과 지나치게 많은 훈련시간으로 인해 수업결손과 성적저하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용수, 2008).

송형석(2009)은 학교운동부의 도입배경과 구조를 검토하여 그것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교육적 개혁이나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그 비판적 작업은 결국 개혁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를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조를 파악하고,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운동부 내의 폭력문화가 일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005년 고은하의 조사에서 조사대상 전원이 현재 또는 과거에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체육회(2005)의 조사에서도 학생선수의 78.1%가 구타 경험이 있고, 58,4%가 주 1회 이상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주로 폭력의 가해자는 지도자로 나타났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2008년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8.8%가 폭력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중 25%는 일주일에 1-2회, 5%는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을 매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의 폭력 실태는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범죄수준이다. 류태호(2003)는

운동부의 폭력구조가 학교 및 시·도 교육청, 학부모와 학생선수 그리고 코치들의 반 교육적인 엘리트 체육의 이익구조 속에서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관리자로서 학교운동부를 관리 운영해야 할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운동부 내의 폭력을 묵인한다. 수요자로서 학부모와 학생선수는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목표로 이를 승인한다. 공급자로서 코치들의 자신의 생계와 관련해 팀의 승리 및 관리, 실력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2005년 대한체육회의 조사에서도 48.5%의 학부모는 구타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승용(2005)의 연구에서도 선수기용, 상급학교 진학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학부모와 학생선수는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학생선수들의 세계에서 폭력은 체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김정명(1999)은 이러한 현상은 오랜 폭력이 관행화 되어 운동부를 이루고 있는 주체들, 학생선수 자신들이나 지도자, 학부모들까지도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공유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운동부의 폭력구조는 지도자→학생선수, 선배→후배의 위계적인 상·하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도자→선배→후배와 같은 대물림 구타문화를 재생산 하고 있다. 김석희(2007)는 운동선수의 체벌에 대한 부당성과 합당성을 제고 성숙된 엘리트 체육의 현장문화 구축에 대해연구 하였고, 이성철과 민병남(2009)은 운동선수의 피학대경험, 폭력에 대한태도, 폭력행동의 관계 규명 함정혜와 박현애(2007)는 폭언과 폭력의 배경을 알아보고,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고 법적 대응의 가능성과 해결방안 제시하였다.

한편 학원 스포츠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 학생선수의 중도탈락 과정이다(류태호 등, 2009). 이를테면, 학원스포츠는 국가 차원에서 국위 선양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 개인 차원에서 상급 학교 진학 및 선수로서의 성공을 위해 수단화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중도탈락 문제는 학원스포츠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주체들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중도탈락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며, 학원 스포츠의 문제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탈락의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갖는 연구들이 있다. 서진교(1996), 신영균, 주동욱(2003)은 직업운동선수의 중도탈락에 관해 직업선수의 중도탈락 후 적응의 가장 큰 문제를 금전 문제로 제시하였으며, 중고교 학생선수를 연구한 김지영(2007), 이연호(2000), 홍성철(2002) 등은 학생선수의 중도탈락 요인을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 부상 및 경기력 저하, 졸업

후 진로, 그리고 동기저하 등의 개인적 요인과 코치와의 불화 등의 관계적 요인에서 찾았다. 특히, 조은희(2008)에 따르면, 우울과 성폭력 경험 등은 여성 학생선수들에게 가장 큰 중도탈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명훈 등(2003)은 중등학교 체육특기자들의 중도탈락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중도탈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모델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도탈락 학생선수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강신욱과 강미선(1999) 및 김현준(2006)은 한 학생선수 중도탈락자를 생애사적 전통으로 접근하여 중도탈락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태만을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밝혔으며, 적응과정에서 심각한 인지적, 사회적 곤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정래(2003)와 최효진 등(2008)은 고등학교 중도탈락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임용석(2005)은 운동 특기생들의 중도 탈락 이후의 사회 적응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포괄하고, 중도탈락 학생선수의 운동생애과정을 양적 및 질적 방법을 이용해 중도탈락 현상의 구조 및 해결 대안을 찾고자 한 류태호 등(2009)은 중도탈락 현상의 구조를 밝히면서 학교운동부의 근본적인 문제로 첫째, 운동이 즐겁고 좋아서 시작한 학생들이 부상, 경제적 문제, 미래가 불안해서 운동을 중단하거나 탈락되고 있다. 둘째, 운동을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적절한 경험을 제공해 주지 않음으로써, 운동을 그만둔 학생선수들이 학생으로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학생선수들은 운동이라는 외길 인생(one way process)을 걷게 되고, 그 결과, 탈락 후 학생으로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삶으로부터 재차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학교운동부 문제의 본질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은 채, 운동이라는 외길을 강요하는 구조에 있다. 한편 연구들은 운동부의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수업이 없는 날 경기를 개최할 것과 훈련시간을 제한할 것을 제도화해야한다.

둘째, 연령별 지역 리그제를 도입해야 한다. 방안은 학교 클럽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구분 없는 학교체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최저 학력제가 제시되고 있다.

넷째, 학원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안정적인 임금 수준 보장 및 그에 따른 자격기준 강화 및 임용/재임용 관련 법규 등의 제도화가 제안된다.

2) 스포츠 분야 성폭력 관련 연구

스포츠분야 인권문제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다른 영역은 성폭력이다. 고등학교 여자운동선수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34.4%로 보고한 주종미(2007)의 연구, 16.1%의 직장운동부 여성선수가 성추행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한 황정임 등(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스포츠분야의 성폭력은 폭력의 경우와 유사하게 스포츠 공동체의 위계적 구조를 배경으로 발생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조광민(2006) 등의 연구는 조사 대상인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14.8%가 성적 폭력을 경험했음을 보고하고 있고, 황정임(2007) 등의 연구에서는 직장운동부 내 성폭력 피해 경험이 16.1%, 학생운동부 시절의 성폭력 경험이 37.5%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종미(2008)의 연구에서도 서울시내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의 약 34%가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성희롱 가해자들은 대부분 운동부 지도자에 의해 당하지만 일부는 동료 선수들에게 성희롱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명선 외, 2008 재인용). 미국에서의 사례연구(Burton-Nelson, 1994; Crosset, 1986; Volkwein, Schnell, Sherwood, & Livezey, 1997), 캐나다에서의 연구(Kirby, 1994; Kirby, Greaves, & Hankivsky, 2002; Lenskyj, 1986, 1992), 영국에서의 연구(Brackenridge, 1987, 1991, 1994; Tomlinson & Yorganci, 1997), 덴마크에서의 연구(Nielsen, 2001), 독일의 연구(Palzkill, 1993), 노르웨이에서의 연구(Fasting, Brackenridge, & Sundgot-Borgen, 2003, 2004) 등에서도 같은 경향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대부분 남성에 의해 20~30%의 여성 운동선수가 성폭력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현미 등(2008)은 여성선수 성폭력에 대한 스포츠계 내부에서 여성선수 성폭력을 여성선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남성 중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성폭력 발생 원인을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의 특성과 그로인한 낮은 민감성, 합숙 중심의 훈련체제로 인한 성폭력 위험성 가중, 지도자와 선수간의 엄격한 위계구조와 남성지배적인 스포츠 풍토, 팀 우선주의 및 승리(성적)지상주의로 인한 성폭력 피해경험이 은폐되고 있다고 밝히고, 여성선수 성폭력 근절방안과 관련–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화, 합숙훈련 체제의 개선, 가해자에 대한 공개적/법적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여성지도자 양성 및 배치 등과 같은 제도적 조치가 적극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일반학생과 학생 운동선수 간 성희롱 인식수준에 관한 남상우 등(2007)의 연구는 운동선수들이 성희롱 행동에 대해 일반학생들보다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며, 관대하고, 남자선수들이 다른 집단의 학생들보다도 성희롱 행동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고, 상당히 관대한 인식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자선수 역시 일반여학생보다 성희롱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 심각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실제 성폭력 피해상황은 연구결과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추론할 수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이명선 등, 2008)는 운동부내 성폭력을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운동부내 성폭력 경험율이 63.8%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스포츠분야 성폭력의 일상화와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스포츠분야 성폭력이 단순히 또한 성폭력을 폭력, 학습권의 문제와 결부해서 분석함으로써 성폭력이 폭력의 연속선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운동부내 남성 중심적 문화, 운동제일주의 문화, 위계문화, 성적 불평등 등의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한국 스포츠계의 학습권, 폭력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학습권, 폭력, 그리고 성폭력 등의 영역에 치우쳐 일반적인 운동부 문화 및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학생선수나 스포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하거나 미흡한데, 이러한 연구관점은 여자선수들의 경험이나 이해를 드러내는데 한계를 갖는다. 성폭력 관련연구의 경우 대부분 성인지적 관점을 기초로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관점이 폭력이나

학습권, 운동부 전반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까지 통합되고 있지 못하다.

3) 대학교 운동부 관련 연구

학회지에 보고된 대학교 학생선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들은 크게 학업, 생활, 진로, 그리고 운동부 문화 전반과 관련 연구 등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결과, 각 범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 목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연구들을 중심으로 대학교 학생선수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 대학교 학생선수 관련 선행연구

서	범주	제목	저자	연도	연구 결과 및 제언
1		대학운동선수의 학업능력과 선수-학생 역할 만족도 및 역할현저성의 관계	김양종 정구영	2002	· 학업출석률이 높을수록 선수역할 만족도 낮지만 학생만족도는 높음 또한 선수 역할에 대한 시간 몰입도 높음/ 학업 성적에 따른 선수 ,학생역할 높음 ·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두 가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상적인 학교 생을 위해 학사관지 제도 개선 훈련시간 방과 후 조절, 수업결손 최소화, 최소학점 인정 패지,
2	학업	대학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제언- 선수학생에서 학생선수로	조광민	2007	·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정책제언 : 1. 수능점수 하한제 실시 2. 대학 스포츠 조직의 재정비: 각 종목의 수직적인 연맹에 의한 관리로 학생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각 연맹의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을 위한 공통적인 규칙마련 3. 경기방식의 개편: 토너먼트 방식에서 지역별 수준별 리그로의 전환 리그는 주중 저녁 시간과 주말이용 4. 선수들의 학과선택제한 해제 :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가 아닌 한 인간으로 살이 갈 수 있는 삶의 토대마련
3	학교생활	대학운동선수들의 일상의식과 태도에 대한 질적 분석	윤여탁 이형일	2002	· 훈련에 대한 부담감과 집착 ,진로에 대한기대, 통제에 대한 순응 학사관리의 부담 인간적인 소외감 과도한 운동 연습으로 인한 학습권침해, 정채성의갈등

4	생활	대학운동선수의 참여특성과 학교생활태도 및 운동스트레스의 관계	박병국 김경호	2007	1. 대학운동선수의 학교생활태도의 성별차이 에서 남학생은 인간관계, 여학생을 학교생활 필요/ 2. 스트레스 별 성별 차이: 남-선배 부당 행동, 기능 불만, 진로 고민, 여-개인시간 제약, 지도력 불만/ 3. 학교생활: 기능불만 운동 빈도 -선배 부당행동, 운동시간-기능 불만, 지도력 불만, 진로 고민
5	학교생활	학생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일상생활경험 비교	이만석 등	2009	·학생운동선수와 일반 학생의 일상생활 경험을 조사 결과 : 1.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일상생활의 경험의 차이가 있음/ 2.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중 활동공간의 차이가 있음/ 3.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내적심리상태는 주요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음
6	학교생활	대학 운동선수들의 학교생활 실태와 개선방안	이학래 고재곤	1994	·바람직한 대학 엘리트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결과 : 1. 학교 생활환경-기숙사의 열악한 부대시설과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함 / 2. 훈련조건의 적절성-훈련의 강도와 시간의 조절이 합리적이지 못함 / 3. 수업참여 실태-적성에 맞지않는 체육계열에 타의적으로 배정된 것이 면학의욕의 상실원인
7	진로	대학운동선수들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남승구	2007	·운동선수들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 규명 결과 : 대학 운동선수들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의 차이가 있으며, 진로 결정 수준 역시 차이를 보임
8	진로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상담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장호중	2006	·진로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 운동선수가 미경험 대학운동 선수보다 자기탐색 행동과 직업탐색행동에서 높으며, 감독이나 코치와 진로 상담을 한 대학운동선수가 부모님이나 운동부 선후배 보다 자기 탐색행동과 직업탐색행동에서 모두 높음
9	진로	대학 여성운동선수의 스포츠경험과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이경훈	2004	1. 여성 운동선수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제약 경험/ 2. 부정적인 경험이 스포츠참여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궁극적으로 제약하지는 않음.
10	운동부 문화	학벌사회 속 운동선수	이학준	2005	·운동부 문화 내에 학벌 사회에 존재하며, 학벌주의는 파벌주의로 인해 특정학교 출신의 국가대표 독식과 심판배정 등이 존재함
11	운동부 문화	대학 체육문화 연구 (2) 엘리트스포츠	김석희	2003	1. 체육특기생들의 수업은 별도로 관리 감독 되어야 한다./ 2. 선수 기숙사에서의 합숙생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단초 마련/ 3.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학내의 공식행사에 체육특기 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4. 체육부 전용 웹사이트 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됨/ 5. 체육특기생 진로 지도와 관련하여 관련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요구/ 6. 체육부와 유기적인 공조 체제 유지가 요구

12	문화	대학 운동선수들의 체벌에 관한 연구	김석희	2007	1. 지도자는 체벌이 부적절한 교육 강화의 수단 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 있음/ 2. 불가피하게 체벌이 요구될 때 지도자는 합리적인 준거 마련 선수들에게 사전에 공표/ 3. 지도자는 감정적 체벌이 폭력임을 인지해야 함/ 4.지도자는 선수들의 관계망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 5. 학교는 지도자의 신분 안정을 확보
13	운동부 문화	운동선수의 피학대 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 및 폭력행동 관계	이성철 민병남	2009	· 운동선수의 피학대경험, 폭력에 대한태도, 폭력행동의 관계 규명 : 피학대 경험은 폭력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폭력에 대한 태도가 피학대 경험과 폭력 행동을 중개하는 것으로 입증
14	운동부 문화	대학 엘리트선수들의 오늘과 내일	김석희	2003	· 대학운동선수들의 보다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현실적 방안 연구 : 1. 정상적인 학습참여가 진로 변경의 중요한 변수/ 2. 인권- 수업 결손으로 인한 교우관계 부적응, 폭력, 금품수수/ 3. 진로- 지도자 학부모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학생들의 방관자 태도
15	운동부 문화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운동문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신현균 이학준	2004	·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운동문화 : 1. 운동, 공부, 생활로 구분-운동과 공부는 대회참여와 훈련 때문에 분리되어 있음/ 2. 운동과 생활에서도 대회참여와 훈련 그리고 합숙소생활 등의 장애 때문에 대학생활을 정상적이지 못함.
16	운동부 문화	신체적 담론에 대한 여성운동선수들의 저항성에 관한 연구	이형일	2003	· 여성운동선수의 신체구성 과정 : 1. 남성영역에의 진입/ 2. 훈련을 통한 성의 정체성 확인/ 3. 순응과 저항을 통한 정체성 형성.

첫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학교에서 역시 적절한 학업을 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조광민(2007)은 대학교 학생선수는 '선수 학생'이며, 대학교 운동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예는 선수학생이 학생선수가 될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대학교 운동부 역시 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운동이라는 외길 인생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김양종과 정구영(2002)은 수업 출석률이 높을수록 학생만족도가 높고, 학생으로서의 역할 행동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학교 학생선수의 학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제도적 보완만으로도 일정한 학업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막연하게 생각하며, 특히 여학생들의 진로가 보다 제한적이다. 남승구(2007), 이경훈(2004), 장호중(2006) 등의 연구들은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진로 문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가정, 운동수준, 종목 등의 요인에 따라 그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진로 제한이 더 높은 편이다(이경훈, 2004). 한편 장호중(2006)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진로 탐색 행동을 많이 하고, 특히 가족이나 운동부 선·후배보다 감독이나 코치와 진로 상담을 할 경우가 더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교 학생선수 특히 여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운동부 지도자들 중심의 효과적인 진로 상담 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사적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훈련에 대한 부담감,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 통제 문화에 대한 순응 속에서 사회·심리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운동 이외의 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기 원하지만 실제로 이들 부분은 감독이나 선배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윤여탁, 이형일, 2002). 특히, 여학생들의 사생활에 대한 요구 및 스트레스가 남학생들보다 크게 나타났다(박병국, 김경호, 2007). 한편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사적 생활을 비교한 이만석 등(2009)은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경험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활동공간과 활동에서의 내적 심리 경험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하면서,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수준의 통제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학교 생활환경의 개선, 훈련의 강도와 시간의 합리적 조절,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대학교 운동부 문화 역시 폭력으로 상징되는 남성적 위계 문화에 잠식되어 있다. 대학교 운동부 문화는 폭력이라는 일방적인 의사소통 논리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되는 작동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김석희, 2007; 이성철, 민병남, 2009), 선·후배 및 감독과 금품수수 등이 일어나고 운동부 외의 학생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김석희, 2003), 성폭력 및 남성적 사회화 등의 남성 문화 일색이며(이형일, 2003), 또한 외부적으로 대학 간 학벌주의가 만연하여 실력보다는 학벌과 파벌로 선수가 선발되기도 한다(이학준, 2005).

이상과 같은 대학교 운동부는 개인의 사적 생활 및 다른 학생들과의 상시적 교류가 차단

되어 있으며, 학생선수들이 학업 노력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즉 대학교 운동부 역시 이전 단계의 운동부 구조와 마찬가지로 운동으로 편향된 운동부 운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인권적 관계보다는 일방향적 위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언제 운동을 그만둘지 모른다는 막연한 진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화된 운동부 구조 속에서 여학생들은 신체적 제약, 진로 제약, 사적 생활의 제약 등에 더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질문지 조사, 질적 조사 방법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대학교 학생선수, 학교 운동부 및 정책, 그리고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학술논문, 각종 보고서 및 정책자료 등을 일차자료로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대학교 1부 리그에 속해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824명의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81부를 제외하고 643명의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수합된 설문 자료는 '성별(gender)'을 중심 변인으로 두었으며, 추가적으로 '운동종목'을 교차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질적조사 방법인 면접을 통해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명의 면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면접참여자는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스노우 볼링(snow bowling)'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중 면접이 충실히 수행된 면접참여자 15명을 주요 연구 참여자로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면접은 설문 조사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대학교 운동부의 구조적 문제 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 대상자 범위

본 연구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최초의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연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대학 운동부는 성, 종목, 리그에 따라 운동부의 규모와 목적이 다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 전문가 협의를 통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양적 연구대상자 범위

첫째,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1부 리그에 속해있는 대학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한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이 폭력, 성 폭력 등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직접 설명・배포・수거가 요구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1부 리그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여자 학생선수의 수가 적음에 따라 여자 운동부의 경우에는 수도권 인근 지역까지 설문 지역을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2009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대학교 학생선수의 남・여 비율을 고려하여 질문지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14,617명 중 남학생이 11,622명, 여학생이 2,99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남녀를 1:4의 비율로 하여 설문 대상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남학생 507명(78.8%), 여학생 136명(21.2%)의 질문지를 수집하였다.

셋째, 대학 입학 이후의 전반적인 운동부 경험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 운동부 문화와 일반적 특성, 학업실태 및 진로준비 상황, 폭력, 성 폭력 등을 주제로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

1) 운동부는 크게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구성되어있다. 2부 리그보다는 1부 리그에 속해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적인 운동선수로서의 경향성을 높게 나타낸다. 종목별(인기종목・비인기 종목, 메달 가능 종목, 개인・ 단체 등), 성별에 따라서도 전문적인 운동선수로서의 경향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2) 질적 연구대상자의 범위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연구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25명의 면담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이 중 주요 면담참여자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둘째, 면담참여자의 성별을 고려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미진하였던 성인지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면담 참여자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였다.

셋째, 현재 대학교 운동선수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교에서 운동을 그만둔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면담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절차

월	연 구 절 차
5	연구 설계 및 실태조사 질문지 작성
	질문지 개발 방안 논의 및 면담 가이드라인 작성
6월	질문지 개발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
	질문지 핵심 내용 범위 설정 및 면담 예비조사
7월	질문지 실태조사 및 심층면담
8월	질문지조사 및 심층면담 및 중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9월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회의
10월	최종보고서 작업 및 전문가 회의
11월	

1) 질문지 조사

(1) 질문지 개발 및 수집

질문지 문항의 구성은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행되었다. 1차 완성된 질문지로 2010년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재배치하여 8월 3일 설문지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설문지 예비조사를 실행하면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질문지 수거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지도자들이 본 조사의 내용(폭력, 성폭력, 학습권 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질문지 배포 및 수거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최초 질문지 배포조사 교육을 받은 보조 연구원을 통해 배포 및 수거할 계획을 수정하여, 이 연구의 연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배포 및 수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표 3 참조).

<표 3> 질문지 조사 과정

내용 \ 월		질문지 개발 및 배포, 분석의 과정
5월	~ 18일	질문지 개발을 위한 기존 연구의 설문지 수집
	19일	질문지 개발 방안 논의 및 면담 가이드라인 구성
6월	16일	연구 방향 설정 및 질문지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1차)
	21일	질문지 핵심 내용 범위(폭력-성폭력-학습권 등) 설정
7월	18일	질문지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2차)
	22일~ 30일	질문지 사전조사
8월	5일~	질문지 개발 완료 및 배부
8월~9월		질문지 배부(수도권 대학교 직접 방문)

8월 10일부터 각 운동부의 지도자들과 접촉하여 질문지 배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는 방문을 거부하거나 어렵게 방문 약속을 잡아도 질문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질분지 배포를 거부하는 지도자들도 있었다. 심지어 코치의 허락 아래 조사를 실시하다가 감독에 의해 설문을 받는 도중 쫓겨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에 연구진의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조사를 진행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몇몇 대학의 체육과 교수 및 감독/코치들의 도움으로 9월 이후에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한편 질문지 수집 기간과 전국체전 준비 및 대회 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일정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감독이나 코치들은 대회 준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회 끝난 후로 조사를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질문지 수집은 최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연기될 수밖에 없었으며, 애초에 계획되었던 데로 샘플링을 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총 배포 질문지 1,000부 중 824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81부를 제외한 643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질문지 내용

선행 연구 분석, 1차면담 결과, 그리고 연구진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질문지 내용을 <표. 4>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4> 질문지 내용 및 구성

(문항 26, 세부문항 71)		내용
운동부 문화	대학 운동부의 일반 특성 1번 ~ 6번 (8 문항)	1~2. 종목, 운동 시작 시기 3. 하루 평균 운동 시간 (평상 시, 시합 시) 4. 하루 평균 운동 회수 (평상 시, 시합 시) 5. 년 평균 합숙 일수 6. 년 평균 대회 참가 횟수

(문항 26, 세부문항 71)		내용
	운동부의 문화 특성 7번 (5 문항)	7. 고등학교 때와의 운동 환경 비교 (훈련 양, 운동부 생활, 경기성적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학업 중요성)·
	대학 운동부의 문화 양태 8번 – 10번 (17 문항)	8. 생활 문화 (시간, 자기표현, 규율, 지도자의 지시) 9. 인식 문화 (격려, 신체인식, 자존감, 자존감 비교, 성 역할, 정체성, 여성성) 10. 운동 문화 (시설, 지도자 자질, 운동시간, 관계, 학교 지원, 경기력)
학업 / 진로 상황	학업 실태 및 진로 준비 11번 – 15번 (7 문항)	11. 수업 출석률 12. 수업 불참 이유 13. 졸업 후 희망 진로 14. 진로 준비 (진로 준비 의지, 다른 진로 의도, 지도자의 영향력) 15. 운동지속 이유
폭력 / 성 폭력 인식	폭력 및 성폭력 인식 16번 – 17번 (2 문항)	16. 폭력 (출전 제한, 시간제한, 격리, 무리한 훈련, 위협적 분위기, 기합, 구타, 언어폭력, 문주 강요, 집단 따돌림) 17. 성폭력 (성적 농담, 시각적 성폭력, 신체접촉, 훈련 시 신체접촉, 술자리 강요, 술자리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노출 강요, 성적 행위 강요, 성행위)
폭력 실태	폭력 경험/ 대응 18번 – 19번 (14 문항)	18. 폭력 실태 (구타, 기합, 언어폭력, 공포감, 과도한 훈련, 경기 출전 불이익, 격리, 시간 제약, 술 따르라는 강요, 집단 따돌림) 19. 폭력 대응 (상황발생 원인, 폭력 영향, 대응, 비 대응 이유)

(문항 26, 세부문항 71)		내용
폭력 실태	성 폭력 경험/ 대응 20번 – 21번 (13 문항)	20. 성폭력 실태 (훈련 시 신체 접촉, 술 따르라는 강요, 술자리 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 농담, 시각적 성폭력,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신체 노출 강요, 성행위 강요, 심리적, 신체적 위협으로 인한 성행위) 21. 성폭력 대응 (성폭력 영향, 대응, 비 대응 이유)
대상자 일반 특성	인구학적 특성 16번 – 24번 (9 문항)	16~19. 응답자 개인 특성 20. 부모 학력 21. 가정의 경제적 상황 22~24. 학생선수 전, 중, 후의 학업성적

총 71 문항, 소요시간 약 30–40분

2) 질적 조사

(1) 질적 조사 절차

질적 자료 수집은 질문지 내용 구성을 위한 1차와 주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수집으로 구분된다. 1차 수집 기간은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였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그동안 친분을 갖고 있었던 대학교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1~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질문지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대학교 운동부 문화에 관한 1차 면접 자료가 수집됨에 따라, 7월에 들어, 주요 연구 참여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가 대학교 운동부 문화 전반을 포함한다는 취지에서 연구 참여자는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만남은 주변의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는 스노우볼링 기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연구진에서 준수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및 시간적 제한을 고려해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즉 서울 및 경기도권의 대학에 소속된 학생선수로 하였다.

둘째, 운동 종목별로 적절한 인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단체 종목의 학생선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비율을 고려하였다.

셋째, 질문지조사 참여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약 4:1인 점을 고려해, 면접참여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을 반반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최종 면접참여자 사례는 15명 중 9명이 여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운동 경력을 고려하여 최소한 5년 이상의 운동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선수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7월과 8월 두 달동안 주요 연구 참여자에 대한 면담이 실시되었으며, 9월 질문지가 수합되고, 1차적인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면담은 질문지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에 집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회의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세밀한 분석이 시도되었고, 기술을 위한 논의과정이 진행되었다.

(2)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문지 조사뿐 아니라 면담조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면담을 수행하면서, 현재 대학교 학생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남녀 학생들이 신분의 노출을 꺼려하며 심층적인 면담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면담을 꺼려하였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면담을 거부하였다.

<운동부 세계가 좁아서...>

저도 많이 이야기해서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거 바라는데, 여기서 얼마나 좁은 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가명이고 그래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다 말해요. 전 못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죄송해요. (여자 유도 선수)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거부에 의해 주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에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의 대상을 현 운동선수뿐 아니라 운동중단 선수들까지 면담참여자의 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현재 운동선수들의 경우 신분노출의 어려움 때문에 소속된 운동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거나 면접자체가 제한되는 점이 있는 반면, 운동중단 선수들이나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에서 보다 자유로운 면담참여자를 포함하게 되면 보다 솔직한 경험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현재 대학생 또는 학생선수가 아니더라도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학교 중도탈락 학생선수 및 졸업한 전·현직 학생선수들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참여자 15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면담 참여자 특성

서	이름	성	종목	나이	학년	운동 경력	일반 특성
1	김태권	남	태권도	26	4	10년	군복무 후 복학해서 학교생활 중. 진로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고민이 많음.
2	김농구	남	농구	25	졸업	9년	프로 진출 시에 지도자에 의해 불이익을 경험하였으며, 2군에 진출했다가 현재 운동을 그만둠.
3	채농구	여	농구	22	2	10년	프로구단 입단 후 운동을 대학에 입학. 다시 프로팀에 가기 위해 노력 중.
4	성유도 A	여	유도	22	3	10년	운동도 공부도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 중.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음.

5		여	숏트랙	23	3	14년	실업팀을 목표로 운동하고 있음.
6	박수영	여	수영	23	4	14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여자운동선수로써의 갈등이 있음.
7	김유도B	여	유도	22	3	10년	무릎 부상 때문에 훈련을 못 하고 있음.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
8	박육상	여	육상	24	졸	11년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라 생각하여 열심히 노력함. 현재 졸업해서 임용고시 준비 중.
9	임럭비	남	럭비	20	1	4년	대학교 팀에 소속되어 있으나 현재 발목 부상 중이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음
10	김민턴	여	배드민턴	24	4	10년	현재 실업팀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선수로 대학과 실업팀을 번갈아가면서 훈련하고 있음
11	정야구	남	야구	24	졸	11년	체육대학은 아니지만, 팀 스포츠를 육성하는 대학에서 야구를 했으며, 현재 모교 대학원에서 공부함
12	박축구	여	축구	23	4	8년	축구가 좋아서 시작하였으며, 중·고·대학 모두 창단 멤버로 스카우트되었으며, 현재 실업 팀을 목표로 하고 있음
13	이수구	남	수구	23	3	10년	종목 특성상 팀이 많지 않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졸업 후 군 입대 예정.
14	정쿼시	남	스쿼시	22	2	6년	종목 특성상 개인 훈련을 하고 있음. 비인기 종목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한 고민이 있음.
15	임유도C	여	유도	24	4	10년	실업 팀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고민이 많음.

Ⅲ

연구 결과

Ⅲ.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종목별 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 643명중 남학생이 507명(78.8%), 여학생 136명(21.2%)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현재 대학교 학생선수의 남녀 비율(약 4 대 1)을 고려하여 샘플링한 비율을 반영한다. 종목별로는 총 35개 종목이었으며 종목 유형으로는 단체 종목 340명(52.8%), 대인 종목 169명(26.3%), 개인종목 134명(20.9%)으로 분류된다.

<표 6> 종목별 · 성별 응답자 수

단위: 명(%)

경기형태	종목	여학생	남학생	전체
개인종목	골프	-	2	2
	근대5종	-	10	10
	리듬체조	10	-	10
	보디빌딩	-	2	2
	볼링	3	1	4
	빙상	3	12	15
	사격	3	13	16
	사이클	-	1	1
	쇼트트랙	-	1	1
	수영	-	6	6
	스키	2	10	12

	양궁	-	3	3
	역도	3	2	5
	육상	7	16	23
	조정	-	14	14
	중장거리	-	1	1
	체조	3	6	9
	전체	34(5.3)	100(15.6)	134(20.9)
대인종목	레슬링	2	6	8
	복싱	-	7	7
	유도	8	24	32
	태권도	30	56	86
	펜싱	4	9	13
	배드민턴	7	-	7
	테니스	14	2	16
	전체	65(10.1)	104(16.2	169(26.3)
단체종목	농구	15	58	73
	럭비	-	40	40
	배구	-	9	9
	빙구	-	35	35
	수구	-	2	2
	야구	-	27	27
	축구	-	103	103
	카누	3	9	12
	필드하키	12	5	17
	하키	1	-	1
	핸드볼	6	15	21
	전체	37(5.8)	303(47.0)	340(52.8)
Total		136(21.2)	507(78.8)	643(100.0)

2) 운동선수 시작시기

응답자 중 263명(40.9%)의 학생이 초등학교 4-6학년에 운동선수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다음으로 213명(33.1%)이 중학교 1-3학년에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시작한 학생이 117명(18.2%), 고교 진학 이 후에 시작한 학생이 50명(7.8%)으로 나타났다. 운동시작 시기에서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운동선수의 대부분(74%)이 초등학교고학년이나 중등학교 기간 동안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운동선수생활 시작시기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초 3년 이전	24(17.6)	93(18.3)	117(18.2)
초 4-6년	57(41.9)	206(40.6)	263(40.9)
중 1-3년	50(36.8)	163(32.2)	213(33.1)
고교 이후	5(3.7)	45(8.9)	50(7.8)
Total	136(100.0)	507(100.0)	643(100.0)

3) 학년별 분포

응답자의 학년은 대학교 3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각각 209명(32.5%), 207명(32.2%)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1학년 168명(26.1%), 4학년 59명(9.2%)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8> 성별 · 학년별 응답자 수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대학교 1학년	23(16.9)	145(28.6)	168(26.1)
대학교 2학년	57(41.9)	150(29.6)	207(32.2)
대학교 3학년	44(32.4)	165(32.5)	209(32.5)
대학교 4학년	12(8.8)	47(9.3)	59(9.2)
전체	136(100.0)	507(100.0)	643(100.0)

4) 운동경력

응답자의 운동경력은 학교 대표 239명(37.2%), 상비군 135명(21%), 시도 대표 131명(20.4%), 국가대표 44명(6.8%), 유니버시아드 대표 34명(5.3%), 그리고 기타 경력 60명(9.3%)으로 분포하였다.

<표 9> 성별 · 운동경력별 응답자 수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국가대표	15(11.0)	29(5.7)	44(6.8)
상비군	32(23.5)	103(20.3)	135(21.0)
유니버시아드대표	8(5.9)	26(5.1)	34(5.3)
시·도 대표	43(31.6)	88(17.4)	131(20.4)
학교 대표	31(22.8)	208(41.0)	239(37.2)
기타	7(5.1)	53(10.5)	60(9.3)
전체	136(100.0)	507(100.0)	643(100.0)

5) 학기 중 거주지

학기 중 거주지는 기숙사 383명(59.6%), 합숙소 156명(24.3%), 집 88명(13.7%), 자취나 하숙 9명(1.4%), 그리고 친척집과 기타 거주지가 각각 5명(0.8%), 2명(0.3%)으로 분포하였다. 이러한 거주지 분포는 응답자의 83.9%가 기숙사와 합숙소와 같은 단체 생활에 용이한 숙소에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학기 중 거주지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집	20(14.7)	68(13.4)	88(13.7)
친척집	2(1.5)	3(0.6)	5(0.8)
기숙사	98(72.1)	285(56.2)	383(59.6)
자취나 하숙	4(2.9)	5(1.0)	9(1.4)
합숙소	12(8.8)	144(28.4)	156(24.3)
기타	-	2(0.4)	2(0.3)
전체	136(100.0)	507(100.0)	643(100.0)

2. 대학교 운동부 문화와 특성

이 장에서는 고교 운동부와의 비교, 운동부 훈련 실태 및 운동 여건 만족도, 운동부 내의 제약이나 통제, 운동선수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설문 및 면담 자료를 통해 대학교 운동부의 문화와 특성을 살펴본다.

1) 운동중심의 대학생활

학생선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학생선수들이 운동선수이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현실을 지적해왔는데(이명선 등, 2008), 이러한 운동부 특성은 대학에 와도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교 운동선수들의 삶은 운동과 훈련, 시합출전의 연속이다.

실제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입학 한 이후 고등학교와 비슷한 기숙사나 합숙소 생활, 그리고 과도한 훈련시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즉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대부분 기숙사(59.6%)나 합숙소(24.3%)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단체 생활로 인해 이들은 실제 훈련 시간보다 더 많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새벽 훈련이나 야간에 과도하게 훈련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같이 사니까>
> 같이 사니까 새벽 훈련도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새벽에 훈련하는 게 제일 싫어요. ...(중략).... 가끔 감독 열 받아서 야간에 안 끝내줘요. 작전 하나 될 때까지 하는 데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답답하고 힘들죠. (김농구, 남)

이러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동시간과 운동 횟수

시합이 있을 때, 대학교 운동부의 하루 운동시간은 5-6시간(34.4%), 3-4시간(30.6%), 1-2시간(19.5%), 7시간 이상(15.6%)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목별로, 대인종목(47.9%)과 개인종목(39.5%)은 5-6시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단체종목은 3-4시간(30.6%)과 1-2시간(29.2%)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목별 대회 기간 및 경기의 컨디션 조절 형태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1> 시합이 있을 때 운동시간

단위: 명(%)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전체
개인종목	15(11.2)	39(29.1)	53(39.5)	27(20.1)	134(100)
대인종목	11(6.5)	54(32.0)	81(47.9)	23(13.7)	169(100)
단체종목	99(29.2)	104(30.6)	87(15.6)	50(14.7)	340(100)
전체	125(19.5)	197(30.6)	221(34.4)	100(15.6)	643(100)

시합이 없을 때, 대학교 운동부의 하루 운동시간은 3-4시간(42.3%), 5-6시간(36%), 7시간 이상(11.7%), 1-2시간(1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대인, 단체 종목 모두 같은 순으로 운동시간의 비율이 나타났다.

<표 12> 시합이 없을 때 운동시간

단위: 명(%)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전체
개인종목	15(11.2)	55(41.0)	48(35.8)	16(11.9)	134(100)
대인종목	16(9.5)	76(45.6)	58(34.8)	18(10.7)	169(100)
단체종목	34(10.0)	140(41.2)	125(36.7)	41(12.1)	340(100)
전체	65(10.0)	271(42.3)	231(36.0)	75(11.7)	643(100)

시합이 없을 때 대학교 운동부의 하루 운동 횟수는 2회(39.6%)와 3회(37.5%)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종목별 역시 2회와 3회 운동하는 운동부가 다수였다. 특이하게 개인종목 중 1회 이하 운동한다는 응답이 32명(23.8%)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종목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3> 시합이 없을 때 운동 횟수

단위: 명(%)

	1회 이하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개인종목	32(23.8)	55(41.0)	30(22.4)	9(6.6)	8(5.9)	134(100)
대인종목	18(10.7)	62(36.7)	79(46.8)	10(10.0)	-	169(100)
단체종목	53(15.6)	137(40.3)	132(38.9)	8(2.4)	10(2.9)	340(100)
전체	103(16.0)	254(39.6)	241(37.5)	27(4.2)	18(2.8)	643(100)

시합이 있을 때 대학교 운동부의 하루 운동 횟수는 2회(36%)와 3회(32.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종목별 역시 2회와 3회 운동하는 운동부가 다수였다. 특히 시합이 없을 때에 비해 1회 이하 운동하는 경우가 높아졌는데, 이는 개인과 단체 종목의 시합기 컨디션 조절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4> 시합이 있을 때 운동 횟수

단위: 명(%)

	1회 이하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개인종목	31(23.1)	54(40.3)	27(20.1)	8(5.9)	14(10.5)	134(100)
대인종목	7(4.1)	57(33.7)	88(52.1)	17(10.1)	-	169(100)
단체종목	100(29.4)	120(35.3)	96(28.3)	14(4.1)	10(3.0)	340(100)
전체	138(21.4)	231(36.0)	211(32.7)	39(6.1)	24(3.8)	643(100)

(2) 연간 대회참가 및 합숙일수

대학교 운동부의 50.9%는 연간 3-4개의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34.1%는 5-6개 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개인종목이 연 5-6회에서 61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대인종목과 단체종목은 연 3-4회에서 각각 72명(42.6%), 232명(68.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연간 대회 참가회수

단위: 명(%)

	1-2	3-4	5-6	7-8	8회 이상	전체
개인종목	12(9.0)	23(17.2)	61(45.5)	19(14.2)	19(14.2)	134(100)
대인종목	8(4.7)	72(42.6)	64(37.9)	10(5.9)	15(8.9)	169(100)
단체종목	11(3.2)	232(68.2)	94(27.6)	2(0.6)	1(0.3)	340(100)
전체	31(4.8)	327(50.9)	219(34.1)	31(4.8)	35(5.4)	643(100)

대학교 운동부의 연간 합숙 일수는 300일 이상(67.5%)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50-299일(9.1%)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30-99일(8.9%), 30일 미만(7.4%)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숙사나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와 그 이외에 생활하는 운동부의 차이로 보인다. 종목별로는 대인종목과 단체종목의 300일 이상 합숙일이 높았던 반면, 개인종목은 상대적으로 합숙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연간 합숙일수

단위: 명(%)

	30일 미만	30 - 99일	100 - 149일	150 - 199일	200 - 249일	250 - 299일	300일 이상	전체
개인종목	27 (20.1)	12 (8.9)	4 (3.1)	2 (1.4)	6 (4.6)	10 (7.4)	73 (54.5)	134 (100)
대인종목	13 (7.7)	10 (6.0)	-	-	1 (0.6)	15 (8.9)	130 (76.9)	169 (100)

단체종목	7 (2.1)	35 (12.7)	9 (2.5)	5 (1.4)	10 (3.1)	33 (10.2)	231 (68.0)	340 (100)
전체	47 (7.4)	57 (8.9)	13 (2.0)	7 (1.0)	17 (2.7)	58 (9.1)	434 (67.5)	643 (100)

이상의 대학교 운동부의 훈련 실태를 종합하면, 대학교 운동부는 시합이 없을 때 일일 3-4시간(42.3%)이나 5-6시간(36%) 동안 운동하며, 2-3회(77.1%)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합이 있을 때는 개별 종목의 특성이 반영되어 낮아지기도 하지만, 시합이 없을 때와 비슷한 시간과 횟수로 훈련을 한다. 또한 연간 대회 참가 횟수로는 3-4회 참가하는 운동부가 전체의 50.9%였으며, 다음으로 5-6회 참가하는 학교가 34.1%로 나타났다. 대학 운동부 훈련에 있어 가장 특이한 것은 67.5%의 학생들이 연간 300일 이상 합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기숙사(59.6%)나 운동부를 위한 합숙소(24.3%)에서 생활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에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새벽과 야간 훈련이라는 새로운 운동 문화가 대학교 운동부 문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 시간대의 운동에 대해 학생선수들은 대학교 운동부 여건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운동시간으로 토로한다.

2) 운동부 여건과 생활

(1) 운동여건에 대한 인식

대학교 운동부의 운동 여건을 묻는 질문 중 만족에 비해 불만족 비율이 높은 항목은 '운동 시간' (31.3% > 24.1%)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반응은 만족(32.4%), 불만족(25.9%)으로 나타나 '운동 시간' 다음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그 외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운동부 내 인간관계(53.9%), 운동 시설(53.8%), 운동부 경기력(45.9%), 감독/ 코치(45.5%) 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 결과, 운동부 시설, 지도자의 자질, 운동시간, 학교의 관심과 지원, 운동부의 경기력 등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반면 동료 및 선후배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2.82, 남학생의 평균이 2.45로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운동부에서의 인간관계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05).

<표 17> 운동 여건

단위: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운동부 시설	여학생	9 (6.6)	66 (48.5)	42 (30.9)	14 (10.3)	5 (3.7)	136 (100.0)
	남학생	61 (12.0)	210 (41.4)	133 (26.2)	74 (14.6)	29 (5.7)	507 (100.0)
	전체	70 (10.9)	276 (42.9)	175 (27.2)	88 (13.7)	34 (5.3)	643 (100.0)
감독, 코치 등 지도자의 자질	여학생	8 (5.9)	42 (30.9)	55 (40.4)	25 (18.4)	6 (4.4)	136 (100.0)
	남학생	50 (9.9)	193 (38.1)	162 (32.0)	74 (14.6)	28 (5.5)	507 (100.0)
	전체	58 (9.0)	235 (36.5)	217 (33.7)	99 (15.4)	34 (5.3)	643 (100.0)
운동시간	여학생	3 (2.2)	27 (19.9)	69 (50.7)	33 (24.3)	4 (2.9)	136 (100.0)
	남학생	15 (3.0)	110 (21.7)	218 (43.0)	123 (24.3)	41 (8.1)	507 (100.0)
	전체	18 (2.8)	137 (21.3)	287 (44.6)	156 (24.3)	45 (7.0)	643 (100.0)
동료 및 선후배와의 인간관계	여학생	4 (2.9)	52 (38.2)	51 (37.5)	23 (16.9)	6 (4.4)	136 (100.0)
	남학생	74 (14.6)	217 (42.8)	146 (28.8)	53 (10.5)	17 (3.4)	507 (100.0)
	전체	78 (12.1)	269 (41.8)	197 (30.6)	76 (11.8)	23 (3.6)	643 (100.0)
학교의 관심과 지원	여학생	1 (0.7)	34 (25.0)	65 (47.8)	24 (17.6)	12 (8.8)	136 (100.0)
	남학생	31 (6.1)	142 (28.0)	204 (40.2)	85 (16.8)	45 (8.9)	507 (100.0)
	전체	32 (5.0)	176 (27.4)	269 (41.8)	109 (17.0)	57 (8.9)	643 (100.0)

운동부의 경기력	여학생	2 (1.5)	52 (38.2)	70 (51.5)	11 (8.1)	1 (0.7)	136 (100.0)
	남학생	48 (9.5)	193 (38.1)	211 (41.6)	48 (9.5)	7 (1.4)	507 (100.0)
	전체	50 (7.8)	245 (38.1)	281 (43.7)	59 (9.2)	8 (1.2)	643 (100.0)

주목해야 할 점은(다음의 폭력에 관한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대학교 운동부의 폭력경험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89.7%) 이들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코치, 감독, 선배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및 선후배와의 인간관계(53.9%)와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 자질(45.5%)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부 내의 폭력 경험들이 실제 인간관계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폭력의 경험을 일상적인 운동부 생활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폭력에 대해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폭력을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로 '집단생활의 규율을 위해', '정신력 강화 및 팀 분위기를 위해' 등이라고 인식한다.

<집중력을 위해>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부가 아예 안 맞고 그런 게(기합, 체벌) 없게 되면.. 정신력이 나태해지는 거 같아요. 시합 때 집중을 못하는 상황도 많고 왜냐면은 종목 특성상,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집중을 안 하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원체 빠르게 날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한다는 게 연습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공에 퍽 맞거나 공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짓하다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다치면 팀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정야구, 남)

이와 같이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 시간에 대한 불만족을 제외한 대학 운동부의 운동여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결과에 따르면, 이는 기숙과 합숙 생활로 인해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타 및 기합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및 선후배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운동부의 폭력을 일정부분 용인하는 분위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남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학생들이 인간관계에 좀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고교선수시절과의 비교 및 변화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대학 진학 후 고등학교와 비교해서 경기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64.3%), 학업의 중요성 인식(51.5%), 훈련 외의 생활 어려움(46.7%) 및 훈련량(45.3%)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힘든 운동부 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 대학교 운동부에서의 변화(고등학교와의 비교)

단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훈련량이 증가하였다.	여학생	22 (16.2)	46 (33.8)	36 (26.5)	17 (12.5)	15 (11.0)	136 (100.0)
	남학생	41 (8.1)	72 (14.2)	135 (26.6)	148 (29.2)	111 (21.9)	507 (100.0)
	전체	63 (9.8)	118 (18.4)	171 (26.6)	165 (25.7)	126 (19.6)	643 (100.0)
전반적으로 운동부 생활이 힘들어졌다.	여학생	11 (8.1)	23 (16.9)	38 (27.9)	50 (36.8)	14 (10.3)	136 (100.0)
	남학생	28 (5.5)	93 (18.3)	150 (29.6)	146 (28.8)	90 (17.8)	507 (100.0)
	전체	39 (6.1)	116 (18.0)	188 (29.2)	196 (30.5)	104 (16.2)	643 (100.0)
경기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여학생	6 (4.4)	10 (7.4)	29 (21.3)	62 (45.6)	29 (21.3)	136 (100.0)
	남학생	20 (3.9)	47 (9.3)	117 (23.1)	200 (39.4)	123 (24.3)	507 (100.0)
	전체	26 (4.0)	57 (8.9)	146 (22.7)	262 (40.7)	152 (23.6)	643 (100.0)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여학생	3 (2.2)	20 (14.7)	35 (25.7)	43 (31.6)	35 (25.7)	136 (100.0)
	남학생	28 (5.5)	59 (11.6)	167 (32.9)	162 (32.0)	91 (17.9)	507 (100.0)
	전체	31 (4.8)	79 (12.3)	202 (31.4)	205 (31.9)	126 (19.6)	643 (100.0)

대학생활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훈련량이 증가하였다는 항목에서 남학생 응답(51.1%)이 여학생(23.5%)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05). 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학업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여학생(25.7%)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대학교 운동부에서의 변화에 대한 성별 평균 비교

		N	Mean	t	Sig. (2-tailed)	Mean Difference
훈련량이 증가하였다.	여학생	136	2.68	-6.369	.000	-.742
	남학생	507	3.43			
전반적으로 운동부 생활이 힘들어졌다.	여학생	136	3.24	-.978	.328	-.106
	남학생	507	3.35			
경기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여학생	136	3.72	.123	.902	.013
	남학생	507	3.71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여학생	136	3.64	1.797	.073	.188
	남학생	507	3.45			

대학에 와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면담 결과 역시 이러한 질문지조사결과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대학 입학 후 달라진 운동부의 생활에 대해 면담자들은 경기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드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고등학교와 비교해 보다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교 운동부에서 느끼는 자신의 운동능력이나 경기력에 대한 무력감과 연관된다. 이를테면,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표면적으로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자기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거나 노력하면 향상될 것이라는 자기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더 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심각해진다.

<내가 안 되나?>
저도 고등학교 때 잘한다고 해서 온 건데 와보니까 같은 실력의 애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실력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정도 하면 시합을 뛰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도 못 뛰잖아요. 엔트리로 못 들어가는데.... '내가 안 되나?' 이런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워낙 잘하는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정야구, 남)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막 운동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대학에 오니까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대표까지 했는데, 대학 오니까 제 앞서 청소년 대표한 선배가 일곱 명이나 되고, 국대(국가대표)하는 선배 랑도 같이 시합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컨디션 나빠도 입상은 하겠지 했는데 지금은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만 생겨요. (박육상, 여)

고등학교 때는 운동만 잘하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부는 마음일 뿐이지,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대로 공부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려움은 더 큰 불안감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며 이들을 괴롭힌다.

<나중에 뭐라도 하려면>
솔직히 운동선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운동선수는 1등 아니면 알아주지도 않고요. 지금도 부상이 잦아서 언제까지 운동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도 하려면 공부 좀 해야 하는데, 막상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운동만 했으니까 막막하니까요. 운동은 확실하니까 또 죽어라 운동만 하는 거죠. (임유도C, 여)

또한 대학교 운동부 생활의 어려움은 대학생이라는 기대감에 비해 여전히 위계적인 선후배 관계,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운동부 생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역시 대학교 운동부 생활을 힘들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판단된다.

<이제 성인인데... 고등학교 때랑 똑같은 대학생활>

그냥 대학생활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냥 운동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니까 성인인데 똑같은 일반학생들하고 성인인데도 뒤처지는 기분 열외 되는 기분. (고등학교 때와)뭐 운동의 방식이나 우리의 사고방식, 선생님의 사고방식 이런 게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냥 변함이 없어요. 대학생인데 고등학생 같아요. 그냥 시간되면 운동하고 때 되면 밥 먹고 자고. 수업도 안 듣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하고. (채농구, 여)

<모셔야 할 선배가 많아져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모실선배가 2,3학년 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2학년들도 좀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셔야 되는 선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대학 오니까 모셔야 되는 선배가 3,4학년인거예요. 그렇게 선배들이 많아지니까 더 힘들어지죠. (정야구, 남)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평균적으로 대학 입학 후 이전보다 전반적인 운동부 생활을 더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64.3%, 평균 3.71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 양이나 강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경기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경기력이 더 향상될 것이란 자기 신뢰가 낮아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부분에서도,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대학 입학 후 대학생으로서 자유로운 생활, 적어도 성인으로서 고등학교와는 다른 생활을 기대했지만, 대학교 운동부는 여전히 고교 시절의 위계적이고 획일적인 운동부 생활을 강요하는 문화가 존재하였으며, 선배 모시기 문화 같은 것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심각한 운동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며 공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대학교 운동부 문화는 남녀의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훈련 양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엄격한 위계와 통제문화

대학교의 학생선수 생활은 이전의 운동생활보다 훨씬 더 자율적이고 자유로울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대학교 운동부 역시 여전히 위계와 통제문화가 핵심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87.4%는 코치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자신의 생각보다 운동부의 규율을 우선시 하고(74.9%), 외모나 복장(56.8%) 및 훈련 이외의 시간 사용(41.3%) 역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치와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및 '규율이 우선' 이라는 문항에 각각 3.1%, 8.2% 만이 반대로 응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율이 코치와 감독에 의해 정해진다고 할 때 이는 대학 운동부 내에서 코치와 감독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모/ 복장 규제'와 '훈련 이외의 시간 활용'에 대해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학생이 각각 75.9%와 71.8%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자기표현이나 자유 시간조차 통제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0> 대학교 운동부 권력

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훈련 이외 시간을 내 의지대로 쓸 수 없다.	여학생	20 (14.7)	44 (32.4)	36 (26.5)	24 (17.6)	12 (8.8)	136 (100.0)
	남학생	65 (12.8)	137 (27.0)	160 (31.6)	107 (21.1)	38 (7.5)	507 (100.0)
	전체	85 (13.2)	181 (28.1)	196 (30.5)	131 (20.4)	50 (7.8)	643 (100.0)
외모나 복장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여학생	33 (24.3)	31 (22.8)	26 (19.1)	30 (22.1)	16 (11.8)	136 (100.0)
	남학생	161 (31.8)	140 (27.6)	97 (19.1)	80 (15.8)	29 (5.7)	507 (100.0)
	전체	194 (30.2)	171 (26.6)	123 (19.1)	110 (17.1)	45 (7.0)	643 (100.0)

내 생각보다 운동부 규율이 우선이다.	여학생	33 (24.3)	60 (44.1)	28 (20.6)	11 (8.1)	4 (2.9)	136 (100.0)
	남학생	153 (30.2)	236 (46.5)	80 (15.8)	29 (5.7)	9 (1.8)	507 (100.0)
	전체	186 (28.9)	296 (46.0)	108 (16.8)	40 (6.2)	13 (2.0)	643 (100.0)
나는 코치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여학생	43 (31.6)	66 (48.5)	21 (15.4)	3 (2.2)	3 (2.2)	136 (100.0)
	남학생	227 (44.8)	226 (44.6)	40 (7.9)	6 (1.2)	8 (1.6)	507 (100.0)
	전체	270 (42.0)	292 (45.4)	61 (9.5)	9 (1.4)	11 (1.7)	643 (100.0)

성별 차이로, '외모나 복장 규제', '운동부 규율 우선성', '코치와 감독의 지시 이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모나 복장 규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내 생각보다 운동부 규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코치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개인생활에 대한 통제에 대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외모나 복장 규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보다 운동부 규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코치와 감독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와 감독의 지시 이행의 평균은 여학생 1.95, 남학생 1.70, 운동부 규율 우선성의 평균은 여학생 2.21, 남학생 2.02로 나타나,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자율성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운동부 내 집단문화와 권위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 대학교 운동부에서의 생활문화에 대한 평균 비교

		N	Mean	t	Sig. (2-tailed)	Mean Difference
훈련 이외 시간을 내 의지대로 쓸 수 없다.	여학생	136	2.74	-.902	.367	-.099
	남학생	507	2.83			

외모나 복장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여학생	136	2.74	2.970	.003	.382
	남학생	507	2.36			
내 생각보다 운동부 규율이 우선이다.	여학생	136	2.21	1.996	.047	.190
	남학생	507	2.02			
나는 코치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여학생	136	1.95	3.149	.002	.246
	남학생	507	1.70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순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면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가령 학생선수들은 코치나 감독을 오너(owner)라고 표현하곤 하였다. 예를 들어, “코치가 정하기 맘이죠. 오너(owner)잖아요.” 이 때 오너는 운동부의 주체 혹은 결정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너잖아요>
어찌 됐건 저희 팀 감독님이고 제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고, 오너잖아요. (박축구, 여)

<감독이 오너니까요>
감독이 변하면 다 변하는 거죠. 감독이 오너니까요. (정야구, 남)

이들이 지도자를 ‘오너’로 보는 것은 운동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 권한이나 권력이 감독/ 코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의 졸업 후 진로뿐 아니라 경기출전이나 선발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이 최소한 잘되게는 못해도 잘 못되게는 할 수 있는” 권력자이다.

<잘 되 게는 못 해도, 못 되게는 할 수 있다>
감독이 열 개 구단에 공문을 보냈데요. OOO은 O대 탈퇴선수니까 뽑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도망가서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괜히 심술부려가지고 (팀에서 나가란 식으로)너 알아서 하라기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간 건데. 이게 무슨 탈퇴선수에요. 도와달란 말도 하기 싫어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거기에

훼방을 놓으면 안 되죠. (김농구, 남)

<감독님한테 예쁨을 받아야 게임을 뛰니까>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더 예쁨 받기 위해서... 감독님한테 예쁨을 받아야 게임을 뛰니까. 내 직업은 이거고. (감독님이 엔트리를 정할 때 영향력은? 엄청나죠. 거의 100프로라고 해도 될 정도로요. (김민턴, 여)

즉 감독/ 코치는 선수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지만 성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외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 종목의 경우 경기의 선발 엔트리(entry) 결정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생선수들은 감독이나 코치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감독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학년이나 서열과 마찬가지로 서열을 위계화 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권력이다. 다음의 사례는 운동부에서의 서열이 학년, 운동실력, 그리고 감독에게 예쁨 받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운동부 서열>
운동부에서 첫 번째 서열은 학년 서열이에요. 그 다음은 운동 실력 서열이고요. 그리고 무시 할 수 없는 게 감독한테 예쁨 받는 서열이 있어요. 그래도 막 노골적으로 애교 부리고 그러는 애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다 '따' 시켜버리니까요. 그래도 절대 'No'라고 대답하는 애들도 없죠. (김민턴, 여)

이러한 감독과 선수들의 권력관계가 운동 외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예를 감독과 코치가 정한 규율로 선수들의 생활이 통제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시간 통제, 두발 및 복장 규제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 때때로 감독과 코치의 기분에 따라 통제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운동부 전반에 걸친 지도자의 절대 권력을 설명해 준다.

<강제 삭발>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머리 자를 때 마다 이번이 마지막,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교수님들은 머리가 길면 외모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짧으니까 옷도 마음대로 못 입죠. 여자대로 입고 싶어도 잘 안 어울리니까. (성유도A, 여)

<대학생이 되면...>
교수님이 일정기간 되면 삭발 시키고, 저도 대학생 되면 머리 기르고 싶었는데 기르다 보면 삭발 시켰죠. (김태권, 남)

<행선지를 밝혀야 할 수 있는 외출>
외출외박이 없어요. 평일에 통금시간이 열시고, 토요일은 열두시 그리고 외박. 선생님이 외출은 절대 못하게 해요 행선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집에는 보내줘요 집에 갈 거면 토요일에 갔다가 하루자고 일요일에 넘어와라. (채농구, 여)

<다 지들 마음이죠>
솔직히 토요일 바라보고 주중에 운동하는데, 토요일 날 외출 짤리면 미쳐버리는 거죠. 기숙사에서는 할 것도 없고요. 한번은 학교에서 나와서 시내에 거의 다 와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다시 집합하라는 거예요. 외출 허락 받고 나간 건데요. 다시 숙소로 돌아 와야 했죠. 진짜 화나는 건 막상 돌아가도 별거 아니거 때문에 부른 거라는 알 때에요. 들어가 보면 주장이 코치 말 듣고 다시 부른 건데, '청소가 안 됐다.', '기구 정리가 안 됐다.' 이런 걸로 트집 잡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청소하고 나서 다시 나가는데, 진짜 지들이 뭐라고요. (김태권, 남)

이와 같은 통제 문화는 대학교 운동부에 특별한 '탈출 문화'를 만들게 한다. 탈출은 기숙사 혹은 합숙소 밖으로 허락 없이 특히 밤에 몰래 외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가 알게 될 경우 체벌이나 기합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때때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지만 선수들은 자유를 갈구하며 탈출을 감행한다.

<탈출>
도복 띠가 있어요. 그 띠를 묶어서 타고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떨어져서 다친 애들도 있어요. (임유도C, 여)

<걸리면 죽는 개구멍>
대학 때 탈출 한번 안 해본 애가 있나요? 저희는 개구멍이 따로 있어서 조금 인정도 해 주는 분위기였기는 했는데, 그래도 걸리면 죽는 거긴 하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김농구, 남)

<유일한 낙>
저희 학교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선배들 자고 한 시 정도에 나가면 진짜 운동할 때 뛰면 거의 30분 만에 술집에 도착해서, 30분 글라스로 먹고 또 힘들게 돌아오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유일한 낙이었어요. (김태권, 남)

한편 운동부의 규율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선배에게도 있는데, 이때 선배는 지도자에게서 권한을 이양 받아 행한다는 측면에서 지도자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독이나 선배들의 통제와 규율을 잡는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은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것" 이라고 순응하고 받아들인다.

<제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따르는 거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올라가면서 학교도 다니고 머리도 바꾸고 여자 친구도 만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일반) 학생들 볼 일이 없을 정도니까 정말 심하다고 생각은 하죠.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따르는 거죠. (김농구, 남)

<튀는 행동으로 인식>
영어 학원 다니는 것도 눈치 주는 선배들인 걸요 뭘. 저도 제가 너무 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안하면 튀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박육상, 여)

<수업도 단체로-선생님 말이 법이죠>
농구부는 단체 운동이니까 단체로 움직여야 해요. 그런 의식이 강한 거죠. 수업을 들어가도 단체로, 안 들어가도 단체로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해 줘야 하잖아요. 열외 없이 하려면요. 대부분 코치님 말이 법이 되는 거죠. (채농구, 여)

즉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스스로 개성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운동부 생활에서 답습해 온 집단생활 문화가 습관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은 이러한 지도자와 선수간의 권력관계에 더 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외모나 복장 규제'와 '코치와 감독의 지시 이행'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외모나 복장의 규제, 코치나 감독의 권력에 더 순응적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코치와 감독을 운동부의 주인 혹은 소유주(owner)로 인식하며, 이들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자 한다. 이는 코치와 감독이 운동부의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이지만, 운동부 내에 '튀지 말아야 한다.', '나 때문에 동료가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아래 사람이 기어야 한다.' 등과 같이 단체 생활의 문화적 규범이 잔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자율 또는 타율적으로 운동부의 위계 문화를 재생산한다. 한편 대학교 운동부의 통제 형태는 대체로 시간이나 표현 제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양적/ 질적 결과를 볼 때, 일반 사회에서 군대 수준의 통제가 통용되는 곳이 대학 운동부이며, 학생들은 부상이나 체벌을 무릅쓰고라도 밤에 운동부를 탈출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남성보다 이러한 규율 문화에 대한 순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운동선수의 정체성과 성별 인식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 22의 문항 1, 3, 4). 이들은 운동선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66.1%), 남학생 평균 3.88, 여학생 평균 3.48로 운동선수로서의 자부심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았다. 또한 이들은 주변에서 운동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63.9%), 이와 관련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157>.05$). 또한 학생선수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자신들의 적극성과 주도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49.6%), 여학생의 평균이 3.29, 남학생의 평균이 3.49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스스로를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p=.025<.05$).

여자 운동선수에 대한 통념이나 인식을 살펴보면(아래 표 22의 문항 5), 우선 "여자는 운동선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통념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0.8%, '그렇지 않다'가 46.8%로 통념을 받아들이는 비율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의 62.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들의 42.6%만이 '그렇

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균값으로 보면 여학생의 평균이 2.38, 남학생의 평균이 2.87로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p=.000<.05).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여자는 운동선수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운동선수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아래 표 22의 문항 6), "여자운동선수의 진로가 남자선수보다 제한적이다"라는 인식에 대해 '그렇다'가 46.8%, '그렇지 않다'가 26.2%로 나타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p=.580<.05), 여학생의 45.6%, 남학생의 47.1%가 '그렇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률은 여자운동선수의 진로와 장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현실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 갈등을 살펴보면(아래 표 22의 문항 2, 7), 우선 "여자운동선수는 여성스러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그렇지 않다'(40.6%)는 응답이 '그렇다'(35.9%)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다.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p=.146>.05), 여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다'가 43.4%, '그렇다'가 32.3%인 반면 남학생은 각각 39.8%, 36.9%로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 여학생들의 응답은 여자로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다움'에 대한 요구와 운동선수로서 '여성다움의 포기'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의 갈등을 시사한다. 즉 한편으로 여성다움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다른 한편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혹은 그럴 필요 없다는 인식이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운동종목상의 특징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성들 스스로의 내면적 갈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의 경우 '남성다움'과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은 갈등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반면 여학생들에게 '여성다움'은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과 갈등하고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운동선수의 몸'에 대한 인식을 통해 뒷받침된다. 운동선수로서의 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아래 표 22의 문항 2) 여학생들의 경우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중요한 성별차이가 발견된다. 즉 운동으로 인한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는다고 응답한 사람 중 남학생은 23.4%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60.3%로 응답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몸에 대한 콤플렉스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평균(3.59)이 남학생(2.6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5).

<표 22> 운동선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주변에서 내가 운동하는 것을 지지해준다.	여학생	2 (1.5)	8 (5.9)	43 (31.6)	63 (46.3)	20 (14.7)	136 (100.0)
	남학생	4 (0.8)	31 (6.1)	144 (28.4)	217 (42.8)	111 (21.9)	507 (100.0)
	전체	6 (0.9)	39 (6.1)	187 (29.1)	280 (43.5)	131 (20.4)	643 (100.0)
2. 운동으로 인한 몸의 변화 때문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여학생	5 (3.7)	21 (15.4)	28 (20.6)	53 (39.0)	29 (21.3)	136 (100.0)
	남학생	69 (13.6)	191 (37.7)	128 (25.2)	97 (19.1)	22 (4.3)	507 (100.0)
	전체	74 (11.5)	212 (33.0)	156 (24.3)	150 (23.3)	51 (7.9)	643 (100.0)
3. 나는 운동선수인 게 자랑스럽다.	여학생	2 (1.5)	11 (8.1)	54 (39.7)	58 (42.6)	11 (8.1)	136 (100.0)
	남학생	3 (0.6)	21 (4.1)	127 (25.0)	240 (47.3)	116 (22.9)	507 (100.0)
	전체	5 (0.8)	32 (5.0)	181 (28.1)	298 (46.3)	127 (19.8)	643 (100.0)
4. 나는 일반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다.	여학생	2 (1.5)	27 (19.9)	48 (35.3)	47 (34.6)	12 (8.8)	136 (100.0)
	남학생	9 (1.8)	49 (9.7)	189 (37.3)	206 (40.6)	54 (10.7)	507 (100.0)
	전체	11 (1.7)	76 (11.8)	237 (36.9)	253 (39.3)	66 (10.3)	643 (100.0)
5. 여자는 남자보다 운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학생	29 (21.3)	56 (41.2)	26 (19.1)	21 (15.4)	4 (2.9)	136 (100.0)
	남학생	67 (13.2)	149 (29.4)	118 (23.3)	131 (25.8)	42 (8.3)	507 (100.0)
	전체	96 (14.9)	205 (31.9)	144 (22.4)	152 (23.6)	46 (7.2)	643 (100.0)
6. 여자선수의 진로는 남자선수들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여학생	10 (7.4)	35 (25.7)	29 (21.3)	42 (30.9)	20 (14.7)	136 (100.0)
	남학생	40 (7.9)	83 (16.4)	145 (28.6)	184 (36.3)	55 (10.8)	507 (100.0)
	전체	50 (7.8)	118 (18.4)	174 (27.1)	226 (35.1)	75 (11.7)	643 (100.0)

7. 여자운동선수는 여성스러움을 포기해야 한다.	여학생	22 (16.2)	37 (27.2)	33 (24.3)	32 (23.5)	12 (8.8)	136 (100.0)
	남학생	57 (11.2)	145 (28.6)	118 (23.3)	121 (23.9)	66 (13.0)	507 (100.0)
	전체	79 (12.3)	182 (28.3)	151 (23.5)	153 (23.8)	78 (12.1)	643 (100.0)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운동선수라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일반인들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여자선수로 여학생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자아성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갖고 있는 "운동에 의해 변화된 몸에 대한 콤플렉스"는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되며, '여성다움'에 대한 열망과 포기라는 애증과 갈등이 표현된다. 이러한 특징은 면담을 통해 잘 드러난다. 면담 내용은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여자 선수로서 여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지배하며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위축시키는 것은 몸(body)에 대한 콤플렉스이며, 특히, 종목 특성 상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일부 개인 종목(스케이팅, 수영 등) 및 대부분의 격투 종목 여자 선수들의 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제 다리가 무서운 거죠>

어쩔 수 없이 체형이 변해요. 골반이 조금 넓어지고, 허벅지는 정말 굵어지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나 웬만한 선수들보다 더 굵으면 굵었지 가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를 살 때 허리에 맞추면 다리에 안 맞고, 다리에 맞추면 허리가 너무 크고, 그런 것 때문에 옷 사러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요. 보통 여자들이 입는 44 55 66 사이즈는 저한테 안 맞아요, 그런 몸 보면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고민도 들게 되요. 여자한테는 이런 몸을 본다는 게 조금 심각하거든요. ...(중략)... 여자로서 자신감은 완전 없어진 거 같아요. 운동할 때 빼고는 계속 위축되고요. 밤에 제가 제 다리를 보면서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자다리야 하는 마음으로요. (박수영, 여)

<치마는 불편해요>
치마는 불편해요. 항상 트레이닝 바지 입다가. 아무래도 일반사람 보다는 하체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김숏트, 여)

이에 여학생들은 여자답게 꾸민다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여성다움 또는 여성다워져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한편으로는 여성다움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서 동시에 '여성답게 꾸며서는 안 된다.'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선수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걸며 이를 어기면 죄를 짓는 것처럼 인식하였다. 즉 '유도를 예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에게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갈등적이거나 모순된 상황인 것이다.

<유도를 예쁘게 할 수는 없어요. 포기해야죠>
얻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는. 포기해야할 것이 너무 많죠. 근육을 키우려고 하면 몸도 커져야 하고, 유도를 예쁘게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막 사진 찍히잖아요. 인상 쓰고 그러는 사진. 나올 때 아 정말 그러면 짜증나요... 김연아가 인기를 엄청 얻었잖아요. 그리고 개는 연예인 해도 될 정도 자나요. 유도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면 예쁘지는 않고 화면에는 더 뚱뚱해 보이니까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연아는 머리도 길고, 몸매 관리도 하고, 시합 할 때 화장도 하고, 여자로서 저런 운동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성유도A, 여)

여학생들의 정체성 갈등과 모순은 어린 시절부터 감독이나 코치들이 '여자가 아닌 운동선수'라는 정체성을 강요하고, 운동선수로서 머리를 짧게 하거나 남자처럼 운동복을 입고 다녀야 했던 운동부 문화에서부터 비롯된다.

<여자가 아니라 운동선수>
중학교 입학하기 전 동계훈련 때부터 코치님이 머리를 자르고 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구레나룻 남기는 게 욕심이었어요. 코치님한테 짤리고 그랬죠. 막 바리캉으로 밀었어요. 니들은 운동선수지 여자가 아니라면서... 그때부터 거의 10년 동안 짧은 머리를 하고 살아온 거죠. 이제 대학 4학년이 돼서야 머리를 조금 길러보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어색하고, 괜히 남자

가 여자 가발 쓴 것 같은 느낌? 어릴 때부터 짧은 머리를 하고 살았으니까 여자 옷은 제대로 입지도 못 했죠. (임유도C, 여)

또한 '운동부 밖'에서 만나게 되는 일반인들과의 경험이나 자신의 외모를 남성으로 오해받으면서 생기는 해프닝성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여학생들의 정체성 혼란과 갈등 경험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여잔데요..>
원래 여자였는데. 어릴 때부터 화장실 가거나 목욕탕 가면은 여자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한데 못 가게 해요. 아니면 여자용 가면 미친 사람 취급하고, 목소리로 얘기하면 여잔데요, 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움츠리게 되고, 옷 사러 가면은 여자 것 보긴 보는데 남자 쪽은 이쪽이라고, 그럴 때부터 자신감 없어져서 못 사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길가다가 여자들이 따라오고 그런 쪽도 있었어요. 전화도 따려고 하고, 중학생 때. 그래서 아예 여자 스타일 도전 안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TV에 머리 짧은 여자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근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옷이 안 맞아요. (성유도A, 여)

물론 남성적 신체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종목 선수에 한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몸에 대한 콤플렉스는 여자 선수로서의 피해의식을 강화하여 운동이외의 일상이나 다른 영역에서 위축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를 '운동선수로만' 규정하거나 여성스러움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상에서와 같이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과 성별인식에 대한 분석은 남자 학생선수와 여자 학생선수의 성별인식과 경험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운동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여자운동선수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이나 통념을 갖고 있는 비율이 더 높으며, 남학생보다 여자운동선수의 진로가 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여자와 운동선수의 정체성사이에서 '여성다움'의 포기와 열망의 이중적 갈등을 느끼며, 운동선수로서 갖게 된 몸에 대한 콤플렉스를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소결론

대학교 운동부 문화 및 특성과 관련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운동부는 고등학교와 유사하게 운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사결과, 대학교 운동부는 경기 종목의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합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공히 일일 3-4시간이나 5-6시간 그리고 2-3회 정도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대회에 참가하는 횟수는 절반정도의 운동부가 3-4회로 밝혀졌다. 특이하게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67.5%가 300일 이상 합숙을 한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대부분 기숙사(59.6%)나 운동부를 위한 합숙소(24.3%)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 운동부에서는 고등학교와 달리 새벽 훈련이나 야간 훈련과 같은 새로운 운동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고교 때보다 힘든 운동부 생활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 대체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대학교 운동부의 시설(53.8%), 선후배간 인간관계(53.9%), 운동부 경기력(45.9%%), 지도자(45.5%), 학교의 관심과 지원(32.4%) 등과 같은 운동 여건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교 시절과 비교한 결과, 이들은 대학 진학 후 경기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64.3%), 학업의 중요성 인식(51.5%), 훈련 외의 생활 어려움(46.7%) 및 훈련량(45.3%) 등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면담 결과,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교 운동부에서 느끼는 자신의 운동능력이나 경기력에 대한 무력감을 경험하며, 표면적으로는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내면적으로는 자기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향후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학년이 오르면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며, 학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이에 따른 실천적 노력은 병행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가고 있다.

셋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엄격한 위계 및 통제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대학에 입학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기대하였지만, 대학교 운동부에서도 여전히 위계와 통제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조사 결과,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87.4%는 코치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자신의 생각보다 운동부의 규

율을 우선시 하고(74.9%), 외모나 복장(56.8%) 및 훈련 이외의 시간 사용(41.3%) 역시 의지대로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치와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및 '규율이 우선'이라는 문항에 각각 3.1%, 8.2% 만이 반대로 응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율이 코치와 감독에 의해 정해진다고 할 때 이는 대학 운동부 내에서 코치와 감독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모/ 복장 규제'와 '훈련 이외의 시간 활용'에 대해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학생이 각각 75.9%와 71.8%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자기표현이나 자유 시간조차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남성 문화 주류의 대학교 운동부에서는 남녀 차별적 사고관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여학생들은 차별적 경험을 하고 있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66.1%), 주변에서 운동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63.9%)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 학생선수들은 남자들보다 제한적인 운동선수 진로 상황(46.8%)에 놓여 있으며, 또한 이들은 '운동을 위해 여성스러움을 포기해야 하며(35.9%), 여자는 운동선수로서 적합하지 않다(30.8%)'는 통념과 운동부 내의 차별적 인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자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과 갈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은 운동선수의 몸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남학생의 23.4%가 몸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는 반면 여학생의 60.3%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평균 역시 여학생(3.59)과 남학생(2.63)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p=.000<.05$). 이렇게 볼 때, 대학교 운동부에는 남성 중심적 사고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학생들은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3. 학업과 진로

이 장에서는 대학교 학생선수의 학업실태 및 진로 준비의 현실과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실태를 학생선수 인권의 한 요소를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습권'의 개념, 즉 "학생선수들이 학생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 한다.[2] 이를 위해 대학교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학업 및 수업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준비 및 인식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일차적으로는 운동선수의 인권실태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인 학습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이와 연관해서 이들이 취업과 사회적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을 고려해 진로에 대한 인식과 준비 실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업 및 수업참여 실태

(1) 수업불참의 일상화

조사대상자인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한 학기 수업 참여 정도는 30-50% 미만(21.9%)이 가장 높았지만, 그 외의 참여 정도와 유사하며, 가장 극단인 30%미만(19.6%)과 90%이상(17.4%) 출석한 학생의 비율도 비슷하다. 이를 볼 때, 전반적으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수업 참가 정도는 개인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41.5%의 학생의 지난 학기 출석이 50% 미만인 점을 보아, 전체적으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수업 출석 정도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

2)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은 학습권에 대한 개념규정을 통해 "학생선수는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교육을 통해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이루어 가야한다. 따라서 학생선수는 일체의 교육환경과 기회로부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타고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하고 있다(2010.11. 국가인권위원회).

<표 23> 수업 출석 정도

단위: 명(%)

	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 이상	전체
여학생	19 (14.0)	31 (22.8)	23 (16.9)	28 (20.6)	35 (25.7)	136 (100.0)
남학생	107 (21.1)	110 (21.7)	109 (21.5)	104 (20.5)	77 (15.2)	507 (100.0)
전체	126 (19.6)	141 (21.9)	132 (20.5)	132 (20.5)	112 (17.4)	643 (100.0)

성별로 지난 학기 수업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출석률이 높았으며, 이는 <표 19>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 진학 후 여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되며, 다른 한편으로 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남학생들보다 크기 때문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면담 결과, 수업불참은 실태조사보다 훨씬 심각한 정도로 체감되었다. 학생선수들은 흔히 '한 학기에 수업을 3-4주 받는다.'거나 '간혹 오전만 듣는다.'고 이야기 한다. 즉 형식적으로 시합이 없어서 '들어갈 수 있을 때 만' 참여하거나 가끔 오전 수업만 듣고, '학기 초 에 교수님 얼굴이나 보고 오는' 정도이며, 시험도 제대로 안보는 것이 관례로 받아들여진다.

<수업은 3~4주?>
그냥 시합이 끝나고 수업을 한 3주 4주 이렇게 받는 거 같아요. 오전수업만 3~4주? 한 달? 이게 땡. 시험은 안 봐요. 한 번도 본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OOO(시합이)가 이번에 좀 앞당겨져서 2월에 있었어요. 2월에 하니까 O별(시합)이 6월이잖아요. 그 공백이 크니까 그 한 달은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고 O별 끝나고 바로 온 거에요. 한 달인가 그래서 수업도 못 듣고 그 연맹 끝나고 나니까 또 체전준비 때문에 또 수업 못 듣고. (채농구, 여)

<수업은 잠깐 듣고>
(2학기는 거의 못 듣고) 1학기 때 잠깐 듣고 쭉 안 듣고 체전 끝나고 잠깐 듣고 그러고 이제 동계 들어가야죠. (채농구, 여)

<수업은 세 달에 일주일 정도>

오전수업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세 달에 한 일주일 정도. 나머지는 그냥 선수생활 그런 패턴으로 훈련하고.. 학교 친구들 이랑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있지만은 운동했던 친구들 말고 거의 없어요. (박축구, 여)

<교수님 얼굴이나 보고와>

학기 초에 코치, 감독이 교수님들 얼굴이나 한 번씩 보라고 수업을 1~2주 들어가게 해줘요. 오후엔 운동 시켜야 하니까 오전 강의만 듣고 오라고 했었죠.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김농구, 남)

학생선수들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수업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수업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학업과 관련된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들은 '수강신청'과 같은 학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학사업무 조차 혼자서는 잘 수행하지 못하고, 학점관리도 조교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학생으로서 학생선수들은 스스로 무기력하거나 비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수강신청? 학점관리? 다 해줘요>

수강신청이요? 그건 조교들이 다 해줘요. 학점관리도 다 해줘요. 그 기본 제일 낮은 점수. (채농구, 여)

<수강신청>

동기들이 수강신청을 다 해줬어요. 한번 혼자서 수강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잘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말해서 다시하고 그랬어요. (김농구, 남)

(2) 제도적 묵인과 방임

학기 중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물음에 대해 89%의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훈련이나 시합과 겹쳐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15>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학 운동부는 일 년에 2~4 개 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기간 정도를 고려해 볼 때 훈련이나 시합과 겹쳐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시합'보다 '훈련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쳐서 수

업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훈련 때문에 피곤해서'(60.3%)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훈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훈련이나 시합 이외의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응답의 32.8%(209명)가 시합과 훈련 이외에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오니까'(7.7%), '운동부 분위기 상 수업에 안 들어가서'(6.4%),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5.6%), '수업이 낯설고 어색해서'(3.8%) 등과 같은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24> 학기 중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훈련이나 시합과 겹쳐서	123 (92.5)	445 (88.1)	568 (89.0)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오니까	8 (6.0)	41 (8.1)	49 (7.7)
운동부 분위기 상 수업에 안 들어가서	10 (7.5)	31 (6.1)	41 (6.4)
훈련 때문에 피곤해서	73 (54.9)	312 (61.8)	385 (60.3)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7 (5.3)	29 (5.7)	36 (5.6)
수업이 낯설고 어색해서	6 (4.5)	18 (3.6)	24 (3.8)
기타	19 (14.3)	48 (9.5)	67 (10.5)
전체	133 (100.0)	505 (100.0)	638 (100.0)

* 복수응답 허용

면담 결과,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차적으로는 운동이 우선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혹은 몸 컨디션 조절을 위해, 휴식시간이 필요해서 수업에 참여하거나 학업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부하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음은 굴뚝같은데 내가 운동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운동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니까. 잠자야지 컨디션이 좋아야 운동도 잘하는데 공부를 하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지금은 운동부터 신경 쓰자 하는 마음이 들죠. (김숏트, 여)

그러나 좀 더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공부를 하는 습관이나 능력을 체화할 수 없었던 성장과정, 학업참여를 독려하지 않는 지도자,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교수와 대학교 학사행정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제도적 묵인과 방임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때까지 자율적인 공부습관이나 능력을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대학교에서의 수업은 마찬가지로 어색하고, 지루하고, 잘 따라갈 수 없는 낯선 영역으로 다가온다. '강의실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다른 친구들의 눈빛 때문에 망설이고, 수업 내내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다가 다시 문을 나오면서 친구들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다음의 사례는 운동선수들에게 수업참여가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강의실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운동선수 애들은 수업을 못 들어가잖아요. 중, 고등학교 때도 수업 못 들어갔는데, 대학교 수업 듣는다고 그걸 어떻게 따라 가겠어요. 그리고 대학 강의도 거의 안 들어가는데요. 아무리 들어가라고 코치님이 얘기하고 감독님이 검사하고 그래도, 강의실 앞에서 고민하는 거에요. 그 문을 열 수 없거든요. 열면 애들이 '재 누구야?' 하는 눈으로 보고, 수업 시간 내내 멍하니 있거나 잠이나 자고 나오고요. 나올 때도 그런 눈빛을 견뎌야 하잖아요. (김농구, 남)

수업을 들어가도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은 수업내용에 집중하지 못한다. 엎드려 자거나 그냥 앉아 있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태도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안 해서 기초가 없다'는 자괴감과 무력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더구나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선배들 중에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 모델을 찾기도 어렵다.

<들어가도 잘 모르니까>
수업, 보통 잘 안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했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들어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앉아 있다가 낙서하거나 게임하거나 하면서 있다가 나오고요. 시합 같은 거 나가면 공문 나오니까 그거 제출하고요. (김태권, 남)

<수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처음 배우는 건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그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나는 아는 것 없다고. 못해. 해보지도 않았는데 못한다고 해요. (성유도A, 여)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운동이나 해야죠>
솔직히 그렇게 공부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잘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운동만 했으니까요. 선배들 중에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선배들 중에 공부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운동 계속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운동이나 해야 겠다는 생각만 들죠. ...(중략)... 못하는 거죠. (정야구, 남)

더구나 어린 시절부터 수동적으로 시키는 데로만 훈련 해 와서 타율성이 몸이 밴 이들에게 '운동이외의' 낯선 환경이나 어려움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삶>
훈련도 자기 의지와 약간 자기가 주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자나.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오전 운동하고 수업 들어갔다가 이때 운동하는 거야. 시키는 운동하고 아까 말했듯이 운동부 문화도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주도적이지 못한 어떤 훈련환경들이 많으니까.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본 적 없는 경험이 많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박육상, 여)

또한 이들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 지도자들은 학생선수들에게 공부나 성실한 수업참여를 독려하기 보다는 운동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수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을 제공한다. 실제로 수업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차적으로 지도자의 훈련 일정관리 혹

은 '운동해야 되니까 들어가지마'라는 지시에 달려있다. 게다가 '한명의 열외도 상상할 수 없고 어기면 퇴학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지도자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무조건 단체로! 선생님 말이 법이에요>
농구부 단체로, 단체로 움직여야 되요. 개인행동 못해요 선생님이 보내주면 수업 들어가고 그때 딱 들어가야 되고, 이제 운동해야 되니까 들어가지마 그러면 다 전체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한명이라고 거기 열외 되는 절대 없고 생각도, 상상도 못하고. 무조건 단체로. (선생님 말이 법이네요?) 그렇죠. 어기면 죽어요. 또 퇴학시킨다고 할지도 몰라요. (채농구, 여)

대학의 일반 수업이나 교양 등을 담당하는 교수들 역시 학생선수의 수업불참이나 불성실한 수업참여 대해서는 방임하거나 묵인해 주는 게 거의 관례화되어 있다. 지도자가 '시합 후에 수업 오겠다.'고 인사하고 오라고 시키면 다른 교수들은 '수긍'하거나 기껏해야 '공문'을 요구하는 정도이다.

<시합 때문에>
시합 준비하느라 수업을 못 들으니까 시합이 끝난 후에는 듣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와요. 그것도 선생님이 시켜요 그렇게 하고 나오라고. 그러면은 교수님들도 그냥 수긍을 해요. 근데 꼭 그중에 한분은 아니다 나와라 이러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는 공문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라고 신경 안 쓰고. 시합이 있으면 아예 (수업을)안 들어요. (채농구, 여)

즉 수업에 들어가서 잘 못 알아들어서 집중을 못하거나 습관처럼 자게 되는 경우 담당교수들이 모르는 척 내버려두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심지어 무시하듯 쳐다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의 태도와 대우는 교수들의 입장에서 학생선수들을 배려하는 것일 수 있지만, 결국 학생선수들의 방임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교수님들은 그냥 내버려 두죠>
운동하는 애들이... 제 생각에 가장 잘못된 점이 운동을 해서 피곤하다는 핑계가 첫 번째예

요. 두 번째가 들어봐도 난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가 가장 크죠. 그 두 가지가 가장 클 거예요. 수업에 들어와도 초 중 고등학교부터 운동부라 그러면 자건 만화책을 보건 떠들지만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었으니까 선생님 말을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좀 들으면 그냥 눈이 감겨요. 진짜 습관처럼요. ...(중략)... 대학 수업에서도 교수님들은 그냥 내비두는 거에요. 중·고등학교 랑 똑같아요. 자건, 만화책을 보건, 수업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내비 두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무시하는 듯이 쳐다보는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들어가기 싫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정야구, 남)

더 나아가 학교와 교수들은 '협조 전 발송', '리포트 대체', '특기생 우대', '편법시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들어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협조와 지지는 학생들이 운동 때문에 손실을 본 수업이나 학업을 보충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지원이 아니라 묵인과 방임의 형태로 결과적으로 '운동선수들을 바보로 만드는'데 일조한다. 특히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일부 대학의 학칙은 선수들의 수업 참여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기생이니까>
근데 특기생들은 출석부에 특기생으라고 별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애도 많이 받고, 전공은 특기생들 끼리 같이 듣고 교양은 일반학생들이랑 같이 들어요. (김태권, 남)

<시합 협조>
시합 전에 협조전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봐달라고 해요. 그래서 안가는 경우도 많고요. 시험은 못 볼 때도 있어요. 수업을 잘 안 들어가서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편지를 쓴다거나 뭐 아니면 교수님께서 리포트를 내 주시면 하겠다고. 시합 잘 하면 해줄게. 이러시고 다 잘해주세요. (김숏트, 여)

<저 농구부에요>
시험 볼 때 잠깐 가서 저희 농구부라고 사정을 말씀 드리면 교수님께서 그냥 시험지에다가 너희들이 운동하면서 겪은 내용 같은걸 쓰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가 운동선수를 바보로 만들죠. 운동선수는 운동을 그만두면 바보가 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노력을 할 순 있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김농구, 남)

(3) 개인적 노력과 변화

수업불참의 일상화와 제도적인 묵인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대학교 공부는 조금 다르니까... 노력해 보는 거죠>
난 초중고 때 공부를 안했으니까 대학교 공부는 하면 내가 알겠냐? 이게 되게 강해요. 모든 운동부가 다. 만화책 말고 글자가 있다고 하면 애들이 다 식겁을 하는 거죠. 난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대학교 공부는... 초·중·고등학교 때는 모르겠지만, 뭐 계산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을 읽고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 공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계산을 잘 못하고, 책이라는 건 대부분 만화책이고 인터넷에서 야구 관련한 글 읽는게 대부분이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노력하죠. (정야구, 남)

<더 열심히 했죠>
어차피 대학 공부는 자기 공부니까. 진도 못 맞춰 나간 것 있으면 교수님께 자료 요청하고, 친구들 것 빌려 보고. 오히려 다른 애들(일반학생)보다 열심히 했죠. (박육상, 여)

야구선수인 위의 사례가 이야기 하듯, '대학 수업은 수학이나 영어처럼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면 어느 정도 따라가거나, 개인적 노력에 따라 일반 학생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몇 개인들의 성실한 수업참여와 노력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변화의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과 공동체 문화, 주변의 지지가 없는 환경에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변화를 이루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대학운동선수 자신들이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집중해서 노력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일 수 있으나, 공부에 대한 인식들이 당연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점이나 수업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운동부 내의 문화나 지도자의 규제, 또는 배려라는 명목으로 관례화된 교수와 학교의 '배려'나 방임, 제도적 묵인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2) 진로준비 실태

(1) 진로희망과 준비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진로는 남녀모두 실업팀이나 프로팀으로 취업해서 운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49.3%와 남학생의 73%가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입단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5> 성별 · 종목별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단위: 명(%)

		실업팀 프로팀	운동과 관련 없는 업종취업	대학원 진학	지도자 수업	사회체육 지도자	기타	전체
여학생	개인종목	12 (35.3)	9 (26.5)	2 (5.9)	6 (17.6)	2 (5.9)	3 (8.8)	34 (100.0)
	대인종목	40 (65.9)	4 (2.3)	9 (13.6)	7 (9.1)	6 (9.1)	1 (1.5)	65 (100.0)
	단체종목	15 (40.5)	4 (10.8)	6 (16.2)	5 (13.5)	7 (18.9)	–	37 (100.0)
	전체	67 (49.3)	15 (11.0)	17 (12.5)	18 (13.2)	15 (11.0)	4 (2.9)	136 (100.0)
남학생	개인종목	68 (66.7)	6 (5.9)	6 (5.9)	5 (4.9)	7 (6.9)	10 (9.8)	102 (100.0)
	대인종목	67 (67.0)	7 (7.0)	13 (11.0)	6 (6.0)	6 (6.0)	3 (3.0)	102 (100.0)
	단체종목	235 (77.6)	11 (3.6)	21 (6.9)	12 (4.0)	14 (4.6)	10 (3.3)	303 (100.0)
	전체	370 (73.0)	24 (4.7)	40 (7.9)	23 (4.5)	27 (5.3)	23 (4.5)	507 (100.0)

또한 졸업 후 진로 희망은 성별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실업팀이나 프로팀 입단을 희망하는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상당히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대인종목(65.9%)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단체종목(77.6%)에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와 연결된 프로 및 실업팀의 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데, 남학생의 경우 인기종목인 농구, 축구, 야구, 배구 등 단체종목 등에 실업팀과 프로팀이 상당수가 있어 운동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의 경우 단체종목 팀 상당수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선수를 수급하는 구조이며, 남자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인종목 팀이 많은 관계로 해당 종목 선수들이 실업이나 프로팀에 입단을 희망하는 경우가 다른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느냐는 물음에 여학생 49.3%와 남학생 51.5%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해 상당수의 학생이 진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 13.3%와 남학생 19.7%는 '그렇지 않다' 이상으로 응답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나는 내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여학생	개인종목	1 (2.9)	12 (35.3)	16 (47.1)	4 (11.8)	1 (2.9)	34 (100.0)
	대인종목	4 (6.2)	34 (52.3)	19 (29.2)	8 (12.3)	-	65 (100.0)
	단체종목	1 (2.7)	15 (40.5)	16 (43.2)	4 (10.8)	1 (2.7)	37 (100.0)
	전체	6 (4.4)	61 (44.9)	51 (37.5)	16 (11.8)	2 (1.5)	136 (100.0)
남학생	개인종목	22 (21.6)	37 (36.3)	37 (36.3)	6 (5.9)	-	102 (100.0)
	대인종목	12 (11.8)	42 (41.2)	37 (36.3)	9 (8.8)	2 (1.9)	102 (100.0)
	단체종목	82 (27.1)	66 (21.8)	72 (23.8)	54 (17.8)	29 (9.6)	303 (100.0)
	전체	116 (22.9)	145 (28.6)	146 (28.8)	69 (13.6)	31 (6.1)	507 (100.0)

진로 준비에 대한 성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여학생 평균이 3.39, 남학생 평균이 3.77로 나타나 여학생의 진로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 진로는 운동 이외의 다른 진로라기보다 운동과 관련된 직업 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여학생의 적극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여성 선수의 진로가 더 제한적이어서 대안이 별로 없는 현실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7> 진로 준비에 관한 성별 평균 비교

		N	Mean	t	Sig. (2-tailed)	Mean Difference
나는 내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여학생	136	3.39	-4.641	.000	-.378
	남학생	507	3.77			

* 평균이 높을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응답을 역부호화하였음.

코치와 감독이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질문에 여학생 42.7%와 남학생 49.7%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코치와 감독이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 7.4%, 남학생 12.8%로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코치와 감독은 나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여학생	개인종목	1 (2.9)	9 (26.5)	13 (38.2)	5 (14.7)	6 (17.6)	34 (100.0)
	대인종목	7 (10.8)	28 (43.1)	18 (27.7)	11 (16.9)	1 (1.5)	65 (100.0)

	단체종목	2 (5.4)	11 (29.7)	16 (43.2)	8 (21.6)	–	37 (100.0)
	전체	10 (7.4)	48 (35.3)	47 (34.6)	24 (17.6)	7 (5.1)	136 (100.0)
남학생	개인종목	10 (9.8)	37 (36.3)	32 (31.4)	21 (20.6)	2 (2.0)	102 (100.0)
	대인종목	10 (9.8)	40 (39.2)	35 (34.3)	17 (16.7)	–	102 (100.0)
	단체종목	45 (14.9)	110 (36.3)	93 (30.7)	42 (13.9)	13 (4.3)	303 (100.0)
	전체	65 (12.8)	187 (36.9)	160 (31.6)	80 (15.8)	15 (3.0)	507 (100.0)

한편 진로 인식과 관련된 종목별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안이 있을 경우 운동의 지속 여부는 경기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코치와 감독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기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p=.064>.05$), '나는 내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단체종목의 평균이 대인종목의 평균보다 0.2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에는 대인종목의 평균이 단체종목의 평균보다 0.27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진로에 대한 인식의 종목별 평균 비교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for Mean	
						Lower Bound	Upper Bound
나는 내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개인 종목	136	3.61	.879	.075	3.46	3.76
	대인 종목	167	3.56	.811	.063	3.44	3.69
	단체 종목	340	3.78	.860	.047	3.69	3.87
	전체	643	3.69	.856	.034	3.62	3.75

나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개인 종목	136	3.31	1.152	.099	3.11	3.50
	대인 종목	167	3.49	1.102	.085	3.32	3.66
	단체 종목	340	3.21	1.182	.064	3.09	3.34
	전체	643	3.31	1.159	.046	3.22	3.40
코치와 감독은 나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 종목	136	3.19	1.029	.088	3.02	3.37
	대인 종목	167	3.43	.908	.070	3.29	3.57
	단체 종목	340	3.41	1.022	.055	3.30	3.52
	전체	643	3.37	.998	.039	3.29	3.45

* 평균이 높을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응답을 역부호화하였음.

(2) 제한된 진로, 불안한 미래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절반정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 여건상 이들은 운동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자체가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나마 운동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드러난다.

<표 30> '나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여학생	개인종목	6 (17.6)	13 (38.2)	8 (23.5)	7 (20.6)	-	34 (100.0)
	대인종목	14 (21.5)	26 (40.0)	15 (23.1)	6 (9.2)	4 (6.2)	65 (100.0)
	단체종목	9 (24.3)	14 (37.8)	8 (21.6)	5 (13.5)	1 (2.7)	37 (100.0)
	전체	29 (21.3)	53 (39.0)	31 (22.8)	18 (13.2)	5 (3.7)	136 (100.0)

남학생	개인종목	18 (17.6)	27 (26.5)	23 (22.5)	29 (28.4)	5 (4.9)	102 (100.0)
	대인종목	18 (17.6)	31 (30.4)	33 (32.4)	15 (14.7)	5 (4.9)	102 (100.0)
	단체종목	44 (14.5)	82 (27.1)	80 (26.4)	72 (23.8)	25 (8.3)	303 (100.0)
	전체	80 (15.8)	140 (27.6)	136 (26.8)	116 (22.9)	35 (6.9)	507 (100.0)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물음에 여학생 60.3%, 남학생 43.4%가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의 응답 즉 확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여학생 83.1%와 남학생 70.2%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표. 25>에서 실업팀이나 프로팀과 같은 운동선수 직업을 염두에 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직업 선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짧고, '실업팀으로 가거나 메달을 따도' 선수 은퇴 후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로나 기회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확신은 더욱 어렵다.

<선수생명의 한계>

수영은 보통 20살 넘으면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연령층이 높아져서 24-6살 정도 되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스물여섯 정도에 운동하는 사람은 좋은 시선으로는 솔직히 안 봐요. 저 나이 먹었으면 나가 줄 때도 되었는데 너무 그렇게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박수영, 여)

<그만두면 할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로 때문에. 솔직히 대학교 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메달을 많이 따도 실업팀가서도 26, 많으면 30살까지 선수를 하다가 남자 같은 경우는 그만두면은 할 게 없습니다. 프로도 없고 뭐 한다고 해도 코치하고 싶어도 다 계약직이니까 자리가 없고, 관장 같은 거는 학과 애들이 다 하죠. 걔들이 더 잘하죠. 사범생활도 더 많이 했으니까. 저희 친형이 사범을 하고 있는데 학과 생들하고 선수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자체가 달라요. 선수하는 사람

들은 자기가 운동했다는 프라이드가 강해서 일반학과 학생들을 많이 무시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태권, 남)

<할 수 있는 게 코치밖에 없는데...>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코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치는 다 스승님들이 다 계시니까. 트레이너 하다가 코치님들이 자리 알아봐주고 하는데 그것도 코치님들이 좋아하는 제자들만 데리고 하죠. 아꼈던 제자들. (김태권, 남)

이런 상황에서 여학생들은 특히 남성보다 진로가 더 제한적이어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더욱 어렵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여학생의 응답이 남학생보다 크게 높은 것은 실업과 프로팀 모두 여자팀이 남자팀에 비해 상당히 적은데서 오는 불안감이라 할 수 있다. 진로 확신에 관한 성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은 평균 3.61이었으며, 남학생은 3.22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05). 즉 여학생들이 운동을 더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로 확신 역시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31> 진로 확신에 관한 성별 평균 비교

		N	Mean	t	Sig. (2-tailed)	Mean Difference
나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여학생	136	3.61	3.473	.001	.385
	남학생	507	3.22			

* 평균이 높을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응답을 역부호화하였음.

다음의 '대학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 역시 진로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인식을 묻기 위해서였다. 대학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학생(58.5%)과 남학생(64.7%) 모두 '운동 관련 전문 직업을 얻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다음 이유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운동 이외에 대안이 없어서'가 55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운동을 계속하는 두 번째 이유로 '운동이 좋아서'(44.8%)로 응답해 여학생과는 큰 차이

를 보였다.

<표 32> 대학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

단위: 명(%)

		개인종목	대인종목	단체종목	전체
여학생	운동관련 전문 직업을 얻기 위해서	19 (55.9)	37 (56.9)	23 (63.9)	79 (58.5)
	운동 이외에 대안이 없어서	10 (29.4)	25 (38.5)	20 (55.6)	55 (50.0)
	대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10 (29.4)	7 (10.8)	14 (38.9)	31 (23.0)
	부모님이 원해서	6 (17.6)	28 (43.1)	7 (19.4)	41 (30.4)
	운동이 좋아서	9 (26.5)	15 (23.1)	4 (11.1)	28 (20.7)
	기타	7 (20.6)	7 (10.8)	2 (5.6)	16 (11.9)
	전체	34 (100.0)	65 (100.0)	36 (100.0)	135 (100.0)
남학생	운동관련 전문 직업을 얻기 위해서	66 (64.7)	65 (63.7)	197 (65.0)	328 (64.7)
	운동 이외에 대안이 없어서	28 (27.5)	35 (35.0)	85 (28.1)	148 (29.2)
	대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22 (21.6)	18 (17.6)	90 (29.7)	130 (25.6)
	부모님이 원해서	12 (11.8)	17 (17.0)	44 (14.5)	73 (14.4)
	운동이 좋아서	50 (49.0)	45 (45.0)	132 (43.6)	227 (44.8)
	기타	12 (11.8)	6 (6.0)	13 (4.3)	31 (6.1)
	전체	102 (100.0)	102 (100.0)	303 (100.0)	507(100.0)

* 복수응답 허용

이러한 결과는 운동이나 진로에 대해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녀 학생모두 일단 운동을 선택한 이상 운동관련 직업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운동관련 직업을 얻기 위해 다음으로 '운동이 좋아서'라는 분명한 선호를 밝히고 있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운동을 좋아하거나 즐기기보다 운동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무력함을 드러낸다. 이들에게 운동은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분야이고 동시에 운동이외에는 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운동이나 학교를 그만 둔 친구들이 옷가게 알바나 네일아트, 커피숍 같은데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본 학습효과도 있다.

<운동 말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 말고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태껏 운동만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막하죠. 운동 말고 다른 걸 해본 게 있어야 내가 운동 말고 뭘 잘할 수 있는지도 알죠. (임유도C, 여)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단 한번도. 자신도 없었고 솔직히 무섭고 내가 이만큼 이걸 해 왔는데 또 다른 걸 하려면 또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된다는 생각에 차라리 하던 걸 하자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솔직히 그만두면 할 것도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채농구, 여)

<잘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 때부터 공부해서 딴 거 한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해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그냥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런데서 알바도 하고, 커피숍 같은 데서 알바도 하고 옷가게에서도 알바하고, 학교 안다니고 그냥 네일아트나 이런 거 기술 배워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친구도 봤어요. (박수영, 여)

<자포자기 심정>
사실 4학년 2학기 되니까 자포자기 심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살아왔는데 뭐. 졸업하고 갈 데 하나 없겠어.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이러다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건 아닌지 라는 고민도 하고. (박수영, 여)

이들의 개인적 자포자기와 무력감에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정체성과 인식이 존재한다. 남학생들과 달리 이들은 '여자가 설자리가 없는 운동계'에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남학생들에게 열려져 있는 '코치'나 '지도자'의 꿈 조차 갖기 어렵다. 소수의 여자지도자가 있지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여자지도자는 별로 존경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결국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여성 지도자의 역할모델 부재>
여자 코치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 코치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거의 다 제일 어린 선생님이 30,31 되니까. 저야 모 본업으로 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겸 하는 거라서 또 뭐 크게 뭐 그렇게는 안하는데 정말 운동계는 여자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코치 쪽으로도 그렇고요 학교 선생님은 또 다른데 뭐 그런, 전문직 쪽으로 가면 정말 많지 않아요. 인식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시집가면 끝. 이런 생각도 있고요 능력이 그만큼 아이들을 잡는 카리스마적인 부분도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운동할 때 여자선생님이 저를 가르쳤는데 저도 무시했거든요. 그런 부분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박수영, 여)

또한 우수한 선수 자원이 적은 여성선수들의 현실, 결혼이후에 운동을 계속하거나 지도자로 역할을 하는 롤(role) 모델의 부재 속에서 이들은 '선배들을 봐도 답이 없다'는 자포자기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혼도 있고..>
스물여섯 일곱 이면 솔직히 그렇게 일찍도 아니지만 결혼도 있고, 나이 서른 이렇게 돼서 운동 그만두고 났을 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들죠. 지금. 고민은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해 놓은 건 많이 없고. 선배들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박수영, 여)

<여자선수의 한계>
유도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 나가면 남자들이 훨씬 성적이 좋죠. 얼마 전 올림픽 때도 왕기춘이랑 최민호랑 남자들은 메달 잘 따는데 여자들은 노메달이잖아요. 여자들은 솔직히 한국에서 1등 해봤자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나가서 메달 따기도 힘든데... 결국 실업팀 가서 운동

하고 돈 버는 것 밖에 안 되죠. (임유도C, 여)

이상에서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장래 운동선수로서의 전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며 진로준비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된 진로를 앞에 두고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더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심리적 무력감과 자포자기는 상대적으로 더 제한적인 직업선수의 길, 그리고 여자 지도자의 롤 모델 부재 등 스포츠계의 불평등한 성별구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소결론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진로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 및 수업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수업 불참은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지난 학기 출석 정도가 50% 미만인 학생이 41.5%정도일 만큼 전체적으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수업 출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높은 수업 참여 정도는 30-50% 수업 참여(21.9%)였으나 그 외의 참여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가장 극단인 30%미만(19.6%)과 90%이상(17.4%) 출석한 학생의 비율마저 비슷한 것을 볼 때,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수업 참가 정도는 개인이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선수들의 수업 불참은 제도적으로 묵인되거나 방임되고 있다. 학기 중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물음에 대해 89%의 학생선수들이 '훈련이나 시합과 겹쳐서'라고 응답하였다. 연간 운동부의 대회 참가 횟수가 2-4회라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훈련이나 시합과 겹쳐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시합'보다는 '훈련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쳐서 수업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며, '훈련 때문에 피곤해서'(60.3%)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훈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오니까'(7.7%), '운동부 분위기 상 수업에 안 들어가서'(6.4%) 등과 같이 제도적 문제에 기인하는 이유들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는 제한적이며, 운동선수 진로를 제외한 진로 준비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여학생(49.3%)과 남학생(73.0%) 모두 실업팀이나 프로팀으로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고, 약 50% 정도의 학생들이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치와 감독의 진로 영향력에 대해서는 약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절반정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 여건상 이들은 운동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자체가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나마 운동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다. 이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질문을 통해 확인되는데, 여학생 60.3%, 남학생 43.4%가 '그렇다' 이상으로 답했으며, '보통이다'의 응답 즉 확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여학생 83.1%와 남학생 70.1%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운동선수 직업을 염두에 둔다는 측면에서 이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직업 선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폭력 실태

본 장에서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경험한 폭력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갖고 있는 폭력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살펴 본 후, 폭력을 당한 경험을 중심으로 폭력의 원인 및 피해 학생에게 초래된 심리·사회적 문제, 그리고 폭력에 대한 대처 방식을 조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학교 운동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의 유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1) 폭력의 개념 및 인식

본 연구에서 폭력은 2010년 한국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에서 제시한 스포츠 분야 폭력의 개념과 범주에 기준하여 분석한다.[3] 스포츠 분야의 폭력은 크게 신체적 피해로 가해

3) 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10)은 스포츠분야의 폭력에 대한 개념정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스포츠 분야 폭력의 예를 물리적 폭력과 언어 및 정서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신체적 피해로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 경기력 향상이나 정신력 강화를 이유로 행해지는 체벌 및 폭력행위
- 기량 및 노력부족, 훈련 태도와 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체벌 및 폭력행위
- 위계적인 규율과 통제 속에 행해지는 체벌 및 폭력 행위
- 경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행해지는 체벌 및 폭력행위
- 사전계획이나 합의 없이,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운동량 증가를 강요하는 행위
- 기량 및 노력 부족, 불량한 태도, 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일정 시간 집단으로부터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 지도자의 분노, 좌절, 또는 힘의 과시 등에서 비롯된 체벌 및 폭력 행위

▸ 언어 및 정서적 폭력
- 개인 또는 전체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어사용으로 인해 자존감을 해치는 행위
- 권한 및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진로선택 및 경기 참여를 제한하는 협박이나 강요 행위
- 불성실한 집단생활, 팀워크나 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일대일 뿐 아니라 다수의 대중 앞에서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 기량 및 노력 부족, 불량한 태도, 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계획이나 합의 없이 자유 시간, 귀가시간을 임의로 변경시키거나 조정하는 행위

지는 물리적 폭력과 언어 및 정서적 폭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스포츠 분야 폭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시간적·공간적·관계적 영역을 포함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및 유인 등의 행위로 신체적 피해를 야기 시키는 행위,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협박, 강요 및 따돌림 등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언어 및 정서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도자와 선수, 지도자와 학생 간 합의나 계획에 의하지 않고 선수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과도한 운동량과 운동시간을 강요하는 것, 자유 시간을 주지 않거나 박탈하는 것, 귀가 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 집단생활 중 불이익을 주는 것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폭력의 개념과 범주에 기초해, 실제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대학에서 운동부 생활을 하는 도중 겪게 되는 폭력의 경험과 그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 등을 살펴본다. 아래의 문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스포츠 분야의 폭력 개념과 범위를 기준으로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언어 및 정서적 폭력을 포함하는 스포츠에서의 대표적인 폭력 상황을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폭력 인지여부를 물은 결과이다.

<표 33> 성별에 따른 폭력 인지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벌로 경기 출전 제한	26 (19.1)	108 (21.3)	134 (20.8)
자유 시간, 외출, 외박 등의 제한	68 (50.0)	274 (54.0)	342 (53.2)
일정 시간 격리 혹은 훈련 제외	27 (19.9)	100 (19.7)	127 (19.8)
무리한 훈련 강요	72 (52.9)	248 (48.9)	320 (49.8)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85 (62.5)	304 (60.0)	389 (60.5)
기합	84 (61.8)	295 (58.2)	379 (58.9)

• 접촉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으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

구타	121 (89.0)	438 (86.4)	559 (86.9)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122 (89.7)	393 (77.5)	515 (80.1)
과도한 음주 강요	53 (39.0)	157 (31.0)	210 (32.7)
집단 따돌림	93 (68.4)	303 (59.8)	396 (61.6)
전체	136 (100.0)	502 (99.0)	638 (99.2)

* 복수응답 허용.

<표. 33>는 폭력 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폭력 상황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욕적 말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과 같은 정서와 관련된 폭력 유형에 대한 민감성은 여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 대부분(99.2%)은 설문에서 제시한 10가지 폭력 유형 가운데 한 가지 이상 폭력으로 인지한 반면, 단 한 가지도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은 학생도 5명(남학생)이 있었다.

위의 표를 보면 응답자들은 구타(86.9%)를 폭력으로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이 욕설(80.1%), 집단 따돌림(61.6%),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60.5%), 기합(58.9%) 등의 순이었다. 자유시간, 외출, 외박 통제(53.2%), 무리한 훈련 강요(49.8%) 등도 과반수 정도가 폭력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정도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아닌 자유 시간, 외출, 외박 등의 통제 및 제한과 무리한 훈련강요를 폭력이라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스포츠 영역에서 기존에 전형적인 폭력의 형태로 인식되어 온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뿐 아니라, 과도한 훈련의 강요나 일상생활의 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선수들 역시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비율을 보면, '무리한 훈련 강요'(49.8%)보다도 오히려 '자유 시간, 외출, 외박 등의 제한'(53.2%)을 폭력으로 인지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수년을 운동만 해온 학생들에게 무리한 훈련 강요는 어떤 면에서는 폭력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일상적 경험일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 제외(19.8%), 출전 제한(20.8%) 등을 폭력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비

교적 높지 않았다.

폭력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에 대한 질문지 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 과반수 혹은 그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서, 실제 면담과정에서는 폭력에 대한 수용적 인식이 더 높게 체감되었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폭력과 체벌에 대해 폭력은 '개인적 감정이 실린 행위'이고 체벌은 훈련이나 기록과 관련해 '정당하게 한두 대 맞는 것', '모욕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구분하고 있었다.

<체벌과 폭력의 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체벌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체벌과 폭력의 차이가 체벌은 감정이 실리면 안 되고 체벌을 하다 감정이 실렸을 경우에는 그게 폭력이라고 하더라구요. 얘가 기록이 안 나왔으니까 정당하게 한두 대 맞는다거나 하는 거는 체벌인데 때리다가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실어서 하거나 오늘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때리면 폭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박수영, 여)

<모욕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폭력은 필요>

맞는 사람은 알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 자기 개개인마다 좀 다른 건데 뭐랄까 그런 모욕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가 하여튼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라고 생각안할 정도의 때리는 건 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은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그 기준을 뭐 종아리 몇 대 어디 신체부위는 어디고 몇 대 라고 정의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사람한테 모욕감을 안겨주지 않을 정도의 폭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수영, 여)

즉 신체적인 폭력이라 하더라도 정서적 폭력이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운동이나 훈련을 위한 '정당한 체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 폭력을 훈련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거나, 운동부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맞음으로써 일정부분 깨우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하거나 '강압적'으로 해야 훈련이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력은 필요하다고 보는 인식이 나타난다.

<폭력의 효과>

저도 제가 운동을 할 때는 운동만 할 때는 못 느꼈던 건데 대학을 가고 애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서 느낀 것은 체벌이라는 게 어느 때는 저 선수가 조금 더 경기력 향상 하는데 뭐랄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인데... 사람이 말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폭력을 써서 라고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거가 뭐 맞았기 때문에 잘하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맞음으로써 일정 부분 깨우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생각을 해요 저도. (박수영, 여)

<체벌의 필요성>

너무 프리하게 하면요 아무리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운동부 생활에 대해 지켜야하는 것에 대한)인식이라도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운동선수 생활하는 것이 100이라면 강압적인 부분이 10프로 20프로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퀴시, 남)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생선수들이 어떤 행위가 폭력인지에 대한 민감성은 상당부분 높게 나타나지만, '운동이나 훈련과정에서 감정적 모욕감을 수반하지 않는 체벌이나 강압'과 같은 형태의 폭력은 훈련과정의 일부이거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폭력피해의 일반적 특성

(1) 유형별 폭력 경험율

실제 폭력 경험 실태를 살펴보면, <표. 34>에서 10가지 유형 중 단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643명의 응답자 중 89.7%인 577명이며, 여학생 125명(91.9%), 남학생 452명(89.2%)이 대학 운동부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의 유형별로 보면, 우선 '기합'이 전체의 74.5%(47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는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67.7%)',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67.0%)',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60.6%)', '자유 시간, 외출, 복귀시간, 외박 등의 제한(59.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폭력 경험 유무

단위: 명(%)

형태	여학생	남학생	전체
구타	31 (22.8)	264 (52.1)	295 (45.9)
기합	101 (74.3)	378 (74.6)	479 (74.5)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93 (68.4)	338 (66.7)	431 (67.0)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	96 (70.6)	339 (66.9)	435 (67.7)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	88 (64.7)	298 (58.8)	386 (60.6)
벌로 받은 경기 출전 불이익	9 (6.6)	40 (7.9)	49 (7.6)
벌로 받은 격리 또는 훈련 제외	16 (11.8)	45 (8.9)	61 (9.5)
자유시간, 외출, 복귀시간, 외박 등의 제한	90 (66.2)	291 (57.4)	381 (59.3)
과도한 음주강요	37 (27.2)	114 (22.5)	151 (23.5)
집단 따돌림	9 (6.6)	5 (1.0)	14 (2.2)
전체	125 (91.9)	452 (89.2)	577 (89.7)

* 폭력 경험이 없다('6=없다')고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즉 '1=거의 매일'부터 '5=1년에 1-2번'까지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수는 10가지 형태의 폭력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응답자 수.

‘구타(45.9%)’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보다 기합이 폭력의 유형으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인이 된 대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폭력보다는 기합 및 체벌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과도한 음주강요(23.4%,)151명은 다른 폭력의 형태보다 경험율은 낮게 나타나지만, 전체 응답자의 의 약 1/4이 경험을 한 폭력형태이며, 훈련장 밖의 사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자 통제방식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 밖에 ‘벌로 격리 혹은 훈련제외(9.5%), ‘벌로 받은 경기출전 불이익(7.6%)’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훈련과정에서의 격리나 제외, 출전불이익 등 직접적인 훈련과정 통제의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폭력의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구타의 경우는 여학생(22.8%)에 비해 남학생(52.1%)이 월등히 많았으며, 반면 다른 형태의 폭력은 남녀가 비슷하거나 여학생의 경험율이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여학생의 경우 구타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다른 유형의 폭력이 더 많이 활용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2) 폭력의 정도

아래의 <표. 35>에서 보면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생선수가 경험하는 폭력의 빈도는 1개월에 1-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타, 경기 출전 불이익, 격리 및 훈련 등의 경우 1년에 1-2회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폭력피해가 복수로 경험되는 실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학생이 1주일에 1-2번 이상 상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주일에 1-2회’와 ‘1주일에 3-4회’, ‘매일’을 합산해서, 즉 ‘최소한 1주일에 1-2회 이상’의 폭력비율을 보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이 가장 높아서 40.2%, 그 다음이 ‘체벌 등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31.6%)’, ’과도한 훈련(31.2%)‘, ’자유 시간 등 제한(22.5%)‘, ’기합(22.0%)‘, ‘구타(11.6%) 순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구타’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의 경우 여학생이 각각 3.6%, 30.1%, 남학생이 각각 13.9%, 43.0%로 남학생의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p<.05$), 여학생이 더 높은 경우는 ‘과도한 훈련’과 ‘자유 시간 등 제

한' 순으로 여학생이 35.3%, 25.7%이며 남학생이 각각 30.2%, 21.8%로 분석된다.

'과도한 음주강요'의 경우 1년에 1-2번이 가장 높아서 15.7%이며, 이는 남학생(16.0%)뿐 아니라 여학생(14.7%)도 유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응답자중 2.2%가 응답해서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이는 '집단따돌림'의 경우 숫자는 적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학생의 6.6%, 남학생의 1.0%가 경험을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35> 성별 · 유형별 폭력경험 횟수

단위: 명(%)

		거의 매일	1주일에 3-4번	1주일에 1-2번	1개월에 1-2번	1년에 1-2번	없다	전체
구타**	여학생	1 (0.7)	1 (0.7)	3 (2.2)	8 (5.9)	18 (13.2)	105 (77.2)	136 (100.0)
	남학생	7 (1.4)	17 (3.4)	46 (9.1)	89 (17.6)	105 (20.7)	243 (47.9)	507 (100.0)
	전체	8 (1.2)	18 (2.8)	49 (7.6)	97 (15.1)	123 (19.1)	348 (54.1)	643 (100.0)
기합	여학생	1 (0.7)	4 (2.9)	21 (15.4)	52 (38.2)	23 (16.9)	35 (25.7)	136 (100.0)
	남학생	7 (1.4)	31 (6.1)	78 (15.4)	165 (32.5)	97 (19.1)	129 (25.4)	507 (100.0)
	전체	8 (1.2)	35 (5.4)	99 (15.4)	217 (33.7)	120 (18.7)	164 (25.5)	643 (100.0)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여학생	12 (8.8)	9 (6.6)	20 (14.7)	34 (25.0)	18 (13.2)	43 (31.6)	136 (100.0)
	남학생	71 (14.0)	62 (12.2)	85 (16.8)	65 (12.8)	55 (10.8)	169 (33.3)	507 (100.0)
	전체	83 (12.9)	71 (11.0)	105 (16.3)	99 (15.4)	73 (11.4)	212 (33.0)	643 (100.0)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	여학생	5 (3.7)	11 (8.1)	23 (16.9)	40 (29.4)	17 (12.5)	40 (29.4)	136 (100.0)
	남학생	33 (6.5)	45 (8.9)	86 (17.0)	105 (20.7)	70 (13.8)	168 (33.1)	507 (100.0)
	전체	38 (5.9)	56 (8.7)	109 (17.0)	145 (22.6)	87 (13.5)	208 (32.3)	643 (100.0)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	여학생	12 (8.8)	13 (9.6)	23 (16.9)	22 (16.2)	18 (13.2)	48 (35.3)	136 (100.0)
	남학생	41 (8.1)	36 (7.1)	76 (15.0)	92 (18.1)	53 (10.5)	209 (41.2)	507 (100.0)
	전체	53 (8.2)	49 (7.6)	99 (15.4)	114 (17.7)	71 (11.0)	257 (40.0)	643 (100.0)
벌로 받은 경기 출전 불이익	여학생	1 (0.7)	–	1 (0.7)	2 (1.5)	5 (3.7)	127 (93.4)	136 (100.0)
	남학생	3 (0.6)	2 (0.4)	4 (0.8)	6 (1.2)	25 (4.9)	467 (92.1)	507 (100.0)
	전체	4 (0.6)	2 (0.3)	5 (0.8)	8 (1.2)	30 (4.7)	594 (92.4)	643 (100.0)
벌로 받은 격리 또는 훈련 제외	여학생	–	1 (0.7)	1 (0.7)	2 (1.5)	12 (8.8)	120 (88.2)	136 (100.0)
	남학생	–	3 (0.6)	3 (0.6)	11 (2.2)	28 (5.5)	462 (91.1)	507 (100.0)
	전체	–	4 (0.6)	4 (0.6)	13 (2.0)	40 (6.2)	582 (90.5)	643 (100.0)
자유시간, 외출, 복귀시간, 외박 등의 제한	여학생	18 (13.2)	3 (2.2)	14 (10.3)	27 (19.9)	28 (20.6)	46 (33.8)	136 (100.0)
	남학생	52 (10.3)	14 (2.8)	44 (8.7)	102 (20.1)	79 (15.6)	216 (42.6)	507 (100.0)
	전체	70 (10.9)	17 (2.6)	58 (9.0)	129 (20.1)	107 (16.6)	262 (40.7)	643 (100.0)
과도한 음주강요	여학생	1 (0.7)	–	2 (1.5)	14 (10.3)	20 (14.7)	99 (72.8)	136 (100.0)
	남학생	1 (0.2)	–	4 (0.8)	28 (5.5)	81 (16.0)	393 (77.5)	507 (100.0)
	전체	2 (0.3)	–	6 (0.9)	42 (6.5)	101 (15.7)	492 (76.5)	643 (100.0)
집단 따돌림**	여학생	1 (0.7)	–	–	2 (1.5)	6 (4.4)	127 (93.4)	136 (100.0)
	남학생	–	1 (0.2)	2 (0.4)	–	2 (0.4)	502 (99.0)	507 (100.0)
	전체	1 (0.2)	1 (0.2)	2 (0.3)	2 (0.3)	8 (1.2)	629 (97.8)	643 (100.0)

* p<.05 ** p<.01

학생선수 자신들은 이러한 폭력 경험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6>이나 <표 37>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반응은 중앙값 3(거의 비슷하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 진학 후 폭력 경험이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구타(20.2%, 130명)와 기합(37.5%, 241명), 그리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35.6%, 229명) 등과 같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물론,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심리적 공포감(39.0%, 251명),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훈련(33.6%, 216명)이 심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운동시간 이외의 개인적 시간(36.2%, 233명)을 더 많이 제한당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표 36> 성별 · 유형별 폭력경험 정도(고등학교와의 비교)

단위: 명(%)

		아주 심해졌다	약간 심해졌다	거의 비슷하다	약간 덜해졌다	아주 덜해졌다	무응답	전체
구타**	여학생	12 (8.8)	1 (0.7)	4 (2.9)	6 (4.4)	8 (5.9)	105 (77.2)	136 (100.0)
	남학생	58 (11.4)	59 (11.6)	57 (11.2)	38 (7.5)	58 (11.4)	237 (46.7)	507 (100.0)
	전체	70 (10.9)	60 (9.3)	61 (9.5)	44 (6.8)	66 (10.3)	342 (53.2)	643 (100.0)
기합	여학생	28 (20.6)	24 (17.6)	19 (14.0)	20 (14.7)	10 (7.4)	35 (25.7)	136 (100.0)
	남학생	103 (20.3)	86 (17.0)	68 (13.4)	60 (11.8)	62 (12.2)	128 (25.2)	507 (100.0)
	전체	131 (20.4)	110 (17.1)	87 (13.5)	80 (12.4)	72 (11.2)	163 (25.3)	643 (100.0)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여학생	21 (15.4)	25 (18.4)	13 (9.6)	14 (10.3)	18 (13.2)	45 (33.1)	136 (100.0)
	남학생	98 (19.3)	85 (16.8)	78 (15.4)	41 (8.1)	37 (7.3)	168 (33.1)	507 (100.0)
	전체	119 (18.5)	110 (17.1)	91 (14.2)	55 (8.6)	55 (8.6)	213 (33.1)	643 (100.0)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	여학생	28 (20.6)	31 (22.8)	12 (8.8)	16 (11.8)	9 (6.6)	40 (29.4)	136 (100.0)
	남학생	113 (22.3)	79 (15.6)	60 (11.8)	48 (9.5)	38 (7.5)	169 (33.3)	507 (100.0)
	전체	141 (21.9)	110 (17.1)	72 (11.2)	64 (10.0)	47 (7.3)	209 (32.5)	643 (100.0)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	여학생	20 (14.7)	21 (15.4)	23 (16.9)	16 (11.8)	8 (5.9)	48 (35.3)	136 (100.0)
	남학생	93 (18.3)	82 (16.2)	67 (13.2)	37 (7.3)	19 (3.7)	209 (41.2)	507 (100.0)
	전체	113 (17.6)	103 (16.0)	90 (14.0)	53 (8.2)	27 (4.2)	257 (40.0)	643 (100.0)
벌로 받은 경기 출전 불이익	여학생	3 (2.2)	1 (0.7)	2 (1.5)	2 (1.5)	2 (1.5)	126 (92.6)	136 (100.0)
	남학생	11 (2.2)	12 (2.4)	12 (2.4)	3 (0.6)	3 (0.6)	466 (91.9)	507 (100.0)
	전체	14 (2.2)	13 (2.0)	14 (2.2)	5 (0.8)	5 (0.8)	592 (92.1)	643 (100.0)
벌로 받은 격리 또는 훈련 제외	여학생	2 (1.5)	6 (4.4)	4 (2.9)	1 (0.7)	2 (1.5)	121 (88.9)	136 (100.0)
	남학생	9 (1.8)	13 (2.6)	8 (1.6)	3 (0.6)	13 (2.6)	461 (90.9)	507 (100.0)
	전체	11 (1.7)	19 (3.0)	12 (1.9)	4 (0.6)	15 (2.3)	582 (90.6)	643 (100.0)
자유시간, 외출, 복귀시간, 외박 등의 제한**	여학생	39 (28.7)	23 (16.9)	12 (8.8)	10 (7.4)	4 (2.9)	48 (35.3)	136 (100.0)
	남학생	98 (19.3)	73 (14.4)	64 (12.6)	18 (3.6)	38 (7.5)	216 (42.6)	507 (100.0)
	전체	137 (21.3)	96 (14.9)	76 (11.8)	28 (4.4)	42 (6.5)	264 (41.1)	643 (100.0)
과도한 음주 강요	여학생	18 (13.2)	11 (8.1)	2 (1.5)	3 (2.2)	2 (1.5)	100 (73.5)	136 (100.0)
	남학생	45 (8.9)	32 (6.3)	23 (4.5)	5 (1.0)	10 (2.0)	392 (77.3)	507 (100.0)
	전체	63 (9.8)	43 (6.7)	25 (3.9)	8 (1.2)	12 (1.9)	492 (76.5)	643 (100.0)

집단 따돌림**	여학생	3 (2.2)	2 (1.5)	2 (1.5)	1 (0.7)	1 (0.7)	127 (93.4)	136 (100.0)
	남학생	1 (0.2)	1 (0.2)	3 (0.6)	-	-	502 (99.0)	507 (100.0)
	전체	4 (0.6)	3 (0.5)	5 (0.8)	1 (0.2)	1 (0.2)	629 (97.8)	643 (100.0)

* p<.05 ** p<.01

<표 37> 고등학교와 비교한 폭력 정도의 성별 평균 비교

		N	Mean	t	Sig. (2-tailed)	Mean Difference
구타	여학생	31	3.0968	.060	.953	.01900
	남학생	270	3.0778			
기합	여학생	101	3.3960	.702	.483	.11108
	남학생	379	3.2850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여학생	91	3.1868	-1.793	.075	-.30286
	남학생	339	3.4897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	여학생	96	3.5521	.105	.916	.01658
	남학생	338	3.5355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	여학생	88	3.3295	-2.131	.034	-.31811
	남학생	298	3.6477			
벌로 받은 경기 출전 불이익	여학생	10	3.1000	-1.141	.260	-.50976
	남학생	41	3.6098			
벌로 받은 격리 또는 훈련 제외	여학생	15	3.3333	.669	.506	.28986
	남학생	46	3.0435			

자유시간, 외출, 복귀시간, 외박 등의 제한	여학생	88	3.9432	2.129	.034	.34181
	남학생	291	3.6014			
과도한 음주강요	여학생	36	4.1111	1.141	.256	.26763
	남학생	115	3.8435			
집단 따돌림	여학생	9	3.5556	-.072	.944	-.04444
	남학생	5	3.6000			

* 무응답을 제외하고 '1=아주 심해졌다'부터 '5=아주 덜해졌다'까지의 응답자들의 평균.

** 응답을 역부호화하여 점수가 클수록 고등학교 때보다 폭력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변경.

(3) 폭력 가해자의 특성

<표 38>는 폭력 행위자를 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것 이다. 동기들이 주 행위자인 집단 따돌림을 제외하고 가장 주요한 폭력 행위자는 감독과 코치, 선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38> 성별 · 유형별 폭력 행위자

단위: 명(%)

		코치	감독	선배	동기	기타	전체
구타	여학생	12 (38.7)	3 (9.7)	24 (77.4)	1 (3.2)	1 (3.2)	31 (100.0)
	남학생	71 (26.7)	26 (9.8)	223 (83.8)	1 (0.4)	1 (0.4)	266 (100.0)
	전체	83 (27.9)	29 (9.8)	247 (83.2)	2 (0.7)	2 (0.7)	297 (100.0)
기합	여학생	32 (31.7)	8 (7.9)	85 (84.2)	2 (2.0)	1 (1.0)	101 (100.0)
	남학생	76 (20.4)	34 (9.1)	332 (89.0)	-	2 (0.5)	373 (100.0)
	전체	108 (22.8)	42 (8.9)	417 (88.0)	2 (0.4)	3 (0.6)	474 (100.0)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여학생	49 (52.7)	14 (15.1)	57 (61.3)	3 (3.2)	2 (2.2)	93 (100.0)
	남학생	128 (37.9)	81 (24.0)	235 (69.5)	5 (1.5)	6 (1.8)	338 (100.0)
	전체	177 (41.1)	95 (22.0)	292 (67.7)	8 (1.9)	8 (1.9)	431 (100.0)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	여학생	37 (38.5)	8 (8.3)	76 (79.2)	–	1 (1.0)	96 (100.0)
	남학생	99 (29.3)	47 (13.9)	291 (86.1)	–	4 (1.2)	338 (100.0)
	전체	136 (31.3)	55 (12.7)	367 (84.6)	–	5 (1.2)	434 (100.0)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	여학생	65 (74.7)	27 (31.0)	9 (10.3)	–	5 (5.7)	87 (100.0)
	남학생	223 (76.4)	126 (43.2)	40 (13.7)	–	10 (3.4)	292 (100.0)
	전체	288 (76.0)	153 (40.4)	49 (12.9)	–	15 (4.0)	379 (100.0)
벌로 받은 경기 출전 불이익	여학생	7 (77.8)	3 (33.3)	1 (11.1)	–	–	9 (100.0)
	남학생	19 (50.0)	17 (44.7)	9 (23.7)	–	1 (2.6)	38 (100.0)
	전체	26 (55.3)	20 (42.6)	10 (21.3)	–	1 (2.1)	47 (100.0)
벌로 받은 격리 또는 훈련 제외	여학생	10 (62.5)	6 (37.5)	1 (6.3)	–	–	16 (100.0)
	남학생	34 (75.6)	16 (35.6)	6 (13.3)	–	2 (4.4)	45 (100.0)
	전체	44 (72.1)	22 (36.1)	7 (11.5)	–	2 (3.3)	61 (100.0)
자유시간, 외출, 복귀시간, 외박 등의 제한	여학생	53 (60.2)	28 (31.8)	36 (40.9)	–	9 (10.2)	88 (100.0)
	남학생	170 (61.2)	117 (42.1)	116 (41.7)	1 (0.4)	18 (6.5)	278 (100.0)
	전체	223 (60.9)	145 (39.6)	152 (41.5)	1 (0.3)	27 (7.4)	366 (100.0)
과도한 음주강요	여학생	11 (30.6)	17 (47.2)	19 (52.8)	1 (2.8)	2 (5.6)	36 (100.0)
	남학생	35 (31.0)	23 (20.4)	81 (71.7)	8 (7.1)	3 (2.7)	113 (100.0)
	전체	46 (30.9)	40 (26.8)	100 (67.1)	9 (6.0)	5 (3.4)	149 (100.0)

집단 따돌림	여학생	1 (12.5)	–	6 (75.0)	5 (62.5)	–	8 (100.0)
	남학생	–	1 (20.0)	–	3 (60.0)	1 (20.0)	5 (100.0)
	전체	1 (7.7)	1 (7.7)	6 (46.2)	8 (61.5)	1 (7.7)	13 (100.0)

* 복수응답 허용.

구타(83.2%, 247명), 기합(88.0%, 417명), 욕설(67.7%, 292명), 공포 조성(84.6%, 367명) 등은 주로 선배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코치와 감독이 다음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욕설'의 경우 주된 가해자는 선배이지만, 코치(41.1%)나 감독(22.0%)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훈련이나 운동시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준다.

'벌로 경기출전 불이익'이나 '훈련제외', '과도한 훈련', '외출제한'과 같이 직접적인 훈련이나 경기, 일상생활 규율과 관련해서는 코치가 첫 번째, 그리고 감독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폭력의 행위는 외견상으로는 선배가 폭력의 가장 주된 가해자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선배가 행하는 체벌이나 폭력, 통제는 코치나 감독의 대리자로서 '위임'된 폭력의 특성을 갖는다. 즉 지도자가 선배들에게 후배들의 규율을 잡으라고 직접 지시하거나, 특정한 선배에게 훈련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선배들은 코치를 대신해서 기합이나 체벌들을 행하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운동부에서 폭력은 권위와 권력을 가진 지도자나 선배에 의한 선수나 후배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애들 관리 똑바로 해! >

제가 잘못한 것 보다는 코치가 '재 좀 어떻게 좀 해'해서 혼나는 일이 많았어요. 코치가 보고 운동을 똑바로 안한다, 잘 못 한다거나 시키는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혼내는 일을 선배들에게 시켜서 혼나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형들한테 불만보다는 코치에게 불만이 많았죠. 선배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선배들도 저희들한테 미안해 하지만 코치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합을 줬죠. 코치가 기합 주라고 시키는 거랑 똑같죠. (김농구, 남)

(4) 폭력발생 장소

<표. 39>은 폭력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합숙소와 훈련장소로 나타났다. 특히 합숙소에서 대부분의 '구타(69.4%)'와 '기합(69.4%)'이 일어난다고 응답하였다. 즉, 운동시간 이외에 구타와 기합이 발생하는 것이다.

<표 39> 성별 · 유형별 폭력 장소

단위: 명(%)

		합숙소	경기장	훈련장소	라커룸	외부숙소	한적한 곳	기타	전체
구타	여학생	20 (64.5)	6 (19.4)	15 (48.4)	6 (19.4)	3 (9.7)	8 (25.8)	1 (3.2)	31 (100.0)
	남학생	186 (69.9)	36 (13.5)	91 (34.2)	48 (18.0)	40 (15.0)	72 (27.1)	8 (3.1)	266 (100.0)
	전체	206 (69.4)	42 (14.1)	106 (35.7)	54 (18.2)	43 (14.5)	80 (26.9)	9 (3.0)	297 (100.0)
기합	여학생	60 (60.0)	8 (8.0)	54 (54.0)	15 (15.0)	16 (16.0)	14 (14.0)	4 (4.0)	100 (100.0)
	남학생	269 (71.9)	27 (7.2)	110 (29.4)	34 (9.1)	49 (13.1)	70 (18.7)	21 (5.5)	374 (100.0)
	전체	329 (69.4)	35 (7.4)	164 (34.6)	49 (10.3)	65 (13.7)	84 (17.7)	25 (5.4)	474 (100.0)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여학생	42 (46.2)	27 (29.7)	62 (68.1)	8 (8.8)	12 (13.2)	9 (9.9)	14 (15.4)	91 (100.0)
	남학생	195 (58.7)	114 (34.3)	195 (58.7)	56 (16.9)	52 (15.7)	45 (13.6)	74 (22.2)	332 (100.0)
	전체	237 (56.0)	141 (33.3)	257 (60.8)	64 (15.1)	64 (15.1)	54 (12.8)	88 (20.8)	423 (100.0)

* 복수응답 허용.

반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등은 훈련장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언어적 폭력이 선배뿐 아니라 코치나 감독에 의해서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동과 훈련현장에서 직접적인 언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기장과 라커룸에서의 폭력 역시 운동경기나 훈련 등의 연장선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한적한 곳'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보다 비공식적이고 개별적인 폭력으로 추정되는

데, 구타와 기합의 경우 둘 다 합숙소와 훈련장소 다음으로 '한적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폭력 발생이유 및 폭력피해 영향

(1) 폭력 발생이유

<표. 40>은 개인이 인식하는 폭력발생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폭력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학생선수들은 '훈련 태도가 나쁘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69.8%), '경기력, 정신력, 팀워크 등의 향상을 위해서'(39.2%), '경기결과가 부진해서(21.5%)' 등을 주요요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이 경험한 폭력이 경기력 향상이나 정신력 강화 등 운동이나 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유 없이 자기 기분에 의해(37.0%)'와 '상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10.7%)와 같이 훈련과 상관없는 개인의 문제나 감정적 문제 때문이라는 인식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40> 폭력발생이유에 대한 개인의 인식(성별)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이유 없이 또는 자기 기분에 의해	53 (42.4)	154 (35.5)	207 (37.0)
상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15 (12.0)	45 (10.4)	60 (10.7)
선배나 친구들의 시기 때문에	7 (5.6)	14 (3.2)	21 (3.8)
경기력, 정신력, 팀워크 등의 향상을 위해서	54 (43.2)	165 (38.0)	219 (39.2)
훈련 태도가 나쁘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	87 (69.6)	303 (69.8)	390 (69.8)
경기 결과가 부진해서	20 (16.0)	100 (23.0)	120 (21.5)
기타	-	17 (3.9)	17 (3.0)
전체	125 (100.0)	434 (100.0)	559 (100.0)

* 복수응답 허용.

폭력발생이유를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인식과 차이가 없었으나, '이유 없이 또는 자기 기분에 의해'라는 응답은 1학년(42.0%), 2학년 (38.3%), 3학년 (35.0%), 4학년(24.5%)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저학년으로서 폭력의 희생자였던 선수가 고학년이 되면 '훈련 태도가 나쁘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 '경기 결과가 부진해서'라고 폭력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학년이 되어도 여전히 '경기력, 정신력, 팀워크 등의 향상을 위해서' 폭력 행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4학년(32.7%)은 다른 학년에 비해 그 비율이 낮았다.

<표 41> 폭력발생이유에 대한 개인의 인식(학년별)

단위: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이유 없이 또는 자기 기분에 의해	63 (42.0)	70 (38.3)	62 (35.0)	12 (24.5)	207 (37.0)
상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16 (10.7)	20 (10.9)	21 (11.9)	3 (6.1)	60 (10.7)
선배나 친구들의 시기 때문에	5 (3.3)	5 (2.7)	9 (5.1)	2 (4.1)	21 (3.8)
경기력, 정신력, 팀워크 등의 향상을 위해서	57 (38.0)	73 (39.9)	73 (41.2)	16 (32.7)	219 (39.2)
훈련 태도가 나쁘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	102 (68.0)	140 (76.5)	115 (65.0)	33 (67.3)	390 (69.8)
경기 결과가 부진해서	30 (20.0)	37 (20.2)	40 (22.6)	13 (26.5)	120 (21.5)
기타	3 (2.0)	3 (1.6)	8 (4.5)	3 (6.1)	17 (3.0)
전체	150 (100.0)	183 (100.0)	177 (100.0)	49 (100.0)	559 (100.0)

* 복수응답 허용.

경기형태별로 폭력발생이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인종목 및 단체종목과 개인 종목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인종목과 단체종목의 경우는 '훈련 태도가 나쁘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70.0%, 69.2%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력, 정신력, 팀워크 등의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47.3%, 39.3%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42> 폭력발생이유에 대한 개인의 인식(경기형태별)

단위: 명(%)

	개인 종목	대인 종목	단체 종목	전체
이유 없이 또는 자기 기분에 의해	54 (51.9)	47 (31.3)	106 (34.8)	207 (37.0)
상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16 (15.4)	13 (8.7)	31 (10.2)	60 (10.7)
선배나 친구들의 시기 때문에	6 (5.8)	2 (1.3)	13 (4.3)	21 (3.8)
경기력, 정신력, 팀워크 등의 향상을 위해서	28 (26.9)	71 (47.3)	120 (39.3)	219 (39.2)
훈련 태도가 나쁘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	74 (71.2)	105 (70.0)	211 (69.2)	390 (69.8)
경기 결과가 부진해서	12 (11.5)	31 (20.7)	77 (25.2)	120 (21.5)
기타	3 (2.9)	4 (2.7)	10 (3.3)	17 (3.0)
전체	104 (100.0)	150 (100.0)	305 (100.0)	559 (100.0)

* 복수응답 허용.

반면, 개인종목의 경우 '훈련 태도가 나쁘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은 것은 다른 종목과 유사하나, '이유 없이 또는 자기 기분에 의해'라고 응답한 학생이 51.9%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이는 종목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혼자 하게 되는 운동의 특성상 소수의 선수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개인종목의 경우 대부분 행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 절의 폭력의 개념과 인식에서 분석했듯이 학생선수들은 '훈련이나 운동'과 관련되어서 개인적 감정이나 모욕감이 수반되지 않은 체벌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하다 혹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훈련을 위한 체벌과 감정이 개입된 폭력의 경계는

모호하며 대부분 혼재된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의 사례는 코치가 '기록 때문에' 구타를 시작했지만 '때린 사람도 흥분을 하다 보니 도에 지나치게 맞게 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늘 잘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사람이 늘 같을 수가 없고 늘 잘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안 되는 날도 있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기록 때문에 거의 맞아요. 예를 들면 거짓말 안하거나, 늦게 나왔거나 무단결석 했다거나 하면 맞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기록 때문에 맞아요. 때리다 보니까 .. 때린 사람도 흥분을 하다 보니까 도에 지나치게 맞아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을 만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수영, 여)

운동부의 현장에서 훈련이나 경기력을 위한 체벌과 폭력의 경계는 항상 넘나드는 연속선 위에 놓여있다. 체벌의 이유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인식은 운동부에서의 체벌이나 기합, 혹은 학생에 대한 통제가 훈련이나 운동을 위해서 이며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일반적 통념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의 폭력경험들은 대부분 지도자나 선배들의 체벌이나 기합이 명목은 '운동을 위해서' 혹은 '규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2) 폭력 피해 영향

<표. 43>는 폭력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들은 폭력 때문에 운동을 그만 둘 정도로 힘들었고(55.5%, 310명),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의 심리적 어려움(49.9%, 279명)을 경험했으며, 그로인해 12.2%(68명)의 응답자는 꽤 오랫동안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폭력경험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18.2%(102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폭력경험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성별)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 (16.1)	113 (26.0)	133 (23.8)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	75 (60.5)	204 (46.9)	279 (49.9)
꽤 오랫동안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을 경험했다.	22 (17.7)	46 (10.6)	68 (12.2)
신체적 상해를 경험했다.	9 (7.3)	48 (11.0)	57 (10.2)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	73 (58.9)	237 (54.5)	310 (55.5)
합숙소나 팀을 이탈할 정도로 힘들었다.	35 (28.2)	153 (35.2)	188 (33.6)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 (15.3)	83 (19.1)	102 (18.2)
기타	12 (9.7)	23 (5.3)	35 (6.3)
전체	124 (100.0)	435 (100.0)	559 (100.0)

* 복수응답 허용.

폭력경험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개인적인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는 인식(60.5%)이 가장 높았던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경우가 54.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불안, 우울, 불면, 자살충동과 운동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남학생보다 많이 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상해 경험, 합숙소나 팀 이탈, 운동이나 일상생활 지속 불가 등의 경험을 여학생들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26.0%, 여학생의 16.1%가 폭력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폭력에 대한 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폭력이 미친 영향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55.1%)이 모욕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고,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3, 4학년에 비해 폭력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고 싶거나(1학년 60.9% 92명, 2학년 57.6% 106명), 합숙소나 팀을 이탈할 정도로 힘들어 했다(1학년 37.1% 56명, 2학년 37.5% 69명). 또한 꽤 오랫동안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과 같은 심리적 문제(1학년 13.2% 20명, 2학년 15.2% 28명)를 더 경험 했다.

<표 44> 폭력경험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학년별)

단위: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33 (21.9)	45 (24.5)	42 (24.0)	13 (26.5)	133 (23.8)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	74 (49.0)	91 (49.5)	87 (49.7)	27 (55.1)	279 (49.9)
꽤 오랫동안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을 경험했다.	20 (13.2)	28 (15.2)	17 (9.7)	3 (6.1)	68 (12.2)
신체적 상해를 경험했다.	12 (7.9)	19 (10.3)	18 (10.3)	8 (16.3)	57 (10.2)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	92 (60.9)	106 (57.6)	87 (49.7)	25 (51.0)	310 (55.5)
합숙소나 팀을 이탈할 정도로 힘들었다.	56 (37.1)	69 (37.5)	54 (30.9)	9 (18.4)	188 (33.6)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41 (27.2)	29 (15.8)	26 (14.9)	6 (12.2)	102 (18.2)
기타	3 (2.0)	11 (6.0)	19 (10.9)	2 (4.1)	35 (6.3)
전체	151 (100.0)	184 (100.0)	175 (100.0)	49 (100.0)	559 (100.0)

* 복수응답 허용.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볼 때, 1~2학년 때 이러했던 선수들이 4학년이 되어 폭력의 행위자가 되면서 다른 학년에 비해 신체적 상해를 경험했으나(16.3%) 합숙소나 팀을 이탈할 정도로 힘든 것은(18.4%) 아니고, 폭력을 당해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거나(26.5%) 불안, 우울 등(6.1%)은 적어지는 등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폭력에 대한 대처

(1) 폭력에 대한 대응

<표. 45>은 폭력 경험에 대한 개인의 대응을 나타낸 것이다. 폭력에 대한 대응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참았다'가 84.6%(477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는 소극적 저항(38.1%) 마저 '참았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표 45> 폭력경험에 대한 개인의 대응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참았다.	102 (81.6)	375 (85.4)	477 (84.6)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53 (42.4)	162 (36.9)	215 (38.1)
그만하라고 말했다.	3 (2.4)	34 (7.7)	37 (6.6)
합숙소나 팀을 이탈했다.	11 (8.8)	53 (12.1)	64 (11.3)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3 (18.4)	36 (8.2)	59 (10.5)
대한체육회 등의 스포츠 폭력 상담소 등에 상담을 요청했다.	-	4 (0.9)	4 (0.7)
법적으로 대응했다.	-	2 (0.5)	2 (0.4)
기타	11 (8.8)	17 (3.9)	28 (5.0)
전체	125 (100.0)	439 (100.0)	564 (100.0)

* 복수응답 허용.

보다 적극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는 '그만하라고 말했다'의 경우 남학생은 34명(7.7%)이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단지 3명(2.4%)만이 응답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여학생의 비율이 18.4%, 남학생이 8.2%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법적으로 대응하거나(남 0.5% 2명, 여 없음), 대한체육회 등의 스포츠 폭력 상담소와 같은 외부기관을 이용(남 0.9% 4명, 여 없음)하는 등 공식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며, 여학생의 경우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폭력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

<표. 46>은 개인이 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이 폭력을 참아 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46> 폭력경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성별)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대응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51 (40.8)	153 (35.3)	204 (36.5)
대응하면 더 맞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15 (12.0)	47 (10.8)	62 (11.1)
나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피해볼 것 같아서	7 (5.6)	13 (3.0)	20 (3.6)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56 (44.8)	165 (38.0)	221 (39.5)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89 (71.2)	302 (69.6)	391 (69.9)
운동부에서는 당연하니까	18 (14.4)	98 (22.6)	116 (20.8)
기타	-	17 (3.9)	17 (3.0)
전체	125 (100.0)	434 (100.0)	559 (100.0)

* 복수응답 허용.

응답자들이 폭력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69.9%, 391명)이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인식은 사실상 매우 복잡한 심리적 과정과 갈등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는 폭력을 경험해도 '내가 말 안하고 한번 참으면 조용히 넘어갈 일'인데 공연히 일을 더 확산하고 싶지 않다는 소극성을 내포한다.

<저는 말 안 해요>

말 안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분란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싫고. 그런데 한 번 일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말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 때도 말 안 해요. (성유도A, 여)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에 문제제기를 하고 대응을 해도 그것도 잠깐이지 다시 또..사람이다 보니까... 해결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임럭비, 남)

이러한 인식 뒤에는 폭력경험이 '훈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39.5%) 어쩔 수 없다는 폭력에 대한 수용과 '대응해봐야 소용이 없다(36.5%)', '운동부에서는 당연한 일이니까(20.8%)'라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다. 앞 절의 폭력유형 및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훈련의 과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리 부당하고 심각한 폭력이어도 대부분 넘어가거나 수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 한다.

심지어 집중력이나 정신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합이나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통용된다.

<집중력을 위해>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부가 아예 안 맞고 그런 게(기합, 체벌) 없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정신력이 나태해지는 거 같아요. 시합 때 집중을 못하는 상황도 많고 왜냐면은 종목 특성상,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집중을 안 하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원체 빠르게 날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한다는 게 연습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공에 퍽 맞거나 공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짓하다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다치면 팀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정야구, 남)

폭력의 행위자가 대부분 선배나 지도자라는 현실은 적절한 대응을 더 어렵게 할뿐 아니라 반항이나 대응했다가 '더 불리한 일을 당할 수 있다(11.1%)'는 생각을 갖게 한다. 면담참여자들은 자신을 항상 참아야하는 '약자'로서 표현 했고, 상대적으로 코치/감독, 선배를 강자로 표현했다. 이들은 자신이 '학생이기 때문에', '후배이기 때문에' 지도자나 선배의 폭력에 대응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

<내가 맞으면 끝인데...>

(반항)못하죠. 반항하면 선배들이 '쟤 무시해'라고 시켜서 왕따같이 되니까 못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니까 그게 좀 그랬어요. 내가 맞으면 끝인데. (김태권, 남)

<학생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1차적인 잘못은 내가 한 거고, 좀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것은 있지만 "왜 때려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물론 때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반항이나 대응하고 싶지만 하지는 못했죠. (박수영, 여)

<후배이기 때문에>

저는 운동할 때 까지만 해도 선후배 그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정야구, 남)

<표 47> 폭력경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학년별)

단위: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대응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63 (42.0)	68 (37.2)	62 (35.0)	11 (22.4)	204 (36.5)
대응하면 더 맞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17 (11.3)	20 (10.9)	21 (11.9)	4 (8.2)	62 (11.1)
나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피해볼 것 같아서	5 (3.3)	5 (2.7)	8 (4.5)	2 (4.1)	20 (3.6)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56 (37.3)	75 (41.0)	73 (41.2)	17 (34.7)	221 (39.5)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102 (68.0)	139 (76.0)	117 (66.1)	33 (67.3)	391 (69.9)
운동부에서는 당연하니까	29 (19.3)	37 (20.2)	37 (20.9)	13 (26.5)	116 (20.8)
기타	3 (2.0)	3 (1.6)	8 (4.5)	3 (6.1)	17 (3.0)
전체	150 (100.0)	183 (100.0)	177 (100.0)	49 (100.0)	559 (100.0)

* 복수응답 허용.

<표. 47>은 폭력경험에 개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학년별 인식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항목의 경우 '대응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라는 응답은 저학년일수록 높아서 1학년(42.0%)과 4학년(22.4%)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반면 '운동부에서는 당연하니까'라는 응답은 고학년일수록 높아서 1학년(19.3%), 4학년(26.5%)로 나타났다.

<3,4학년이 되니까 이해가 되요>

운동하는 애들 그런 게 있어요. 그 저도 저학년 때는 참 맞기 싫어가지고 왜 때리나 왜 때리나 했는데 3,4년 되고 보니까 1,2학년 때 못 본 게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운동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혼내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옛날 같이 확연히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죠 뭐. (정야구, 남)

<졸업하니까 이해가 되요>

맞는 거에 대해서는..당시에 같은 경우는 아 이런 것 갖다가 맞나?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 나가서 오히려 더 예의를 찾게 되고 행동을 막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막하는 행동은 안하게 되는데, 그게 당시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런 거 혼나면서 부터가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정야구, 남)

저학년 때에는 '대응해 봐야 소용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갖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운동부에서는 당연하니까'로 인식이 바뀌는 과정, 더 나아가 '맞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보니 예의도 생기고 막하는 행동도 안하게 되었다는'인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폭력의 수용성이 높아지거나 폭력문화를 체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대부분 폭력에 대해 '참는다'는 소극적 대응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일을 크게 확대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훈련의 일환이니까, 대응해봐야 소용없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등의 이유로 적극적 대응보다는 회피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 더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폭력의 부당함보다는 폭력이 주는 훈련효과나 긍정적 효과를 더 크게 받아들임으로써 폭력에 대한 순응과 수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폭력피해의 사례 및 특성

앞 절에서 폭력의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 피해율, 경험정도, 가해자 등을 분석해보았다. 그러나 실제 면담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의 실태는 객관적 척도나 기준, 횟수, 유형, 폭력의 이유 등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 할 정도로 복합적이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많은 폭력의 형태가 구타나 기합,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이 혼재된 채 한 사례에 포함되어 있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선배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사실상 코치나 감독의 지시에 의한

경우도 많으며,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지도자의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때로 폭력은 훈련이나 경기실적에 대한 문책을 명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서 도저히 교육의 현장에서 훈련의 일환으로 가해졌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 비일비재하다.

여기서는 폭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운동부에서 자행되는 폭력의 현장과 특성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다. 폭력의 주 행위자가 감독이나 코치, 선배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편의상 폭력의 유형을 '감독이나 코치에 의한 폭력'과 '선배에 의한 폭력'으로 나누어 특징적인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1) 지도자에 의한 폭력사례

① 구타 등 육체적 폭력

일반적으로 감독이나 코치의 폭력은 경기결과나 불성실함에 대한 문책, 훈육, 경기력 향상 등을 명분으로 한다. 이러한 명분은 실제 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며, '체벌이 없을 때 훈련은 불가능하다'라는 지도자들의 통념을 뒷받침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도자에 의한 폭력의 형태는 소위 '교육적인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

<지도자의 폭력(축구공)>

감독님이 때리시거든요. 따귀도 맞고, 몽둥이로도 맞고, 어쩔 때는 머리 박게 한 다음에 구둣발로 머리 밟고. 근데 그걸 학부모들 안 보이는 곳인 감독실 안에서 때리고 그랬죠. 보통 연습게임을 하다가 잘 못하면 '야 너 방에 들어가 있어' 그래요. 방에 들어가 있어는 가서 대가리 '박고 있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대가리를 박고 있으면 문 닫힌 상황에서 혼자 계속 박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안 박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누가 한 번 걸렸어요. 안 박고 있다가 땀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걸렸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 것 까지 다 확인해요. 대가리 한 1~2십분 박고 있으면 이제 들어와요. 그런 후에 설교를 하는 거

죠. '왜 그런 식으로 해' 하면서 발로 차는 거죠. 구둣발로 머리 차고 머리 박은 상태에서. 구두의 뒤꿈치로 밟아요. 발로차서 넘어트리고 이런 거. 제 머리가 축구공도 아니고... (김농구, 남)

감독한테 '따귀 맞고 엉덩이 맞고 구둣발로 밟히고' 그러다가 '대가리 박고' 있어야 하는 상황, 이 상태에서 다시 구둣발로 밝히는 경험을 당사자는 '내 머리가 축구공도 아니고..'라는 자괴감으로 표현한다.

② 언어적 폭력

학생들에게 절대적 권위와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폭력적 언어는 말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폭력의 강도 면에서는 결코 약하지 않다. 청소를 미리 하지 못했다든가 불성실하다는 것 때문에 '퇴학 시키겠다' '너희 같은 새끼들은 답이 없다, 정신이 썩었다'고 욕설을 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번에 4강에 못 들면 관을 짜라' '다 물갈이 해버리겠다'는 엄포는 이미 상식의 도를 넘어선다.

<살고 싶으면 꺼져>

그때 무슨 전지훈련을 갔다 왔는데 학교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행사가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걸 제대로 안 치워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일찍 나와서 다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 치운 거예요. 청소하고 있는 찰나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시합이 얼마 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미리미리 확인해서 치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운동하기 싫어서 슬렁슬렁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조교, 체육관 담당 조교도 부르고 했는데... 막상 조교한테는 화를 못 내니까 우리한테 더 화를 내면서 "너네가 운동을 할, 배울 마음, 그런 자세가 있는 애들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너무 도를 지나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퇴학시킬 줄 알아" 막 "살고 싶으면 내 앞에서 꺼져"라고 그러고 진짜... 너희 같은 새끼들은 답이 없다고 정신이 썩었다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러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채농구, 여)

<관 짜!>

이번에 성적 못 내고 4강안에 못 들거나 메달권에 못 들어 가면은 너희 '관 짜'라고. 아니면 다 물갈이해버린다고 다 짜른다고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부담)솔직히 많죠. 근데 그런 말 들어도 항상 예전부터 많이 듣던 말이라 그러려니 해요. (채농구, 여)

다음의 사례는 코치가자 경기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회식 후 취중상태인 선수들을 집합시켜 한밤중에 '취중훈련'을 시킨 사례이다.

<취중훈련>

코치도 회식 때 술을 먹고 10시 정도에 들어갔어요. 그 때가 아마 시합 져가지고 끝나고 술 마시고 들어갔어요. 코치, 감독은 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씻고 11시쯤 돼서 알딸딸하고 하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코치가 1, 2시쯤 오더니 문 다 열고 다 나오라했죠. 그 전부터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 후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한 거죠. 술 마시고 본 운동을 했어요. 본 운동은 처음에 몸 풀기 부터 시작해서 2맨 3맨 속공 다 하는 거죠. 한 2시간정도 하고 다시 올라가고 자죠.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이 있었는데도)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해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어이가 없었죠. 이런 게 학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뛰다가도 동기들이랑 대화할 때 우스갯소리로 뛰다가 (체육관 밖으로)나갈까? 란 소리를 했죠. 진짜 못 뛰겠다고. (김농구, 남)

위의 사례에서 코치는 경기력향상, 정신력 강화, 팀워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설득력도 없다. 그러나 면담 참여자는 이 상황에서 코치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이었다고 한다.

③ '장난' 혹은 비인격적 대우

어떤 경우 '훈련을 위해서'라는 명분조차 없이 지도자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선수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이나 청소를 시키고 심지어 '장난감'처럼 다루기도 한다.

<코치의 장난감>

코치가 나쁜 놈인 게 괴롭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막 괴롭혀요. 합숙 중에 쉬는 날에 오전운동을 하고 오후에 외출이다 이러면 못나가게 하려고 오전운동 갔다가 오면 청소를 시켜요. 그 사람이 청소를 시키면 이불 털고 걸레질로 자기 장안까지 닦게 시키죠. 모든 방을 청소하는데 자기 방 청소할 때는 침대 매트리스까지 꺼내서 털어오게 시켜요. 청소하고 가면은 이렇게 싸비싸바 해야 되고. 이런 걸로 갑자기 뜬금없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요. 그냥 그 이유가 없어요. 때리는 걸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짜증나죠. 그냥 그 방에 가기가 싫어요. 꼬집고 이런 걸 소리 지르면 계속 꼬집고..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얼음팩을 대는 랩이 있어요. 손잡이 있고 랩이 있는데 그걸로 맞으면 되게 아픈 거예요. 한번은 연습게임전인데 몸을 풀고 있는데 그걸로 애들 머리를 치면서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치다가 OOO을 잘 못 때렸는데 눈 위에가 찢어졌어요. 심하게 찢어져서 꿰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감독이 와서 왜 찢어졌냐고 물으니까 OO이랑 1:1하다가 찢어졌다고 했어요. 감독님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장난으로 너 왜 그랬어? 웃으시면서 그러는데 걔도 어이가 없고 저희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김농구, 남)

위의 농구선수의 사례에서 직접적인 육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은 아니라고 하지만, '장난'의 형태로 코치는 학생선수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꼬집고, 얼음팩으로 툭툭 치다가 급기야는 부상을 당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례는 흔히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친밀함이나 장난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상 선수들에 대한 존중이나 인격적 대우가 전제되지 않는 코치의 '일방적 장난'일 뿐이다.

④ 집합에 대한 심리적 공포

평소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의 '집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상황에서 예견된 집합은 매우 심각한 심리적 공포감을 가져온다. 아래의 상황은 코치가 '야간에 다 죽을 줄 알라'는 경고를 하자 집합이 두려워서 '도망'을 나가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다시 돌아오게 될 단기적 도피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닥친 집합과 '좆빵이'를 피해보려고 도망을 감행한다.

실제로 운동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도망을 생각해보고' '한두 번쯤은 실행'을 해보

는 일이다. 그토록 엄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 '도망'이 가져올 결과가 어떤지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되는 이들의 사례는 운동부내 폭력이나 규율이 개인을 얼마나 억압하고 통제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

<다 죽을 줄 알아, 도망가>

저 3번 '도망'가 봤어요. '도망'간 이유는 코치 때문에 간 거죠. 보통 '도망'간 이유는 오후에 연습게임을 하고 진짜 못하면 코치가 끝나고 '야간에 다 죽을 줄 알어'라고 말을 하면 저희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죽어도 못한다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일단 가면서는 좋죠. 하루 딱 자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죠. 그래도 다시 들어가서 운동을 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연습게임 때 못 뛰어서 코치가 '야간에 다 죽을 줄 알어'라고 말하면 4학년들이 같이 '좆빵이[4]'를 돌아야 되니까 미팅 식으로 모여가지고 후배들을 나갔다 오라고 보냈어요. 4학년들은 갔다 와서 터치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갔다 오라고 했어요. 분명히 야간에 뛰면서 못 뛰는 애들이 있고 코치가 4학년들한테 지랄을 하면 야간운동 끝나고 나서 또 집합을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될 바엔 나가서 4학년 형들한테 욕먹지 말고 차라리 코치, 감독한테 욕을 먹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김농구, 남)

(2) 선배에 의한 폭력 사례

① '신고식'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 되었듯이, 대부분의 대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대학생활은 일명 '신고식'으로 시작된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행해지는 이러한 '신고식'은 대학 운동부에 익숙해지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관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군기잡기(오함마 자루)>

학기 초 3월 2일에 위에서부터 '줄빠따'로 쭉 내려옵니다. 운동 힘들게 하고 체육관 올라가

4) 말에 따르면 정말 운동을 힘들게 하는 것을 '좆빵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

가지고 4학년이 빠따로 한명씩 칩니다. 하키스틱 같은 것도 있고, 오함마 자루로도 때립니다. 그게 제일 아픕니다. 그때는 (맞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일부러 바지 속에다가 몇 겹 껴입습니다. 한명씩 다 때리면 4학년은 기숙사 올라가고 그러면 3학년이 다시 때리고, 관례적으로... 똑바로 해라. '형식적이니까' 그러고 '그냥 맞아라' 그러고 하죠. 선배가 다 때리진 않고 군기 잡는 형들 몇 명만 때립니다. (김태권, 남)

신고식, 혹은 군기잡기라는 명목에서, 이미 상호가 다 상황을 인식한 상태로 폭력이 진행된다. 선배들은 '형식적이니까 그냥 맞아라'고 이야기 하고, 후배들은 '일부러 바지 속에 옷을 몇 겹 껴입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줄빠따를 맞는다. 그러나 4학년이 3학년을, 3학년이 그 아래 학년을 '줄빠따'하는 '신고식'은 단순한 육체적 폭력이 아니라 서열관계와 권력관계를 분명히 '하나의 의례'이다. 이런 의례와 문화를 통해 운동부 학생들은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폭력을 당연시하게 되거나, '상대에 대한 예의'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② 구타, 집합, 기합 등 폭력

선배들에 의한 후배에 대한 폭력은 주로 후배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배의 기합, 집합의 형태로 나타난다. 흔히 선배들한테 혼나면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대가리를 많이 박아보았다. 심할 때는 2-3시간도 한다'고 말하는 아래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운동부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폭력적 경험이다. 소위 '머리박기'로 시작하지만 이러한 집합은 '빰을 때리고' '발로차고' '욕설을 하는' 복합적인 폭력의 형태를 수반한다. 선배들은 '집합'의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 학생선수들은 '집합을 하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 한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들이다.

심지어 야간에 체육관의 셔터문을 내려놓고 진행된 집합의 사례는 말 그대로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나타난다. 운동부의 특성상 합숙소, 훈련장, 체육관 등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운동부만의 공간'이다. 따라서 폭력은 더욱 은폐되고 폐쇄적인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대가리 박아!!>

선배들이랑 생활하면서 많이 혼났죠. 혼날 때는 주로 대가리를 많이 박았죠.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박았어요. 많이 박을 때는 2~3시간도 박았으니까요. 예를 들면 대가리 박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하는 애들 때문에 시간이 계속 리와인드 하는 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1학년이 못 한다 그러면 대신 2학년 니들이해 라고 해서 2학년이 대가리 박게 되고, 그러다 분위기 안 좋아지면 3학년 대신 박고 이런 식이죠. 4학년 형들이 하는 게 끝나면 3학년 형들이 (기합)똑같은 것을 또(1~2학년)후배들에게 똑같이 시키고, 또 3학년 형들이 나가면 2학년 형들이 1학년에게 똑같은 것을 시키고, 1학년 때는 그냥 집합을 하면 그냥 죽는다 생각했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니까. (김농구, 남)

<인간 도미노>

남녀 전부 기합을 받는데, 후배들은 예를 들면 머리 박기를 하고 있으면 끝에 있는 친구를 발로 차고, 그러면 우르르 쓰러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박고 있는데 머리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손으로 뺨도 맞아 보고 머리도 맞아 봤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그런 정도의 잘못을 했나. (박육상, 여)

<머리박기>

(응원가)노래 배우다가 분위기 안 좋아지면 숙소 들어가서 모여서(집합해서) 머리 박고, (맨)바닥에서 머리 박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냥 노래 부르다가 그냥 흙바닥에 머리 박고, 노래 부르다가 겨울에 옷 벗고. (김농구, 남)

<셔터 내려!>

4학년 형들이 야간에 체육관으로 다 집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1학년 후배를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1학년 후배가 대가리를 진짜 못 박는 후배였어요. 걔가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3학년 박아, 2학년 박아 그러면서 2~3시간 계속하다가 그 후배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원래 학교에 집합을 하면 셔터를 내리거든요. 저희 체육관이 셔터를 내리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안에서 뭐하는지도 못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짜 못하겠다고 울면서 나가겠다고 하더니 셔터를 올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김농구, 남)

코치나 감독이 자신이 기분 내키는 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선수들에게 기합이나 구타를 행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배들은 후배들을 대한다. 술에 취해 들어온 선배는 이유 없이 후배들을 집합시켜서 욕을 하거나 때리고, 후배들은 자다 일어나 비몽사몽한 상태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맞는다. 선배가 실수하는 상황에서 웃었다고 축구화를 신은 발로 맞아 이가 부러진 사례 역시 운동부에서 선배의 절대적 권력을 보여준다.

<취중 집합>

운동하다가 맞을 때랑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집합할 때 그랬죠. 저희가 그냥 잡니다. 자고 있고 형들이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술 마시고 올라오면 애들 깨웁니다. 집합시키는데 그 자리에서 욕도 하고 가끔 맞을 때도 있고, 왜 맞는지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해서 정신없죠. 대답만 크게 하고 분위기 좀 맞춰주고 또 잡니다. 그런 식으로 집합을 하루에 7번 정도 하죠. 선배가 1~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어떤 선배는 새벽운동 끝나고 시키고, 또 어떤 선배는 가기 전에 시키고 오전운동 끝나고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7번 정도 집합 했어요. (김태권, 남)

<사커킥 쓰리강냉이>

야간운동 시간에 같은 방끼리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체육관 안에서 옆방이랑 축구시합을 하다가 후배가 골키퍼를 보고 있었는데 골을 못 막았어요. 제 위에 선배가 열받아가지고 구석에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선배가 실수하는 상황이었는데 후배가 웃었어요. 근데 거기서 뛰어가지고 얼굴을 싸커킥으로 찼는데 이빨이 3개가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어요. 후배는 운동 그만 두고요 그 선배는 소송 간다고 하다가 그냥 선수하고 지금은 코치한다고 들었는데 연락이 안 되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당한 사람들은 운동을 그만 두고요 가해자들은 계속 운동을 하고. 그런 경우가 흔해요. (김태권, 남)

③ 술자리 폭력

대학교에서 운동부 선·후배들과 같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술만 마신다는 것은 아니다. 술자리 역시 운동부 생활의 연장선이었고, 술자리에서도 운동부로서 지켜야할 규율(원샷, 허락 맡고 자리비우기 등)이 존재한다. 술을 먹다 '실신해서 앰뷸런스에 실려 가더라도' 선배가 주는 술은 다 받아야 하고, 함부로 자리를 뜨거나 웃어서도 안 된다. 술자리는 운동부의 규율과 통제가 지켜져야 하는 또 다른 공간이며, 선배의 말에 절대적 복종을 증명해야 하는 문화이기도 한다. 술자리가 다시 '대가리 박기'나 기합, 집합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이를 반영한다.

<술 마시고 죽으라는 거죠>

폭음을 시키죠. 잔으로 따라 마시지 않고 '짜배기'라고 하는 술을 마시게 했죠. 만약에 회식을 하면 4학년들이 밑에 학년들에게 '짜배기'를 2잔씩 줘요, 그리고 3학년이 또 밑에 후배들에게 2학년이 1학년들에게 '짜배기'를 2잔 정도씩 주니까 1학년들은 거의 12잔 정도를 마시는 거죠.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하는 거죠. 변기통 붙잡고 있고,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술을 못하는 친구 한명이 맨날 빼다가 그날 한번 마시고 앰뷸런스에 실신해가지고 실려 갔죠. 회식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웃고 떠들지 못하고 화장실도 맘 편히 가지 못했죠. 술을 못 마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술 마시고 취하면 회식자리가 끝이 나고 집합해서 술 마신 상태로 대가리 박고 그런 거죠. 맞는 건 거의 없었어요. 대가리 박거나 '좆빵이'돌리고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김농구, 남)

<술 못 마시면 죄인>

회식자리 같은 경우. 신입생의 경우 무조건 신고식 한다고 맥주 1700cc 를 원 샷 하고 , 소주 한 병 원 샷 시키고, 토하면서 까지 술 받으러 돌아다녀야 하고, 그게 나의 역할이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술을 잘 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막 술을 잘 못 마시면 엄청 죄인인거야. 술 잘 마시면 예쁨 받는 후배고. 토하면서 술 받으러 다니면 어 그래 너 사람 되었다. 뭐 그런. 정말 난 이해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난 선배가 돼서도 애들한테 술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말라고 했고. (박육상, 여)

6) 소결론

본 장에서는 스포츠 폭력의 개념과 범주에 기초해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대학에서 운동부 생활을 하는 도중 겪게 되는 폭력의 경험과 그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99.2%)는 운동부 폭력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학생선수는 설문에서 제시한 10가지 폭력 유형 가운데 한 가지 이상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구타(86.9%), 욕설(80.1%), 집단 따돌림(61.6%),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60.5%), 기합(58.9%) 등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자유 시간, 외출, 외박 등의 제한(53.2%)과 무리한 훈련강요(49.8%) 등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통제도 폭력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면담과정에서는 폭력에 대한 수용적 인식이 더 높게 체감되었는데, 특히 학생선수들은 '감정적' 폭력과 '교육적' 체벌을 구분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는 대학 운동부에서 폭력을 경험했으며(89.7%), 폭력 발생 장소는 합숙소와 훈련장소, 폭력 행위자는 감독, 코치, 선배, 폭력 발생빈도는 1주일에 1-2번 이상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상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기합'(74.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67.7%)',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67.0%)',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60.6%)', '자유 시간, 외출, 복귀시간, 외박 등의 제한(59.3%)' 등이었다. 폭력의 빈도는 1개월에 1-2회가 가장 많았으나, 폭력피해가 복수로 경험되는 실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학생이 1주일에 1-2번 이상 상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학교 학생선수는 이러한 폭력이 고등학교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폭력 발생의 이유를 '훈련 태도가 나쁘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69.8%), '경기력, 정신력, 팀워크 등의 향상을 위해서'(39.2%) 등 훈련과 관련하여 이해하

고 있었으나, 그러한 폭력에 의해 '운동을 그만 두고 싶어지고'(55.5%),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의 심리적 어려움'(49.9%)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관련해서 폭력을 이해하고 있는 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개인의 문제나 감정적 문제가 폭력의 원인이라 생각하는 학생선수도 상당히 많았다(37.0%). 또한 그 폐해가 일상생활의 불가(18.2%)와 불면, 자살 충동 등(12.2%)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넷째, 폭력을 경험한 상당수의 대학교 학생선수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69.9%) 폭력에 대해 '참는 것'(84.6%)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대응하는 소수의 대학교 학생선수들도 그만하라는 의사표명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법적 대응이나 외부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6명(1.1%)으로 극히 미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폭력이 '훈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39.5%) 어쩔 수 없다는 폭력에 대한 수용과 '대응해봐야 소용이 없다(36.5%)', '운동부에서는 당연한 일이니까(20.8%)'라는 체념이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폭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폭력문화를 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대학교 학생선수의 폭력 문제는 상당 부분 지도자에게로 귀결된다. 대학교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지도자에 의해서 유지·강화된다. 지도자들이 폭력(기합, 체벌)을 운동부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폭력은 경기결과나 불성실함에 대한 문책, 훈육, 경기력 향상 등을 명분으로 한다. 즉 '교육적 체벌'이란 말을 이용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은 폭력일 뿐이다. 때문에 지도자들의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학교 운동부내 폭력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들의 폭력이 갖는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학생들에게로 조장한다는 것이다. 폭력의 구조에서 제일 정점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상급학년을 통해서 아래학년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암묵적 지시를 내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생선수 사이에서도 폭력이 일상화되고 체화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폭력문제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폭력은 어떠한 형태이든 범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운동부에는 그 잣대를 엄격하게 대고 있지 않고 있다. 그것을 문제 삼는 선수들에게 관심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선수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되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아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학교 학생선수의 폭력 문제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이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면담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을 때 운동을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 둘 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운동 이외의 것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운동경력은 근 10년에 육박한다. 10년의 운동경력은 곧 10년의 수업결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들에게 운동은 유일한 대안이며, 때문에 폭력을 수용하고 감내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지도자의 인식, 사회의 관심, 학습권의 보장 등이 대학교 운동부의 폭력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5. 성폭력 실태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대학교 입학 후 경험한 성폭력의 실태 장에서는 먼저 성폭력의 개념과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성폭력의 피해 실태, 피해 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식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성폭력의 개념 및 인식

본 연구에서 성폭력은 2010년 한국국가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에서 제시한 스포츠분야 성폭력의 개념과 범주에 기준하여 분석하였다.[5]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성추행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희롱이나 불쾌한 성적 농담 등 상대의 의사에

---

5) 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10,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공청회 자료집 참조)은 스포츠 분야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스포츠분야 성폭력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 훈련이나 쉬는 시간, 숙소 등에서 상대에 대해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유혹을 암시하는 휘파람이나 응시, 몸을 훑어보는 행위
- 성이나 성적 정체성에 기반 한 모욕, 괴롭힘, 별명 부르기,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 특정 개인에 대한 성적 사실관계에 대한 과도한 질문,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내용을 포함 한 일방적이고 불쾌한 메시지 문자나 이메일, 전화, 편지 등을 보내는 행위
- 성적인 광고물이나 포스터, 사진 등을 공공장소(훈련장, 락커룸, 휴게실, 공동숙소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에게 특정한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
- 훈련이나 친밀함을 가장해서 입맞춤, 무릎에 앉히기, 뒤에서 껴안기, 몸의 밀착, 귓속말, 애무나 마사지 요구 등 신체적 접촉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뒷풀이, 식사, 모임 등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농담,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추자고 강요하는 행위
- 지도자가 선수에게 사적인 만남이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데이트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위를 이용해 강요하는 행위
-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시도하려는 행위, 폭력을 수반한 성적 강요 행위
-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인 성관계 등

반 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즉 성폭력은 성적인 이끌림이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강제적인 권력행사이며 '성적 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몸이나 성에 대한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스포츠분야 성폭력 역시 성폭력의 일반적 개념을 공유한다. 다만, 스포츠분야 성폭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공간적·관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스포츠분야 성폭력은 동료나 선후배,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심리 및 의료전문가, 행정담당자, 기관책임자 등 스포츠를 매개로 함께 활동하거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의미한다. 공간적으로는 훈련장, 합숙소, 전지훈련 숙소, 이동차량 등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공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포함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 간에 발생하는 이성 간 성폭력뿐 아니라 여성 간, 남성 간의 동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폭력의 개념과 범주에 기초해, 실제 대학생 운동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아래의 문항은 국가인권위위에서 제시한 스포츠분야 성폭력 개념과 범위를 기준으로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폭력을 포괄하는 10개의 대표적인 성폭력 상황을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성폭력 인지여부를 물은 결과이다.

<표 48> 성별에 따른 성적 폭력 인지 여부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성적 농담이나 놀림	101 (74.3)	237 (46.7)	338 (52.6)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96 (70.6)	162 (32.0)	258 (40.1)
원치 않는 신체접촉	118 (86.8)	332 (65.5)	450 (70.0)
훈련을 핑계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106 (77.9)	236 (46.5)	342 (53.2)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	71 (52.2)	153 (30.2)	224 (34.8)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적 접촉	112 (82.4)	242 (47.7)	354 (55.1)

개인적인 데이트나 만남의 강요	86 (63.2)	164 (32.3)	250 (38.9)
몸의 노출 강요	123 (90.4)	362 (71.4)	485 (75.4)
원치 않는 성적 행위의 요구나 강요	125 (91.9)	385 (75.9)	510 (79.3)
강제적인 성행위	129 (94.9)	404 (79.7)	533 (82.9)
전체	136 (100.0)	467 (92.1)	603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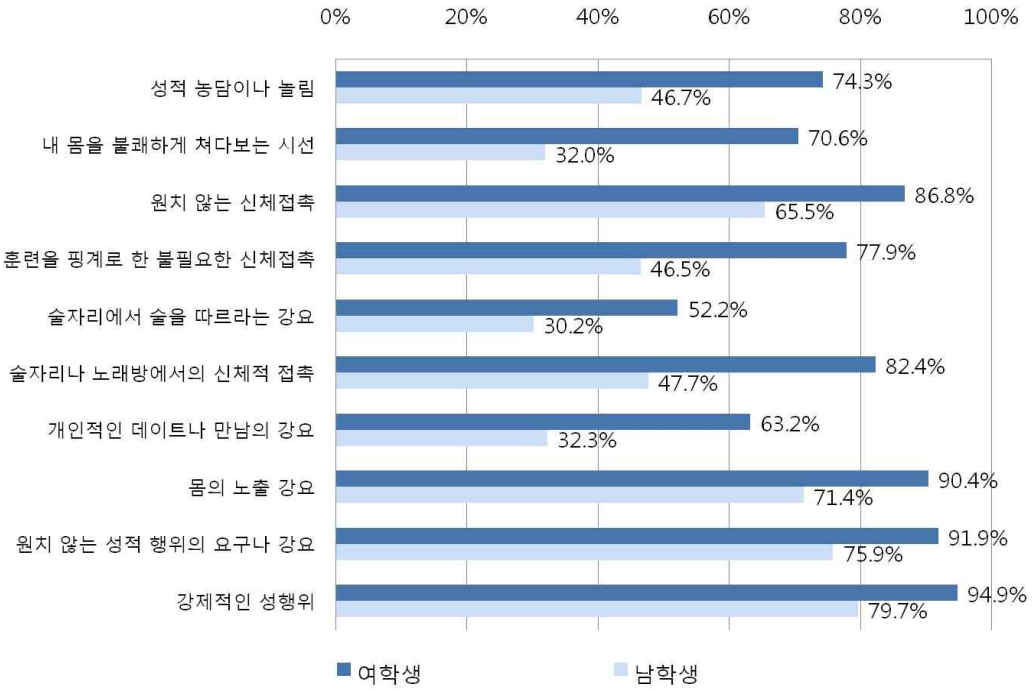
* 복수응답 허용

<표. 48>와 <그림. 1>은 성적 폭력 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모든 항목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압도적으로 성폭력을 더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백한 성폭력 행위인 '강제적인 성행위' 즉 강간의 경우 여학생들의 경우 94.9%가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남학생들은 79.7%만이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10가지 성폭력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성폭력이라고 응답하지 않는 남학생 응답자가 7.9%(40명)나 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의 <표. 48>을 보면 '강제적인 성행위'(82.9%)에 대한 성폭력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의 요구나 강요(79.3%)', '몸의 노출 강요(75.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세 유형에 대한 성별인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들은 대략 90%이상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보이는 반면 남학생들은 70-80%정도의 동의를 보인다.

대략 과반수이상이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은 '성적농담이나 놀림(52.6%)', '훈련을 핑계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53.2%)',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적 접촉(55.1%)'으로 분석된다. 반면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40.1%)',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34.8%)는 과반수 이하의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남녀의 인식차가 가장 큰 유형은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으로 여학생의 70.6%가 성폭력이라고 인식한 반면, 남학생은 32.0%만이 이를 성폭력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도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82.4%, 남학생의 47.7%가 성폭력이라고 응답해서 남녀의 인식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훈련을 핑계로 한 불필요



<그림 1> 성별에 따른 성적 폭력 인지

한 신체접촉'의 경우 여학생의 77.9%가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남학생의 46.5%만이 성폭력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과반수이상(53.2%)이 훈련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성적 농담이나 놀림'에 대한 남녀 인식 차 역시 여학생이 74.3%, 남학생이 46.7%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즉 명백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몇몇 성폭력유형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그 이외의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대략 절반정도의 응답자가 성폭력이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성폭력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에 대한 성별 인식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상황에 대해 남성과 여성간,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상반된 인식과 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성폭력 피해 실태

(1) 성폭력 피해의 일반적 특성

실제 성폭력 경험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49>에서 10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643명중 16.2%인 104명이며, 이중 여학생 26.5%(36명), 남학생 13.4%(68명)가 대학 운동부에서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9> 성적 폭력 경험 유무

단위: 명(%)

형태	여학생	남학생	전체
1 훈련을 핑계로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6 (4.4)	10 (2.0)	16 (2.5)
2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	18 (13.2)	28 (5.5)	46 (7.2)
3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적 접촉	6 (4.4)	2 (0.4)	8 (1.2)
4 개인적인 데이트나 만남의 강요	5 (3.7)	6 (1.2)	11 (1.7)
5 성적 농담이나 놀림	19 (14.0)	33 (6.5)	52 (8.1)
6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14 (10.3)	7 (1.4)	21 (3.3)
7 원치 않는 신체접촉	8 (5.9)	13 (2.6)	21 (3.3)
8 몸의 노출 강요	-	7 (1.4)	7 (1.1)
9 원치 않는 성적 행위의 요구나 강요	-	2 (0.4)	2 (0.3)
10 강제적인 성행위	-	4 (0.8)	4 (0.6)
전체	36 (26.5)	68 (13.4)	104 (16.2)

우선 언어적 성폭력 경험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이나 놀림'이 전체의 8.1%(5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여학생의 14%(19명), 남학생의 6.5%(33명)가 성적 농담이나 놀림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이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로 전체의 7.2%(46명)이며, 여학생의 13.2%(18명), 남학생의 5.5%(28명)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 차이로 보면, 일상적인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술자리 등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나 데이트 강요 등의 경험에서는 여학생의 경험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성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접촉이 수반되는 '몸의 노출 강요', '원치 않는 성적 행위의 요구나 강요', '강제적인 성행위'와 관련해서 남학생의 경우 피해경험을 보고하는 반면, 여학생의 응답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학생의 경우 '몸의 노출강요' 1.4%(7명), '원치 않는 성적행위의 요구나 강요' 남학생 0.4%(2명), '강제 적인 성행위' 남학생 0.8%(4명)로 나타나는데 비율상으로는 미비해 보이지만 실제 응답자 수로 본다면 상당히 주목을 요하는 결과이다(이에 대한 구체적 해석은 각 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심각한 성추행을 포함한 몇몇 유형에 대한 여학생의 무응답율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는 조사대상자 중 여학생의 경우 실제로 심각한 성추행을 포함하는 성폭력 경험이 없을 수 있다는 것, 둘째는 피해경험이 있었지만 질문지에 응답을 꺼려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성폭력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등이다. 이들 가설 중 어느 것이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하는가를 통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조사과정과 면담 결과들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능성이 더 현실적임을 보여준다.

즉 조사과정에서 지도자가 보여 주었던 조사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나 노골적인 거부,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드러낼 수 없는 심리적, 환경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이러한 주위의 압박은 폭력보다 성폭력에 대한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대학선수들의 경우 조사연구의 결과가 어떠한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력을 갖는지 예측할 수 있는 성인들이어서 조사과정은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조사대상 및 조사과정 상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본 연구의 성폭력 실태가 이전의 연구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로도 추론된다.

또한 앞 적에서 논의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결과는, 학생선수들의 경우 성폭력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경험해도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면담과정을 통해 나타난 성폭력 경험들은 많은 경우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 아닌 지도자의 애정, 훈련의 일환, 선후배간의 장난이나 훈육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의 사례는 훈련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경우 선수들이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심지어 지도자가 '엉덩이를 치거나 볼을 비비거나'해도 별 다른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지도자의 '애정표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애정이 담긴 코치님의 뽀뽀>

적응 안 되고 싫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선생님이 내게 애정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 내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거 있자나. 훈련을 통해서 꾸지람도 듣고 하지만 운동 끝나고 나서는 오늘 힘들었냐. 이러면서 뽀뽀로 마무리 해야지 이러면서 쪽 한번 하고 가시는 이런 거지 뭐. 그래도 그런 게 있었지. 선이 지켜졌으니까. 그런 마음이지. 개인 적인 감정이 아니라 훈련 과정 안에서 그런 훈육을 받고 하다가도 뭐 그런 걸로 나를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구나. 나 잘되라고 그러시는 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지. (박육상, 여)

<자연스럽게 '툭'>

엉덩이 막 툭 치고, 볼 비비고, 그런 것은 우리도 있었어.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게 수치심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박육상, 여)

(2) 유형별 성폭력 피해의 특성

<표 50> 성별 · 유형별 성적 폭력 행위자

단위: 명(%)

		남자						여자						전체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훈련을 핑계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여학생	3 (50.0)	1 (16.7)	1 (16.7)	–	–	–	–	1 (16.7)	–	–	–	–	6 (100)
	남학생	–	–	7 (70.0)	2 (20.0)	1 (10.0)	–	–	–	–	–	–	–	10 (100)
	전체	3 (18.8)	1 (6.3)	8 (50.0)	2 (12.5)	1 (6.3)	–	–	1 (6.3)	–	–	–	–	16 (100)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	여학생	6 (33.3)	6 (33.3)	8 (44.4)	–	–	–	2 (11.1)	3 (16.7)	4 (22.2)	–	–	1 (5.6)	18 (100)
	남학생	5 (20.8)	7 (29.2)	20 (83.3)	2 (8.3)	2 (8.3)	–	1 (4.2)	2 (8.3)	3 (12.5)	–	–	–	24 (100)
	전체	11 (26.2)	13 (31.0)	28 (66.7)	2 (4.8)	2 (4.8)	–	3 (7.1)	5 (11.9)	7 (16.7)	–	–	1 (2.4)	42 (100)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적 접촉	여학생	3 (50.0)	1 (16.7)	1 (16.7)	–	–	–	1 (16.7)	1 (16.7)	–	–	–	–	6 (100)
	남학생	–	–	1 (50.0)	1 (50.0)	–	–	–	–	2 (100)	–	–	–	2 (100)
	전체	3 (37.5)	1 (12.5)	2 (25.0)	1 (12.5)	–	–	1 (12.5)	1 (12.5)	2 (25.0)	–	–	–	8 (100)
개인적인 데이트나 만남의 강요	여학생	1 (20.0)	1 (20.0)	3 (60.0)	1 (20.0)	–	–	–	–	–	–	–	–	5 (100)
	남학생	–	–	3 (50.0)	2 (33.3)	–	–	–	–	1 (16.7)	–	–	–	6 (100)
	전체	1 (9.1)	1 (9.1)	6 (54.5)	3 (27.3)	–	–	–	–	1 (9.1)	–	–	–	11 (100)
성적 농담이나 놀림	여학생	4 (22.2)	2 (11.1)	10 (55.6)	1 (5.6)	–	–	–	2 (11.1)	2 (11.1)	–	–	–	18 (100)
	남학생	1 (3.0)	2 (6.1)	25 (75.8)	6 (18.2)	3 (9.1)	1 (3.0)	–	–	3 (9.1)	1 (3.0)		2 (6.1)	33 (100)
	전체	5 (9.8)	4 (7.8)	35 (68.6)	7 (13.7)	3 (5.9)	1 (2.0)	–	2 (4.0)	5 (9.8)	1 (2.0)	–	2 (4.0)	51 (100)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여학생	1 (7.1)	–	6 (42.9)	1 (7.1)	–	4 (28.6)	–	–	2 (14.3)	1 (7.1)	1 (7.1)	2 (14.3)	14 (100)
	남학생	–	–	3 (42.9)	5 (71.4)	2 (28.6)	2 (28.6)	–	–	1 (14.3)	–	–	–	7 (100)

	전체	1 (4.8)	–	9 (42.9)	6 (28.6)	2 (9.5)	6 (28.6)	–	–	3 (14.3)	1 (4.8)	1 (4.8)	2 (9.5)	21 (100)
원치 않는 신체접촉	여학생	4 (50.0)	–	2 (25.0)	1 (12.5)	–	1 (12.5)	–	–	1 (12.5)	–	–	–	8 (100)
	남학생	1 (7.7)	–	9 (69.2)	3 (23.1)	2 (15.4)	1 (7.7)	–	–	1 (7.7)	–	–	4 (30.8)	13 (100)
	전체	5 (23.8)	–	11 (52.4)	4 (19.0)	2 (9.5)	2 (9.5)	–	–	2 (9.5)	–	–	4 (19.0)	21 (100)
몸의 노출 강요	여학생	–	–	–	–	–	–	–	–	–	–	–	–	–
	남학생	–	–	7 (100)	–	–	–	–	–	–	–	–	1 (14.3)	7 (100)
	전체	–	–	7 (100)	–	–	–	–	–	–	–	–	1 (14.3)	7 (100)
원치 않는 성적 행위의 요구나 강요	여학생	–	–	–	–	–	–	–	–	–	–	–	–	–
	남학생	–	–	2 (100)	–	–	–	–	–	–	–	–	–	2 (100)
	전체	–	–	2 (100)	–	–	–	–	–	–	–	–	–	2 (100)
강제적인 성행위	여학생	–	–	–	–	–	–	–	–	–	–	–	–	–
	남학생	–	–	4 (100)	–	–	–	–	–	2 (50.0)	–	–	2 (50.0)	4 (100)
	전체	–	–	4 (100)	–	–	–	–	–	2 (50.0)	–	–	2 (50.0)	4 (100)

* 복수응답 허용.

<표 51> 성별 · 유형별 성적 폭력 장소

		합숙소	경기장	훈련 장소	이동 차량	라커룸	코치실 감독실	회식 자리	외부 숙소	한적한 곳	기타	전체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여학생	–	4 (33.3)	5 (41.7)	–	–	–	–	–	–	3 (25.0)	12 (100)
	남학생	4 (57.1)	1 (14.3)	1 (14.3)	1 (14.3)	2 (28.6)	–	–	–	1 (14.3)	1 (14.3)	7 (100)
	전체	4 (21.1)	5 (26.3)	6 (31.6)	1 (5.3)	2 (10.5)	–	–	–	1 (5.3)	4 (21.1)	19 (100)
원치 않는 신체접촉	여학생	1 (14.3)	–	3 (42.9)	–	–	4 (57.1)	2 (28.6)	–	–	–	7 (100)

	남학생	5 (71.4)	1 (14.3)	4 (57.1)	1 (14.3)	–	–	2 (28.6)	1 (14.3)	2 (28.6)	–	7 (100)
	전체	6 (42.9)	1 (7.1)	7 (50.0)	1 (7.1)	–	4 (28.6)	4 (28.6)	1 (7.1)	2 (14.3)	–	14 (100)
몸의 노출 강요	여학생	–	–	–	–	–	–	–	–	–	–	–
	남학생	5 (100.0)	1 (20.0)	1 (20.0)	–	1 (20.0)	–	–	2 (40.0)	–	–	5 (100)
	전체	5 (100.0)	1 (20.0)	1 (20.0)	–	1 (20.0)	–	–	2 (40.0)	–	–	5 (100)
원치 않는 성적 행위의 요구나 강요	여학생	–	–	–	–	–	–	–	–	–	–	–
	남학생	2 (100.0)	–	1 (50.0)	1 (50.0)	–	–	–	–	–	–	2 (100)
	전체	2 (100.0)	–	1 (50.0)	1 (50.0)	–	–	–	–	–	–	2 (100)
강제적인 성행위	여학생	–	–	–	–	–	–	–	–	–	–	–
	남학생	3 (60.0)	–	3 (60.0)	2 (40.0)	1 (20.0)	–	–	–	1 (20.0)	1 (20.0)	5 (100)
	전체	3 (60.0)	–	3 (60.0)	2 (40.0)	1 (20.0)	–	–	–	1 (20.0)	1 (20.0)	5 (100)

* 복수응답 허용.

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스포츠는 특성상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수반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훈련이나 운동 시 신체접촉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문화와 관습의 맥락 안에서 어떠한 신체접촉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다만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서, 분명하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혹은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면 분명히 성폭력에 해당된다. 본 조사의 경우 전체조사대상자 643명 중 21명(3.3%)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49의 7 항에 해당). 성별로는 여학생의 5.9%(8명), 남학생의 2.6%(13명)가 피해경험을 보고한다.

가해자를 살펴보면, 남자선배(52.4%,11명)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남자감독(23.8%,5명)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가해자가 주로 남자감독(4명, 50%)이나 남자선배(2명, 25%)인데 반

해, 남학생의 경우 남자선배(9명, 69.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율상으로는 남자선배가 더 높지만, 실제 운동현장에서 지도자는 1-2명이지만 선배는 다수가 존재하는 양적 비교를 염두에 둔다면 감독에 의한 원치 않는 신체접촉비율을 낮다고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도자나 선배에 의한 성폭력이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나 저항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다.

<표 52> 원치 않는 신체접촉 행위자

단위: 명(%)

	남자						여자						전체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여학생	4 (50.0)	-	2 (25.0)	1 (12.5)	-	1 (12.5)	-	-	1 (12.5)	-	-	-	8 (100)
남학생	1 (7.7)	-	9 (69.2)	3 (23.1)	2 (15.4)	1 (7.7)	-	-	1 (7.7)	-	-	4 (30.8)	13 (100)
전체	5 (23.8)	-	11 (52.4)	4 (19.0)	2 (9.5)	2 (9.5)	-	-	2 (9.5)	-	-	4 (19.0)	21 (100)

* 복수응답 허용.

원치 않는 신체접촉은 주로 남자선배나 남자감독에 의해 발생하며, 여학생의 경우 남자지도자에 의해, 남학생의 경우 남자선배에 의한 동선 간의 성폭력 피해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피해자간의 관계적 특성은 발생장소상의 특성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장소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감독실/코치실(4명, 57.1%)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합숙소(5명, 71.4%)와 훈련장소(4명, 57.1%)가 주요한 장소로 나타난다. 즉 원치 않는 신체접촉의 경우 여학생은 '남자지도자-여자선수'의 관계로 주로 감독실이나 코치실에서 발생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남자선배-남사후배'의 관계에서 합숙소나 훈련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 53> 원치 않는 신체접촉 발생장소

단위: 명(%)

	합숙소	경기장	훈련 장소	이동 차량	라커룸	코치실 감독실	회식 자리	외부 숙소	한적한 곳	기타	전체
여학생	1 (14.3)	–	3 (42.9)	–	–	4 (57.1)	2 (28.6)	–	–	–	7 (100)
남학생	5 (71.4)	1 (14.3)	4 (57.1)	1 (14.3)	–	–	2 (28.6)	1 (14.3)	2 (28.6)	–	7 (100)
전체	6 (42.9)	1 (7.1)	7 (50.0)	1 (7.1)	–	4 (28.6)	4 (28.6)	1 (7.1)	2 (14.3)	–	14 (100)

* 복수응답 허용.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에 의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흔히 '뽀뽀' 나 '무릎에 앉히기', '마사지 요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지도자와 선수들은 오랜 기간 훈련을 같이하고 일상을 함께 하다 보니 친밀한 정서적 관계 속에 있게 된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지도자는 흔히 선수들에게 "뽀뽀를 하라"거나 "무릎에 앉아라" 등의 요구를 하거나 여자선수의 몸을 툭툭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지도자는 흔히 자신의 이러한 행위를 '장난' 혹은 '친밀감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선수들 역시 '싫거나 짜증은 아니만' 성폭력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아래의 사례는 지도자의 행동이 성적 폭력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아! 미안해 장난치려고 그랬어>

생활 자체가 그래 이렇게 힐끔 보고 지나가는 애가 있으면 숨어 있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나가다보면 코치님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가슴높이정도 되는 거구요 그러면서 터치를 하고 아 미안해 몰랐어. 장난치려고 그랬어. (박춘구, 여)

<코치님의 뽀뽀 싫었어>

코치 선생님이 볼에다 뽀뽀를 막. 근데 그거는 애정이 담겨 있는 뽀뽀 인거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친하지 않으면 일어 날 수 없는 건데. 또 그게 싫었어. 짜증나. (박육상, 여)

일상적인 신체접촉의 수위를 넘어서 심지어는 선수들을 불러들여 마사지를 하라고 요구하는 지도자의 사례도 있었다. 이 지도자의 경우 '마사지가 소홀하면 올 나잇(밤샘)을 각오하라'는 언어적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

< 올 나잇 마사지 요구>
방으로 불러요. 마사지 잘 하는 애 어디 있냐고. 팀에서 주로 서로 마사지 잘 하는 지 누가 누구해주는 거 잘 아니까 누구누구 데리고 와 주장 너랑 누구누구 데려와 또 안 간다고 그러면 혼나니까 그러니깐 올라가요. 올라가면 한 번 올라왔을 때는 지 발가락 마사지하라고.. 일부러 말 같지도 않은 데 하라고 진짜 막 인상 쓰면 또 혼나고. 자기는 누워가지고 책을 보면서 요기 한명 요기 한명 허리 한명 다 붙어가지고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마사지가 소홀해진다 하면 "어어어" 이러면서 "오늘은 올나잇이야 각오하고 올라와" 진짜 그렇게 해요. (박축구, 여)

② 훈련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

훈련을 핑계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표 49의 1항에 해당)은 스포츠 성폭력의 가장 특징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즉 훈련이나 코칭, 마사지 등을 구실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성폭력이 아닌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가장하고, 피해자 역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신체접촉과 성폭력을 혼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응답자의 2.5%(16명)가 이러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학생 6명(4.4%), 남학생 10명(2.0%)이 훈련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보면 선배가 가장 많았고(50%, 8명) 그 다음이 감독(18.8%, 3명)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해자가 감독인 3명의 경우 피해자가 모두 여성으로 나타나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또한 가해자가 선배인 경우 남학생, 여학생 모두 남자선배한테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훈련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의 경우 남자선배나 남자감독이 주 가해자임을 알 수 있다.

<표 54> 원치 않는 신체접촉 행위자

단위: 명(%)

	남자						여자						전체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여학생	3 (50.0)	1 (16.7)	1 (16.7)	–	–	–	–	1 (16.7)	–	–	–	–	6 (100)
남학생	–	–	7 (70.0)	2 (20.0)	1 (10.0)	–	–	–	–	–	–	–	10 (100)
전체	3 (18.8)	1 (6.3)	8 (50.0)	2 (12.5)	1 (6.3)	–	–	1 (6.3)	–	–	–	–	16 (100)

* 복수응답 허용.

실제로 훈련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의 전형적 사례를 살펴보자.

<훈련을 핑계로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고등학교 때 같은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운동하는 자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깨를 세우고 스쿼트를 한다. 선생님이 올라타서 가슴을 만지고.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한참 뒤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대학교 때. (김민턴, 여)

이런 사례들은 훈련 중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자세를 잡아준다던가 훈련을 도와주기 위해 몸을 잡아준다던가 혹은 훈련 상대자로 같이 대련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훈련이나 코칭을 가장해 성적 폭력을 가한다.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위의 수영선수의 사례처럼 성폭력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불쾌해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기분은 이상하지만 훈련이니까"넘어가기도 한다.

훈련을 핑계로 한 성폭력은 주로 지도자와 선수 간 혹은 선·후배 간에 발생하는 성적 폭력의 한 형태로 가해자의 절대적 권력에 기반 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며, 더욱이 훈련 중의 신체접촉에 관대한 운동부의 문화와 관습에 의

해 많은 경우 비가시화 되는 특성을 갖는다.

③ 술자리 등 사적인 모임에서의 성폭력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신체적 접촉(표 49의 2항과 3항에 해당)은 운동이외의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유형이다.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의 경우 전체 응답자 643명 중 7.2%(46명)가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13.2%(18명), 남학생의 5.5%(28명)가 응답해서 여학생들이 더 많은 피해 경험율을 보고한다. 가해자를 살펴보면, 남자선배가 가장 많고 (66.7%, 28명) 그 다음이 남자 코치(31%,13명), 남자 감독(26.2%,11명) 순이다.

<표 55>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자

단위: 명(%)

	남자						여자						전체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여학생	6 (33.3)	6 (33.3)	8 (44.4)	-	-	-	2 (11.1)	3 (16.7)	4 (22.2)	-	-	1 (5.6)	18 (100)
남학생	5 (20.8)	7 (29.2)	20 (83.3)	2 (8.3)	2 (8.3)	-	1 (4.2)	2 (8.3)	3 (12.5)	-	-	-	24 (100)
전체	11 (26.2)	13 (31.0)	28 (66.7)	2 (4.8)	2 (4.8)	-	3 (7.1)	5 (11.9)	7 (16.7)	-	-	1 (2.4)	42 (100)

* 복수응답 허용.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은 전체응답자중 1.2%(8명)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피해자 8명중 6명이 여학생이다. 가해자를 살펴보면, 남자 감독이 3명(3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56>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 행위자

단위: 명(%)

	남자						여자						전체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여학생	3 (50.0)	1 (16.7)	1 (16.7)	–	–	–	1 (16.7)	1 (16.7)	–	–	–	–	6 (100)
남학생	–	–	1 (50.0)	1 (50.0)	–	–	–	–	2 (100.0)	–	–	–	2 (100)
전체	3 (37.5)	1 (12.5)	2 (25.0)	1 (12.5)	–	–	1 (12.5)	1 (12.5)	2 (25.0)	–	–	–	8 (100)

* 복수응답 허용.

술자리 등 사적인 모임에서의 성폭력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가 주로 감독, 코치, 선배들이며, 특히 신체적 접촉의 피해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팀의 단결이나 유대를 강조하는 운동부의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회식이나 술자리 등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권력을 가진 지도자나 선배들에 의한 술 강요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술자리나 사적모임에서 여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성역할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사적 데이트 혹은 만남의 강요

사적만남이나 데이트의 강요 (표 49의 4항에 해당)는 전체응답자중 1.7%(11명)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여성의 3.7%(5명), 남성의 1.2%(6명)가 피해를 응답하고 있다. 가해자는 11명중 7명이 선배로 나타나며, 그 다음이 동기(3명), 감독(1명), 코치(1명) 순으로 나타난다. 여학생의 경우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며, 가해자가 감독(1명)과 코치(1명)인 경우 피해자는 모두 여학생이다. 특히 남성지도자-여자선수의 관계는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성폭력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표 57> 개인적인 데이트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자

단위: 명(%)

	남자						여자						전체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여학생	1 (20.0)	1 (20.0)	3 (60.0)	1 (20.0)	–	–	–	–	–	–	–	–	5 (100)
남학생	–	–	3 (50.0)	2 (33.3)	–	–	–	–	1 (16.7)	–	–	–	6 (100)
전체	1 (9.1)	1 (9.1)	6 (54.5)	3 (27.3)	–	–	–	–	1 (9.1)	–	–	–	11 (100)

* 복수응답 허용.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남성지도자에 의한 여자선수간의 성폭력>
친구 이야기인데요 주말에 쉴 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더 라구요. 터치 없이 그냥 다 쉬는 날이니까 상관안하고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그 코치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구는 외박이나 휴가를 주고 자기는 집에 가는 척 하면서 부르는 거에요. 어디로 나와 그러면 차타고 그리고 뭐 처음에는 그냥 밥도 사주고 그랬데요. 그냥 예뻐하는 제자처럼... 실수라고 얘기를 했나 한 번은 또 나오라고 해서 차를 타고 회를 먹으러 가자면서 소주 한잔 마셨나 봐요. 그 친구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 했을 때 먹이더래요. 안된다고... 계속 그랬데요. 어떻게 선생님이 주는 데... 먹었대요. 자기는(친구) 취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모텔까지 가게 되고 그게 뭐 그 친구도 말하는 게 애매했어요. 저희가 그걸 캐낸 거예요. 의도해가지고 자기는 술 취해서 기억도 없다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기억하고 있던 것도 말이 안 맞고 기억하고 있고 그러다가 사건이 크게 한번 커진 그런 걸로... (박축구, 여)

위의 축구선수의 사례에서 지도자는 '예뻐하는 제자'처럼 같이 밥도 사주고 하다가 , 어느 날 차를 타고 나가서 술을 먹고 모텔에 가게 된 상황을 묘사해준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는 술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맥락적인 상황을 보면 남자 지도자에 의한 여자선

수의 성폭력의 유형에 속한다.

사적 데이트나 만남의 강요, 혹은 사적인 친밀성에 기반 한 성폭력은 흔히 사적인 관계와 성폭력의 경계에 놓이게 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잘 알거나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적 만남이나 데이트의 강요는 성적 폭력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구나 그 상대가 지도자나 선배처럼 권력관계에 놓여있는 경우 피해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마치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왜곡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다.

⑤ 성적 놀림이나 농담

성폭력 유형중 가장 많이 응답한 피해가 '성적 농담이나 놀림'(표 49의 5항에 해당)이다. 전체응답자중 8.1%(52명)가 응답하고 있으며, 여성응답자의 14.0%(19명), 남성의 6.5%(33명)가 피해를 보고한다. 가해자는 남자선배(68.6%, 35명)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남자동기(13.7%, 7명), 남자감독(9.8%, 5명), 여자선배(9.8%, 5명), 남자코치(7.8%, 4명)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놀림이나 농담'이 남자선배나 남자동기들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현장에서 선후배와 지도자의 양적인 수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지도자들의 언어적 성폭력 역시 문제가 된다.

<표 58> 성적 놀림이나 농담 행위자

단위: 명(%)

	남자						여자						전체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여학생	4 (22.2)	2 (11.1)	10 (55.6)	1 (5.6)	–	–	–	2 (11.1)	2 (11.1)	–	–	–	18 (100.0)
남학생	1 (3.0)	2 (6.1)	25 (75.8)	6 (18.2)	3 (9.1)	1 (3.0)	–	–	3 (9.1)	1 (3.0)		2 (6.1)	33 (100.0)
전체	5 (9.8)	4 (7.8)	35 (68.6)	7 (13.7)	3 (5.9)	1 (2.0)	–	2 (4.0)	5 (9.8)	1 (2.0)	–	2 (4.0)	51 (100.0)

* 복수응답 허용.

언어적 성폭력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이나 놀림'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불쾌하다고 표현한다. 구체적으로는 몸의 일부를 묘사하거나, 몸의 일부를 놀리는 농담, 직접적인 성행위를 언급하는 농담 등으로 나타난다.

<몸의 일부를 묘사하거나 몸의 일부를 놀리는 농담>
막 너 가슴 커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해요. 들리게. 네 평가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쪽 팔렸어요. 가슴 없는 친구 보면서 아 재는 어떻게 남자친구 사귀냐. 재는 가슴도 없어. 그리고 반대로 아 재 몸매 너무 괜찮다. 한 번 자고 싶다. 이런 것도 기분 나쁘고. (성유도A, 여)

<직접적인 성행위를 언급하는 농담>
성행위 하는 것도 남자들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우리는 돈 주고도 한다. 빨간 집 있잖아요. 불러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마하는 데도 있고. 얼마고 막.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 예요. 그런 이야기 막 하고. 가슴 큰 여자가 더 좋지. 그리고 또 나이트 가서 부킹해서 잔 이야기. 막 이제 왜 가슴 큰 여자가 좋은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가슴 수술한 여자도 만져봤는데 그건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성유도A, 여)

⑥ 불쾌한 시선

운동을 하다보면 옷을 벗거나, 몸이 노출되는 운동복을 입고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몸을 보거나 하는 행동은 자연스럽지만, 상대가 성적인 시선으로 느껴서 불쾌하게 느낀다면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본 조사대상자의 3.3%(21명)가 그런 경험을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10.3%(14명), 남학생의 1.4%(7명)가 응답해서 여학생의 피해 경험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가해자 중 남자선배가 42.9%(9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자동기(28.6%, 6명)이다.

<표 59> 불쾌한 시선 행위자

단위: 명(%)

	남자						여자						전체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감독	코치	선배	동기	후배	기타	
여학생	1 (7.1)	–	6 (42.9)	1 (7.1)	–	4 (28.6)	–	–	2 (14.3)	1 (7.1)	1 (7.1)	2 (14.3)	14 (100.0)
남학생	–	–	3 (42.9)	5 (71.4)	2 (28.6)	2 (28.6)	–	–	1 (14.3)	–	–	–	7 (100.0)
전체	1 (4.8)	–	9 (42.9)	6 (28.6)	2 (9.5)	6 (28.6)	–	–	3 (14.3)	1 (4.8)	1 (4.8)	2 (9.5)	21 (100.0)

* 복수응답 허용.

<오빠들의 내 몸 평가>

저희는 운동을 하면 더우면 벗는데 그럼 가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도 싫고요. 오빠들이 그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싫어요. (성유도A, 여)

장소별로 보면 훈련장소(31.6%), 경기장(26.3%), 합숙소(21.1%) 등이 시각적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한 장소로 나타나는데, 이는 훈련이나 경기장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몸이 성적 대상화되는 불쾌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0> 불쾌한 시선 발생장소

단위: 명(%)

	합숙소	경기장	훈련 장소	이동 차량	라커룸	코치실 감독실	회식 자리	외부 숙소	한적한 곳	기타	전체
여학생	–	4 (33.3)	5 (41.7)	–	–	–	–	–	–	3 (25.0)	12 (100.0)
남학생	4 (57.1)	1 (14.3)	1 (14.3)	1 (14.3)	2 (28.6)	–	–	–	1 (14.3)	1 (14.3)	7 (100.0)
전체	4 (21.1)	5 (26.3)	6 (31.6)	1 (5.3)	2 (10.5)	–	–	–	1 (5.3)	4 (21.1)	19 (100.0)

* 복수응답 허용.

⑦ 성추행 및 강간

‘몸의 노출강요’, ‘원치 않는 성적 행위의 요구와 강요’, ‘강제적인 성행위’는 성추행 및 강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표 49의 8항, 9항, 10항에 해당). 본 실태조사에서, 여학생의 경우 이 세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모두 남학생의 피해만 보고된다.

‘몸의 노출 강요’의 경우 남학생 7명, ‘원치 않는 성적행위 강요’는 남학생 2명, ‘강제적인 성행위’는 남학생 4명이 피해를 응답했다. 가해자를 살펴보면, ‘성적 행위 강요’는 모두 남자 선배로 나타나며, ‘강간’의 경우 남자선배(4명)와 여자선배(2명)로 분석되었다.

<표 61> 성추행 및 강간 행위자

단위: 명(%)

	남자 선배	여자 선배	여자 기타	전체
몸의 노출 강요	7(100.0)	–	1(14.3)	7(100.0)
원치 않는 성적 행위 강요	2(100.0)	–	–	2(100.0)
강제적인 성행위	4(100.0)	2(50.0)	2(50.0)	4(100.0)

* 복수응답 허용.

장소를 살펴보면 세 유형 모두 합숙소가 주요한 발생장소이며 이외에 훈련장소나 이동차량, 라커룸 등도 포함된다.

<표 62> 성추행 및 강간 발생장소

단위: 명(%)

	합숙소	경기장	훈련장소	이동차량	라커룸	외부숙소	한적한 곳	기타	전체
몸의 노출 강요	5 (100.0)	1 (20.0)	1 (20.0)	–	1 (20.0)	2 (40.0)	–	–	5 (100.0)
원치 않는 성적 행위 강요	2 (100.0)	–	1 (50.0)	1 (50.0)	–	–	–	–	2 (100.0)
강제적인 성행위	3 (60.0)	–	3 (60.0)	2 (40.0)	1 (20.0)	–	1 (20.0)	1 (20.0)	5 (100.0)

* 복수응답 허용.

실제로 동성 간 몸의 노출 강요 혹은 성행위강요 등은 스포츠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성폭력 유형이다. 다음은 류태호 등의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중도탈락 학생선수 실태 조사 자료인데, 선배가 후배의 성기를 만지거나 밤에 집합을 시켜놓고 기합의 일종으로 자위를 시켰다는 농구선수의 경험이다.

<선배는 장난? 나 죽고 싶은 경험!>
반항을 한다거나 대든다거나 하게 되면 저 뿐만 아니라 저희 학년 전체에게 불똥이 튀어요. 반항 할 수 없는 구조죠. 어쩔 때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이렇게 성기를 잡으면서 장난을 쳐요. 또 때로는 자기 옆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거나 이렇게 나의 성기를 만져서 무슨 자위하는 식으로 만져요. 그러면서 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장난을 하죠. 발기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무슨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 옆에 끼고 노는 여자 같다는 느낌이 들죠. 싫고 죽죠. 간절히 안 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고 정말 화나는 상황인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차피 선배니까 내가 갑자기 불끈 해서 '아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이 새끼 내가 여기 한번 만졌다고 지랄한다.' 고 하면서 그럴게 뻔 하죠. 한번은 한 선배가 새벽에 집합을 시켰어요. 일렬로 쭉 세워놓고, OO를 시키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빨리 하는 사람은 가서 자는 거예요. 그 선배들은 그냥 장난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정말 죽고 싶고 그 때는 정말 그 선배를 죽여 버리고 싶었어요. (류태호 등, 2009, p. 130 재인용).

흔히 성폭력은 남녀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남성들 간의 성폭력을 성폭력이 아닌 장난, 체벌, 훈육 등으로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들만 생활하는 군대(권인숙 등, 2004)나 합숙소 등에서 성폭력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남성들 간의 성폭력은 특히 성폭력이 단순한 성욕이나 성충동 때문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모욕, 지배, 권력의 행사와 같은 의도를 갖고 행해지는 폭력의 한 유형임을 시사해준다.

3) 성폭력의 피해와 영향

스포츠분야의 성폭력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있지만, 개인은 물론 조직에게도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된다. 개인의 경우, 여러 가지 정서적, 육체

적 피해는 물론 운동 경기력의 저하나 일상생활의 장애, 심지어 운동중단이나 원치 않는 삶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조직 역시 팀 내 구성원간의 신뢰상실, 인적 자원의 손실, 대외적 명예손실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수반한다. 여기서는 성폭력의 경험이 개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의 <표. 63>는 성폭력의 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표 63> 성적 폭력경험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14 (41.2)	32 (58.2)	46 (51.7)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	19 (55.9)	12 (21.8)	31 (34.8)
꽤 오랫동안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을 경험했다.	3 (8.8)	4 (7.3)	7 (7.9)
신체적 상해를 경험했다.	-	3 (5.5)	3 (3.4)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	4 (11.8)	13 (23.6)	17 (19.1)
합숙소나 팀을 이탈할 정도로 힘들었다.	2 (5.9)	4 (7.3)	6 (6.7)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 (2.9)	5 (9.1)	6 (6.7)
기타	3 (8.8)	7 (12.7)	10 (11.2)
전체	34 (100.0)	55 (100.0)	89 (100.0)

* 복수응답 허용.

전체 비율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51.7%)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의 41.2%(14명), 남학생의 58.2%(32명)로, 남학생이 더 성폭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영향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34.8%, 31명), 특히 성별차가 커서 피해를 경험한 여학생의

55.9%(19명)가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응답하고 있다. 반면 남학생은 12명(21.8%)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의 경우 남학생은 23.6%(13명), 여학생은 11.8%(4명)로 남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 밖에 '꽤 오랫동안 우울, 불안, 불면, 자살충동 등을 경험했다(7.9%, 7명), '신체적 상해를 경험했다(3.4%, 3명)'도 비율로는 낮지만 경험의 심각성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피해로 분석된다. 또한 '합숙소나 팀을 이탈할 정도로 힘들었다(6.7%,6명),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6.7%, 6명)'는 응답 역시 성폭력의 피해가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수영선수인 다음의 사례는 훈련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 가운데 훈련 중 성폭력경험으로 인하여 "온 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고 소스라치고 짜증나서 미칠 것 같은"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며 "그러고 나면 한동안 운동을 못 한다 '고 호소한다.

> <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것 같아요>
> 그리고 이건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손버릇이 아주 안 좋았어요. 수영이, 아니 수영복 자체가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력 연습이나 영법 연습은 기계 위에서도 해야 하고요. 영법 연습할 때 안 해도 되는데, 뒤에서 안으면서 두 팔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요. 등이랑 다리에 다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해요. 온 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것 같고 소스라치고 짜증나고 미칠 것 같죠. 그 거 끝나고 한동안 운동 못해요. (류태호 등, 2009, p. 129 재인용)

4) 성폭력에 대한 대처

(1) 성폭력에 대한 대응

<표. 64>은 성폭력에 대한 개인의 대응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이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49.4%, 42명)'이며, 여학생(42.4%)보다 남학생(53.8%)이 더 높은 응답율을 보인다. 다음은 '그 자리를 피했다(28.2%, 24명)', '혼자참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

어갔다(27.1%,23명)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다(22.4%, 19명)',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15.3%, 13명)', '뿌리치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12.9%,11명)'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인다.

<표 64> 성적 폭력경험에 대한 개인의 대응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혼자 참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갔다.	8 (24.2)	15 (28.8)	23 (27.1)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14 (42.4)	28 (53.8)	42 (49.4)
뿌리치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 (21.2)	4 (7.7)	11 (12.9)
그 자리를 피했다.	12 (36.4)	12 (23.1)	24 (28.2)
하지 말라고 말했다.	6 (18.2)	13 (25.0)	19 (22.4)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8 (24.2)	5 (9.6)	13 (15.3)
상담소 등에 전화를 하거나 도움을 청했다.	-	3 (5.8)	3 (3.5)
법적으로 대응했다.	-	1 (1.9)	1 (1.2)
기타	1 (3.0)	7 (13.5)	8 (9.4)
전체	33 (100.0)	52 (100.0)	85 (100.0)

* 복수응답 허용.

'상담소에 전화하거나 도움을 청했다(3.5%, 3명)'와 '법적으로 대응했다(1.2%, 1명)'와 같이 문제를 공식화한 경우는 모두 남학생에 해당되며, 이는 성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심각한 유형이 모두 남학생의 경험으로 나타났던 것 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는 그 피해상황이나 피해의 정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나 공식적인 대응보다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성폭력을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인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상황은 성폭력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잘 드러내준다. 다음의 면담사례들 역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해도 '혼자 짜증을 내거나', '그냥 조용히 넘어가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본인이 좋아서 했겠지'하고 넘긴다고 대답하고 있다.

<나 혼자 풀거나 참기>
저는 옥상 가서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한참 짜증내고 난 다음에 운동할 수 있었어요. (류태호 등, 2009, p. 129 재인용)

<침묵>
저도 그런 상황이면요, 저도 조용히 할 거 같아요. (김민턴, 여)

<좋아서 했겠지 그냥 그런 생각?>
대학교는요 성인이잖아요. 대학교 와서도 많이들은 얘기가 걔랑 누구랑 잤대. 뭐 높으신 분이랑 뭐 협회 이사랑 잤대, 뭐 선수랑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루머일수도 있지만 그런 말 들으면요 뭐 자기가 좋아서 그랬겠지. 성인인데 다 컸으니까 좋아서 했겠지 그냥 그런 생각? (김민턴, 여)

(2) 성폭력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

<표. 65>은 성적 폭력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폭력에 대응을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역시 '장난이라고 생각해서(39.8%,33명)가 가장 높게 분석된다. 즉 성폭력을 장난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37.5%),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31.3%), '장난이라고 생각해서'(28.1%), '민망하거나 부끄러워서'(25.0%)라는 응답 순으로 나오며, 남학생은 '장난이라고 생각해서'(47.1%)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27.5%),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23.5%)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특히

‘민망하고 부끄러워서’의 경우 여학생의 25%가 응답한 것과 비교해 남학생은 3.9%만이 응답률을 보인다. 여학생의 경우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성폭력 경험이 알려지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 성폭력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며,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또한 떨어 질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학생의 경우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47.1%)가 여학생의 경우(28.1%)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19.3%, 16명)’, ‘상대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16.9%, 14명)’, ‘상대의 호의나 친밀한 관계를 잃기 싫어서(14.5%, 12명)’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러한 응답은 스포츠분야 성폭력이 주로 지도자나 선배 등 평소 잘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훈련 중에 생긴 일이라서’(8.4%, 7명)는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이지만, 남학생(5.9%,3명)보다 여학생(12.5%,4명)의 응답이 높은 것은 훈련을 구실로 발생한 성폭력 피해 경험율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5> 성적 폭력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여학생	남학생	전체
민망하거나 부끄러워서	8 (25.0)	2 (3.9)	10 (12.0)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10 (31.3)	12 (23.5)	22 (26.5)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3 (9.4)	14 (27.5)	17 (20.5)
상대의 호의나 친밀한 관계를 잃기 싫어서	3 (9.4)	9 (17.6)	12 (14.5)
상대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5 (15.6)	9 (17.6)	14 (16.9)
나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피해볼 것 같아서	6 (18.8)	10 (19.6)	16 (19.3)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12 (37.5)	10 (19.6)	22 (26.5)

훈련 중에 생긴 일이라서	4 (12.5)	3 (5.9)	7 (8.4)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9 (28.1)	24 (47.1)	33 (39.8)
기타	4 (12.5)	7 (13.7)	11 (13.3)
전체	32 (100.0)	51 (100.0)	83 (100.0)

* 복수응답 허용.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두 가지의 이유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이유로 피해에 단호하게 저항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아래의 사례는 지도자에게 겪은 성폭력에 대한 주변사람의 반응을 예측하는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이다. 즉 가족(어머니)에게 말해봐야 "그냥 스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일이 커졌을 때 선수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예상, 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서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과민반응?>

내가 너무 과민반응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어머니한테 얘기해도 그냥 스쳤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커지면 앞으로는 남은 선수생활에 대해 문제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라는 게 참 그래요 .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이렇게 된 건데 남들은 쟤 개야 걔... 라든지 그런 남들의 시선. 그렇게 되 버리면 일단 그런 일이 있었던 팀에서 걔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원래 있었던 팀에서 걔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재만 보면 쟤 아는 척도 하지마 인사도 하지마. 이렇게 소외시키고. (박수영, 여)

감독이나 코치가 성폭력의 가해자인 경우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기는 더욱 어렵다. 일상적으로 지도자의 권위와 권력에 순응하도록 훈련 받아 온데다가, 지도자는 선수의 현재는 물론 장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단순히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선수와 지도자간의

권력차이로 인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주위에서 선수 자신보다는 지도자에게 더 신뢰를 보일 것이라는 불안감도 중요하게 작동한다.

<코치님의 횡포>
그 선생님이 날 만졌다고 해서 왜 만졌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법적 대응 하겠다 해버리면 사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 코치선생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그게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사람을 매장시킨다고 하죠. 아무 팀에도 못 받게 하고. 실제로 그런 , 성희롱 때문은 아닌데 팀을 나쁘게 나간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싸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모든 팀에 전화했어요. 너 걔 받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달 동안 갈 팀이 없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선생님한테 사정 사정 해서 그 선생님이 또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팀으로 옮긴 경우를 봤거든요. (박수영, 여)

<누가 입막음 시킨 것처럼>
저도 그런 상황이면요, 저도 조용히 할 거 같아요. 왜냐면 그게 감독의 권위라고.. 영향이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만약 제가 이상한 해코지를 했어요. 아 걔..그럼 일단 짤라...애초에 그런 사건이 있어도 선수들은 얘기를 절대...누가 시킨 듯이 누가 입막음 시킨 것처럼... 말 못하는 건 진짜... 그 감독의 권위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 같아요. (김민턴, 여)

특히 여자선수의 경우 '여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기는 더욱 어렵다. 다음의 사례는 '형사처벌'까지 생각하며 문제를 공식화하려고 생각했지만, '여자니까' 하는 부모님의 우려로 감독과 합의를 보게 된 사례이다.

<형사 처벌 원했지만 결국 합의>
저희가 형사 처벌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런 거 여성인권 그런 거 다 알아보고.. 저희는 이제 성폭력에 대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어디가 어떻고 다 알아봤어요. 그게 유일하게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한 창 일이 커졌을 때 부모님들 다 오셨을 때 그래 우리 얘기하자. 잠깐 다른 곳에 게임 뛰러 가는 사이에 몇몇 애들이 가서 부모님 요새

이런 일이 있고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안 놀라겠어요. 성격 있으신 부모님들은 오자마자 코치 멱살 잡고 근데 그런 거를 그 사람도 낌새를 느꼈던 것 같아요. 가끔씩 미팅을 하면 어린 생각에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된장에 밥을 비벼먹는 지 똥에 비벼먹는 지를 부모님들한테 시시콜콜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내부에 서 일어난 일을 혹은 뭐 내가 잘못한 일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잘못 되면 난 이 바닥에서 뜨고 내가 너네 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살인해버릴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횡성 갔을 때도 다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럴 놈이었고,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일단 부모님들 있을 때... 그러면서 뭐 저희는 뭐 형사 처벌을 원한다.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저희도 여자잖아요. 이런 걸로 저희는 괜찮다고 그랬죠. 괜찮으니까 저 인간 매스컴에 얼굴 다 내보내고 인간쓰레기 만들어 버리라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자다 보니까 괜히 그거에 같이 연관되면... 어떻게 감독이랑 잘 합의됐으니까 잘 해결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축구, 여)

드물지만,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대처가 성폭력의 재생산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성폭력의 피해에 대해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경우 가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피해 당사자가 분명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가해자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사례이다.

<그 상황에서 의사표현 하기>
코치님의 행동 사소한 거 하나 하나씩 아이들끼리 얘기하다보니까 이상해 이상해 그런 것들이 정말 소수가 아닌 서로가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한 발 멈춰 섰다가 코치님 뭐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민망해서 아니야 그냥 앉아있다고... 근데 손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난 딱 그 타이밍에 멈춰서가지고 본 거죠 선생님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지금 장난 하냐고. 이게 여자애들 앞에서 할 행동이냐고.. 그렇게 자기 의견 잘 나타내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대학동기 중에도 딱 자기 할 말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박축구, 여)

이상에서와 같이 스포츠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지도자의 권위와 권력, 일이 공식화되었을 때 받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 심리적 위축과 무력감 등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기보다 소극적, 개인적으로 넘어가거나 '장난'이라고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피해를 은폐시키거나 유지, 재발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를 생산한다.

5) 소결론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가이드라인의 성폭력 개념과 범주에 기초해, 스포츠분야의 대표적인 성폭력 피해를 유형화하여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643명중 16.2%가 1가지 유형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 26.5%(36명), 남학생 13.4%(68명)로 여학생의 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실태, 대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명백한 신체적 접촉이나 강요를 포함하는 소위 전형적 성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성적 농담'이나 '불쾌한 시선' 등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여학생의 성폭력 인식 응답율이 남학생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2.9%가 성폭력이라고 응답한 '강제적인 성행위'의 경우 여학생의 94.9%가 성폭력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79.7%만이 성폭력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는 '성적 행위 강요(79.3%)', '몸의 노출강요(75.4%)' 역시 여학생은 각각 91.9%, 90.4%의 응답율을 보이는 반면, 남학생은 75.9%, 71.4%만이 성폭력이라고 응답한다. 이 밖에 과반수 정도가 성폭력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성적 농담이나 놀림(52.6%)', '훈련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53.2%)',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55.1%)'에서도 남학생은 각 항목별로 46.7%, 46.5%, 47.7% 정도의 인식률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각 항목별로 74.3%, 77.9%, 82.4%의 높은 응답율을 보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이는 '내 몸을 불쾌하게 보는 시선(40.1%)', '술자리에서 술 따르라는 강요(34.8%)' 등에서도 남학생의

성폭력 인식은 각각 32.0%, 30.2%인 반면, 여학생은 각각 70.6%, 52.2%로 현저히 높은 응답율을 보인다.

둘째, 성폭력 유형별 피해를 살펴보면, '성적농담이나 놀림'이 8.1%(52명),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 7.2%(46명),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및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각각 3.3%(21명), '훈련을 핑계로 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피해가 2.5%(16명)로 나타난다. 성별차이로 보면 일상적인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그리고 술자리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나 데이트 강요 등에서 여학생의 경험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남학생의 경우 비율은 낮지만 '몸의 노출강요(1.4%, 7명)', '원치 않는 성행위 강요(0.4%, 2명)', '강제적인 성행위(0.8%, 4명)' 피해를 보고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세 유형 모두 피해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의 연구에 비해 본연구의 성폭력 피해가 낮게 나오거나 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된 조사결과는 운동부의 성폭력이 개선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며, 여학생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해 질문지 조사에 응답을 꺼려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성폭력경험 혹은 '자신의 경험은 아니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자신이 소속해 있던 운동부에서 일어난 적 있는 심각한 성폭력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뒷받침된다.

셋째,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감독, 코치, 선배로 나타난다. 특히 '원치 않는 신체접촉', '훈련을 핑계로 한 신체접촉', '술자리 등 사적인 모임에서의 성폭력', '데이트 강요' 등의 유형은 '남자지도자-여자선수', '남자선배-여자후배' 관계의 특징을 보이지만, 동성 간의 성폭력도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스포츠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동성 간의 성폭력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합숙소 등 공동생활을 하고 있거나 성별 분리된 훈련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포츠 성폭력이 이성간뿐 아니라 동성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이 선배 등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은 성폭력이 단순한 성욕이나 성 충동 때문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모욕, 지배, 권력의 행사와 같은 의도를 갖고 행해지는 폭력임을 시사해준다.

넷째, 성폭력의 피해와 영향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51.7%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

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욕감, 두려움, 공포 등을 느낌(34.8%)', '오랫동안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의 경험(7.9%)'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거나, '운동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19.1%)', '합숙소나 팀 이탈(6.7%)',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경험(6.7%)'하기도 한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은 '모욕감, 두려움, 공포(55.9)%'등 정서적인 피해에 대한 응답율이 가장 높고, 남학생의 경우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23.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대학생 학생선수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선수들은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49.4%)', '그 자리를 피했다(28.2%)', '혼자참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갔다(27.1%) 등과 같이 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여학생들의 경우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37.5%),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31.3%), '장난이라고 생각해서'(28.1%), '민망하거나 부끄러워서'(25.0%)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장난이라고 생각해서'(4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즉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권위와 권력, 일이 공식화되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27.5%),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23.5%)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즉 학생선수들은 개인적 불이익, 심리적 위축과 무력감 등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드러내거나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소극적, 개인적으로 넘어가거나 '장난'이라고 회피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을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은 경우 남학생이 47.1%, 여학생 28.1%로 비교되는데, 이는 남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여학생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 '민망하고 부끄러워서'라고 응답한 여학생은 25%인 반면 남학생은 3.9%만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여학생의 경우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성폭력 경험이 알려지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논의

Ⅳ. 종합 논의

1. 대학교 운동부의 기대와 현실

그동안 스포츠계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들은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실태에 주목해 왔다. 그 결과, 학교 운동부는 '단절과 고립', '폭력과 성폭력', '위계와 복종', '학습권 없는 운동부' 등의 용어로 묘사되며, 이 용어로 상징되는 학교 운동부 문화는 운동 중심의 공간 및 시간으로 야기되는 그들만의 섬 문화, 일방향적이고 복종을 요구하는 소통 문화, 그리고 운동이라는 외길 문화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때 '학교 운동부'는 미성년 교육제도 내의 엘리트 운동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육 기관의 엘리트 운동부의 실상은 어떠한가? 그것은 소위 초·중·고교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 또는 대학교 운동부에서도 인권침해 실태는 여전한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들이 이 연구의 출발 단계에서 주목한 부분들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학교 운동부의 문화와 제도는 중·고등학교와 크게 다르다고 인식된다. 왜냐하면 대학교 운동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무엇보다 '대학'이라고 하는 단순히 진학을 위한 공부가 아닌 진로를 앞에 두고 학문을 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쌓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 스포츠에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는다. 하나는 운동선수로서의 소질을 보완 및 발전시켜 전문 스포츠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최종 교육 기관으로써 직업선수로서뿐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직업적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교 운동부의 특성을 기반으로 유추해 볼 때,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을 통한 성공적 진로를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전공분야의 학업에 매진하고 보다 다양한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이들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진 대학생이자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 운동부 역시 이전 단계의 학교 운동부와 유사하게 여전히 '단절된 섬 문화', '일방적인 소통 문화', '운동이라는 외길 문화'가 상존하며, 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성 중심적인 운동부 문화 속에서 여자선수들은 정체성 갈등과 역할모델 부재 등 남자선수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 운동중심의 일상과 스트레스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시간표 및 운동 공간에 한정되어 운동 이외의 삶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흔히 '운동 기계' 라고 비하되는 학생선수의 삶은 대학에 와서도 큰 변화 없이 계속된다. 외견 상, 대학교 운동부는 대체로 일일 2-3회, 4시간 정도 운동을 하며, 많을 경우라도 최대 6시간 정도의 운동을 한다. 필수적인 시간(식사, 수면, 세면 등 총 10시간 정도)을 제외하고 추정해 볼 때,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정도의 학업 및 개인생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선수들(83.9%)이 기숙사나 합숙소와 같이 단체생활을 하고 있다. 운동선수의 단체생활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이지만, 지도자의 입장에서 단체 생활은 훈련시간을 최대화하고 선수들의 일상을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학생들의 경우, 새벽이든 야간이든 언제든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적 환경, 숙소와 훈련장이 붙어있는 공간적 환경 속에 있는 대학교 운동부 생활에 대해 학생선수들은 연간 300일 이상 '합숙'하고 있다(67.5%)고 인식한다. 그 결과, 학생선수들은 운동 피로도가 높아 훈련 양이 높다고 인식하고, 선·후배가 공동 숙소를 쓰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적 생활이 통제당하며 운동부 이외의 학교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시·공간적 삶에서 단절되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와 비교한 결과,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대학 진학 후 경기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64.3%), 학업의 중요성 인식(51.5%), 훈련 외의 생활 어려움(46.7%) 및 훈련 양(45.3%) 등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주관적 경험과 판단일 수 있지만, 이들이 속한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욱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즉 대학진학을 통해 '엘리트 중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학생선수들만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현 여건에서, 대학교에 진학해 보니, '다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 무력감과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학 입학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한 학생선수들은 대학교 운동부에서 재차 탈락되는데, 체육과학연구원(2009) 연구에 따르면, 1학년 44.4%, 2학년 37.5%, 3학년 44.9%의 학생선수들이 탈락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과 불안함 그리고 중도탈락의 문제는 '경쟁주의' 혹은 '승리제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세계의 지배적인 룰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스포츠의 전형적인 제로섬(zero-sum) 경쟁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대부분의 선수들은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2) 학업으로부터의 소외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삶이나 공간 자체가 운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들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학업으로부터의 소외는 일종의 학습권(또는 학업권) 침해이지만,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자율적 성인이라는 점을 볼 때, 대학교 이전의 학교 운동부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학습권 침해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경험하는 학업으로부터의 소외는 이들의 선택이나 자발적 결정이 아닌 대학교 운동부와 대학 학사 관행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밝혀준다(표 24 참조).

구조적 문제는 이들의 과거 학업 경험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결합되어 한층 강화된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공부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일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나 수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하며, 수업에 들어가서 낯선 학생들과 대면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어색해 '문 앞에서 선뜻 들어가지 못한 채' 망설인다. 또한 수업에 들어가서도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 미리 포기 한다'는 심정으로 습관처럼 잠을 자던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그러면서 수업을 못 알아듣고 잠만 자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비웃을 까봐 두려워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안타까운

자화상이다.

지도자나 대학의 교수, 대학운동 관련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관행을 주도하거나 방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시합과 훈련(89.0%)'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선수들은 시합과 훈련 때문에 수시로 수업에 불참하고, 장기적으로 선수촌에 입촌하며, 해외 전지훈련이나 시합에 참여하곤 한다. 감독이나 코치들은 공부보다 운동을 우선 하고, 강의가 시작되면 '교수한테 인사나 하고 오라'는 식으로 몇 번 수업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정도다. 또한 교수들 역시 이러한 관행을 당연시하며, 학생선수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서 잠만 자도 모르는 척하며 '배려'한다. 한편 학생선수들은 심지어 학생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학사업무인 '수강신청' 조차 혼자서 할 줄 모르는 채 졸업하거나, 졸업을 위한 학점 관리 자체를 '조교가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심지어 대학은 '공문'이나 '협조문', 혹은 '관행의 강요'를 통해 이러한 학업 불참이나 불성실을 행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적극적으로 관행화한다. 결국 감독/ 코치, 교수와 조교, 그리고 대학 행정부서 등의 '배려'와 '관행'이 학생선수 본인들의 표현처럼 '운동선수들을 바보로 만든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보려는 개인적 노력 혹은 일부 대학의 개선노력들이 발견되지만, 아직은 소수의 노력과 변화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학업으로부터의 소외가 단순히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것이라면 분명한 인권 침해적 소지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학사회 전반의 노력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위계와 통제

본 연구조사 결과는 대학교 운동부가 자율성을 갖는 성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기보다, 위계와 서열, 권력과 통제, 지배와 복종의 규범이 작동하는 마치 '군대'와 같은 집단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대학교 운동부는 '지도자와 선배'가 지배하는 철저히 위계화 된 사회이다. 지도

자 즉 감독이나 코치는 절대적 권력과 권위를 갖는다. 이들은 학생선수들의 향후 진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비록 고교에서처럼 대학진학의 결정권을 갖던 지도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겠지만, 대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시 '잘 되게는 못해도 못 되게는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다. 더구나 일상생활에서 지도자의 권위는 '법'이라고 인식될 만큼 거의 절대적이다(표 20 참조). 단적으로 지도자를 '오우너(owner)'라고 칭하는 학생선수들의 표현은 지도자와 학생선수간의 일방적인 권력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즉 지도자는 주인 혹은 소유주이며, 학생선수들은 주인의 소유물이나 고용인처럼 취급된다. 학생선수들은 지도자가 '개인적인 심부름, 청소, 심지어 마사지' 등과 같은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도자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는 주인과 소유주의 권력관계를 깨는 일탈행위이며, '운동부' 혹은 '운동부 선수'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권력과 권위는 때로 선배에게 위임된다. 선배와 후배의 관계는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를 복사하는 또 다른 서열관계이다. 선배는 지도자를 모방하며, 지도자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아울러 선배는 후배에 대해 서열관계에서 절대적 권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일상적인 수준에서 선배는 후배에게 지도자보다 더 가까이에서 자신의 일상을 통제하는 권력자이자 '작은 오우너'이다.

지도자와 선배에 의해 지배되는 엄격한 서열과 통제는 운동부 내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개인성'은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의 특성이나 개별적 행동은 팀워크를 깨트리는 행동, 혹은 경기력에 지장을 주는 행동으로 통제받는다. 성인들로 구성된 대학교 운동부에서도 경기력 향상이라는 이유로 외모나 복장 통제가 이루어지고(56.8%), 심지어 훈련 이외의 개인시간 사용까지 엄격하게 통제받는다(41.3%). 이러한 통제 문화 속에서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코치와 감독의 지시(74.9%) 혹은 운동부 규율을 우선시 하며, 철저히 타자화(他者化) 되어 간다. 학생선수들이 '운동이외의 삶'에서 비주체적이고 타율화(他律化) 된 모습을 보이는 것,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지 못하는 이유로 '스스로 주도적인 결정을 해보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통제된 삶과 수동성을 체화한 결과이다.

2. 인권침해의 실태, 폭력과 성폭력

어느 한 집단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측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평가자의 주체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자율권이 타인이나 외부의 힘에 의한 폭력이나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보는데 동의한다면, '폭력문화'의 존재 혹은 허용성은 그 집단의 인권상황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성폭력은 경험적 그리고 개념적으로 일반적 의미의 폭력과 다른 특수성을 갖지만, 인권침해의 극단적 양태의 하나로써 폭력의 개념적 연속선[6] 위에 위치지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폭력과 성폭력을 폭력의 연속선 개념으로 이해하며 인권침해의 양태로서 폭력과 성폭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폭력과 성폭력의 기준에 준거하여 폭력과 성폭력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폭력과 성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보다 더 확대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폭력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힘이나 권력에 의해 강제된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인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괄한다. 즉 구타, 기합, 집합 등과 같은 전형적인 유형의 폭력 형태 뿐 아니라 '무리한 훈련의 강요', '자유 시간 등의 통제', '벌로 가해지는 출전금지 등의 불이익' 등과 같은 스포츠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폭력들을 포함하였다. 성폭력의 개념 역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가해진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인 성적 폭력"이라는 일반적 개념에 기초 하지만, '훈련을 핑계로 한 원치 않는 신체접촉' '데이트의 강요' 등과 같이 스포츠 분야 성폭력 특성을 반영하는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6) 연속선이란 폭력의 양태가 희롱이나 협박과 같은 언어적, 정서적 형태에서부터 육체적 상해(극단적으로는 죽음)를 야기하는 극단적 형태의 폭력에 이르기 까지 하나의 연속선을 구성함을 의미한다(이명선 외, 2008).

1) 운동부 폭력, 통제의 수단

(1) 폭력문화의 일상화

대학교 운동부에서 폭력은 매우 일상적인 경험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조사대상자(89.7%)들은 본 조사에서 제시한 10가지 폭력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다. 한편 대학교 운동부의 폭력 수준의 지각된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에서 학생선수들은 대학 입학 후 폭력 경험이 더 심각해졌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대학교 운동부에서 행해지는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교 운동부에는 구타나 기합, 체벌은 물론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훈련, 자유시간이나 외출을 금지하는 처사, 복장이나 자유시간의 통제, 집합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서적 폭력 등 각양각색의 폭력이 나타나며, 학교 특성(예, 일반대학, 체육대학, 특수대학 등)이나 운동 종목, 성별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 있는 지도자나 선배들은 '훈련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정신력 강화를 위해', '경기결과의 문책으로' 등 소위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분을 갖고 체벌이나 기합 등의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이 이야기하는 폭력경험은 '따귀를 맞고, 발로 채이고, 2-3시간씩 머리를 박고, 잠을 자다 불려나와 운동을 하고, 술에 취한 채 몇 시간씩 운동을 시키는' 그야말로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폭력 경험일 뿐이다. 때때로 지도자나 선배들은 구타나 꼬집기 등의 폭력행위를 '상대에 대한 장난'이라고 변명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대에게 모욕감과 고통을 주는 폭력'일 뿐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학생선수들이 폭력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자신들 역시 체벌이나 기합과 같은 '어느 정도의 폭력은 필요하다'는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훈련 태도를 바로 잡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 그리고 정신력 및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폭력으로 규정하는 기합, 공포심 유발, 욕설, 과도한 훈련, 자유시간이나 외출 제한, 구타 등이 필요하다고 수용한다. 또는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체벌'과 '모욕감이나 감정이 개입된 폭력'이라는 개념구분을 통해 체벌을 폭력과 분리해서 정당화하기도 한다.

한편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나 관용 문화는 폭력에 대한 저항이나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이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참는다(84.9%)'고 말하는 데에는 '훈련 중에 생긴 일이어서(39.5%)' 혹은 '일이 크게 되는 게 두려워서(69.9%)', '말해봐야 소용없으니(36.5%)'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묵인은 결국 폭력에 대한 수용성 혹은 무력감과 연관된다.

(2)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서 폭력

운동부에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지도자와 선배가 학생과 후배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손쉬운 수단으로 폭력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폭력경험의 반복과 학습은 '체벌이나 기합이 있을 거라는 예상' 만으로도 심각한 심리적 공포를 유발한다. 때때로 극심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운동부를 '탈출'하거나 '도망'가는 일도 생기지만, 대부분의 경우 폭력의 공포에 미리 굴복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체벌이나 기합이 교육적 목적'이라는 담론은 '학생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위해 체벌과 기합이 필요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지도자와 선배는 비상식적인 수준의 육체적, 언어적 폭력을 통해 학생과 후배 선수들의 무력화하고 모욕감을 줌으로써 손쉽게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는 동시에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할 수 있다.

(3) 폭력문화의 체화와 재생산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폭력피해 경험을 고통스럽게 진술한다. 이들이 경험한 기합, 구타, 체벌의 양상은 마치 군대내 경험 혹은 감옥에서의 폭력, 심지어 조직폭력배의 문화를 연상시킨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폭력이 심리적 무력감, 공포감, 좌절감, 자존감 상실, 육체적 손상, 운동중단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운동부에서 '신고식'으로 시작해 4 년 동안 반복되는 폭력의 학습은 폭력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거나 심지어 선배가 되어보니 '다 이유가 있고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바로 이러한 '폭력의 사회화' 혹은 '폭력의 체화'가 학생선수시절에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선배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 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과정이며, 폭력의 재생산 구조이다.

2) 성폭력, 왜곡된 권력의 행사

(1) 성폭력의 실태

본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는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폭력을 포함해 전체의 16.2%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의 26.5%, 남학생의 13.4%가 응답해 여학생의 피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성폭력에 관한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보이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가장 긍정적인 해석으로, 스포츠계의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여론이 제기되면서 성폭력 실태가 개선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와 비교해 대학교 운동부의 성폭력 피해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성인인 대학생들이 조사결과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장을 두려워해서, 혹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해서 조사에 정직하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피해율의 높고 낮음은 실태의 심각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일 뿐, 피해율이 낮다고 해서 피해의 심각성이 덜하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과 별도로, 실태조사 및 면담결과들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대학교 운동부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포츠 성폭력은 '성적 농담' '불쾌한 시선' 등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접촉', '몸의 노출 강요', '원치 않는 성적 행위 강요' '강제적인 성행위' 등의 유형을 포함한다. 또한 '개인적인 데이트 강요'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신체접촉' 등 사적인 만남이나 모임에서의 성폭력도 문제가 된다. '훈련을 핑계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스포츠 성폭력의 특징적 유형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인 '강제적인 성행위'와 '원치 않는 성해위의 강요'가 각각 4건과 2건으로 보고되었으며, 유형별 피해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2) 권력의 행사로서 성폭력

성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선배나 코치/감독으로 나타난다. 스포츠 성폭력에서 가장 전형적

인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관계 중의 하나는 (여성) 선수에 대한 (남성) 지도자의 성폭력과 (여성) 후배에 대한 (남성) 선배의 성폭력이다. 그러나 기존의 스포츠 성폭력에 관한 연구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 역시 동성 간의 성폭력 역시 중요한 한 양태로 분석되며, 특히 남성 동성 간 성폭력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스포츠 영역에서 동성 간의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훈련이 성별 분리를 원칙으로 수행되며, 무엇보다 합숙소 등 외부세계와 차단된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추정된다.

성폭력의 가해자가 주로 권력을 가진 코치/감독, 선후배라는 점,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지도자-선수', '선배-후배'의 관계처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기반하고 하고 있다는 점은 성폭력이 우발적인 성충동이나 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권력에 기반 한 행위라는 점을 의미한다.

(3) 성폭력의 비가시화 구조

성폭력의 많은 경우들이 흔히 은폐되거나 비가시화되고 있지만, 스포츠성폭력은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되거나 구조적으로 더욱 비가시화 되는 특성을 갖는다(Celia,2001).

성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재에 기인한다. 즉 성폭력이 발생했거나 성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스스로 그것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성폭력 피해를 '성폭력이 아니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개인 간, 성별에 따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대한 성폭력 민감성은 상당히 높지만,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성폭력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또한 성폭력이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으로 묻혀버리거나 피해자 역시 '불쾌하지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로서 '장난이라고 생각해서(39.8%)'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체감하는 성폭력 경험보다 실제의 성폭력 실태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포츠 성폭력을 비가시화하는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신체접촉이 활발한 스포츠의 특성과 연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스포츠문화에서는 코치나 감독이 신체접촉을 통한 훈련이나 코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훈련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도자의 성폭력은 흔히 '훈련이나 코칭을 위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왜곡되거나 피해자 역시 자신의 경험을 분명하게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지도자와 학생선수간, 혹은 선후배간의 권력관계 역시 성폭력을 은폐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20.5%)' 혹은 '나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볼까봐(19.3%)' 등의 이유로 성폭력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보다 낮은 권력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남성)지도자와 (여성)선수간의 권력관계는 '지도자-선수'간의 전형적 성폭력 형태이다. Celia(2001)에 따르면, 스포츠 내 남성지도자와 여성선수 간의 성폭력은 일종의 '성적인 길들이기'의 특성을 지닌다. 훈련과 보호를 매개로 오랫동안 유대와 친밀감을 가져온 지도자는 어린선수에 대해 성적인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성폭력을 가하는데, 선수는 이를 자신에 대한 애정 혹은 보호행동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조사의 면담참여자 중에도 지도자의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지도자가 나를 예뻐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운동부 환경 안에서 성폭력은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 혹은 훈련의 일종으로 왜곡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부재 혹은 왜곡은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더구나 운동부는 서로 아는 관계에서 유대감을 갖고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특성을 지니는데, 친밀함이나 유대에 기반 한 관계적 특성은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비(非)가시화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겪고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26.5%)', '상대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16.9%)' '상대의 호의나 친밀한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14.5%)' 등의 이유로 성폭력에 대응하지 못한다.

3. 남성적 운동부 문화와 여자 학생선수

1) 스포츠와 남성문화

수많은 여자선수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 남성' 이라는 등식이 상징하듯, 우리사회에서 스포츠는 철저히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스포츠가 연상시키는 '힘' 그리고 '건강하고 강인한 육체' 는 남성문화의 상징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선수의 비율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 역시 청소년기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운동을 한다는 결정 자체가 남성의 영역으로 진입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보여 주며, 대학교 운동부에서도 '남녀 4:1'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계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조직의 장이나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이렇게 볼 때, 운동부는 작은 그러나 강화된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적 사회', '남성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이명선 등, 2008).

스포츠 문화는 강자 승리와 무한경쟁,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훈련의 세계에서의 공격성, 적극성 그리고 성취욕 등등의 남성적 원리가 지배하는 남성 문화이다. 이러한 남성적 운동부 구조 속에서 여성선수들은 자신의 '여성성'이 '열등성'으로 인식되고, 이를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 남성화되거나 남성처럼 자신을 재구성해야 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즉,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육계 문화 속에서 여성선수들은 생존하기 위해 '남성됨'의 문화를 학습하고 이 과정에서 성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기력함을 학습하는 역설에 직면한다. 실제로 기존의 서구 연구들은 여성운동선수들이 스포츠 문화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성희롱 문화가 스포츠 남성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해 감당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인식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Brackenridge, 1997; Cense, 1997). 대부분의 운동조직이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에 의해 강하게 지배받고 있는 현실에서 스포츠는 (남성이 진정한 남성이 되는) 남성들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여성은 이 공간에 대한 침입자로 여겨지며, 성적 소수자로서 여성은 남성 권력에 의해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고, 남성적 특성과 결합하며, 이중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Fasting, Brackenridge & Sundgot-Borgen, 2003, 이명선 등, 2008에서 재인용).

2) 여자선수의 '다른' 경험

대학교 운동부는 '남성적 문화' 혹은 '남성다움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교 운동부의 특성인 지도자와 선배의 절대적 권위와 권력, 엄격한 서열과 위계, 집단주의, 일상의 통제와 훈육,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기와 훈련, 강인한 '몸' 혹은 '힘' 의 가치와 우월성 등은 사실상 남성문화의 핵심이다. 이 안에서 여성선수들은 남성선수와는 '다른' 경험과 인식을 하거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고, 또 때로는 남성문화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1) '여성'과 '운동선수'간의 정체성 갈등

남성의 경우, 잘 발달된 근육과 강건한 몸은 보통 '남성다움(manliness)'과 부합하거나 남성다움을 높여주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운동선수의 몸은 여성다움과 배치되거나 여성다움을 손상시키는 몸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물론 여성적 운동으로 간주되는 몇몇 운동종목은 예외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선수 혹은 운동선수의 몸을 상상할 때 흔히 강인하고 근육질의 잘 단련된 몸을 떠올린다. 이러한 '운동선수의 몸'이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기대하는 '여성적인 몸'이 아니듯, 여성선수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아와 '운동선수'로서의 자아 간에 정체성 갈등과 혼란을 겪는다.

단적으로 본 조사결과를 보면, 남학생의 23.4%만이 '운동선수로 만들어진 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는 반면 여학생의 60.3%가 몸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여자선수들은 흔히 '운동을 위해 여성스러움을 포기해야 한다(35.9%)' 혹은 '여자는 운동선수로서 적합하지 않다(30.8%)'는 통념과도 맞서야 한다.

(2) 여성선수의 불확실한 진로

운동을 통해 대학에 진학했지만, 여성선수들은 자신의 진로가 남성선수보다 더 제한적이라고 인식한다. 더구나 여성선수들 주변에는 여성 코치나 감독과 같은 지도자 역할 모델도 많지 않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여성 지도자는 남성 지도자에 비해 주변의 존경을 받거나 권

위를 인정받는 지도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게 하거나 진로 준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물음에 여학생 60.3%, 남학생 43.4%가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의 응답 즉 확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여학생 83.1%와 남학생 70.2%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도자를 포함한 다양한 진로개척의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역할모델의 부재는 사실상 현 스포츠계의 성불평등 구조를 반영한다. 즉 대부분의 운동선수가 남성이고, 지도자나 고위스포츠 행정가, 교수와 같이 권위를 가진 지위나 직종이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별 구조 속에서 여자선수들은 전문가로서 혹은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긍정적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

(3) '차이' 그리고 남성문화의 '동화'

본 연구결과는 여성선수들은 운동부내에서 남성선수와 분명히 차별적 경험을 하거나 인식상 '다른'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정체성이나 진로문제, 폭력과 성폭력 경험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들은 성별 차이와 특성을 나타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폭력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이다. 여성선수들은 남성선수들에 비해 대부분의 성폭력 유형에 대해 높은 민감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남녀의 인식 차이는 성폭력이 기반으로 하는 권력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가해자이기보다 피해자의 경험과 입장에 더 익숙한 여성선수 혹은 스포츠 현장에서 '소수이자 주변인'인 여성선수들은 남성선수들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여성선수들은 운동부의 남성적 특성은 물론 폭력적 특성의 많은 부분에서 남성선수들과 함께 하거나 공유된 문화를 보여 준다. 권인숙(2010)은 우리사회의 대학문화가 '복학생' 문화에 주도되면서 군대문화를 모사한다는 지적을 하는데, 운동문화는 그러한 군대문화의 축소판 혹은 복사판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엄격한 위계와 서열, 선배에 대한 복종, 후배 길들이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신고식, 폭력, 술자리 문화 등은 사실상 군대문화의 모방이자

남성문화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성문화 속에서 여성선수들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성공적인'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남성화라는 동화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면접사례에서의 여학생들 역시 남성선수 못지않은 위계와 서열, 선배에 대한 복종, 폭력, 술자리 문화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교 운동부는 이전의 초·중·고교 즉 미성년 교육기관에서의 운동부와 다를 것으로 기대하지만 또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부에 관행화된 단절된 섬 문화, 일방적인 소통 문화, 운동이라는 외길 문화 등의 문화적 특성을 재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이전보다 더 강한 경쟁의 논리를 갖는 대학스포츠 세계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학업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소외되어 자신의 운동종목 이외의 전공 학문, 교양, 그리고 직업 소양 영역에서 문외한이 되고 있다. 또한 규율과 감독/ 코치의 지시를 우선시 하는 엄격한 위계와 통제 문화 속에서 자율적 성인으로서 주체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과연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자율적 성인으로서(대상), 학문이나 직업적 소양(교육내용),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교육방법)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역시 기본적인 '학업의 권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때 학업의 권리란 단순히 학생으로서 누려야 하는 미성년기의 학습권과는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율적 성인으로서 학업 역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결과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하며, 정책은 이러한 부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학습경험의 부재로 인해, 학생선수들은 학업 습관이나 의지가 부족하며, 선행 학습 역시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보다 학생선수들의 학업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차원의 접근이 정책적으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교 운동부는 집단의 인권상황의 최소한의 준거가 되는 폭력문화가 상존한다. 이때 폭력은 대학교 운동부 내 일상화되어 있고, 지배와 통제를 위해 수단화되며, 학생선수들은 이를 체화하며 재생산한다. 폭력의 연속선 개념으로 살펴본 성폭력 역시 왜곡된 권력 행사의 도구로 수단화되고 있으며, 비(非)가시화되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대학교 운동부 내의

성폭력은 스포츠의 상황적 특성과 결부하여, 일상적인 장난행위, 지도자의 보호나 애정의 표현, 훈련을 위한 신체접촉 등으로 왜곡되거나 혼동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책적으로, 폭력과 성폭력은 스포츠의 상황적 특성, 즉 폭력의 사회화 또는 훈련과 (성)폭력의 애매한 경계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히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상위 위계에 있는 코치/감독 그리고 선배들의 의무적인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남성'이라는 공식처럼 스포츠 문화의 기저에는 남성문화가 존재한다. 때문에 스포츠 문화 속에서 여성선수들은 '여성성=열등성'으로 인식하거나, 운동선수로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여성의 남성화' 혹은 남성문화에 동화되어야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험은 여자선수들의 '몸'에 대한 콤플렉스, '여성은 운동에 부적합하다는 통념' 등으로 구체화된다. 더 나아가 대학의 여성 운동선수들은 남성 운동선수들에 비해 협소한 직업 세계로 인해 미래 불안을 더 크게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그만둔 경우, 여성들의 중단 후 과정은 남성들과 비교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여자선수들의 '남성됨'에 대한 대가이다(류태호 등, 2009). 선수로서 어쩔 수 없이 여성다움을 포기하고 남성됨을 선택했지만, 운동을 그만둔 후 사회는 '여자가 운동을 했어'와 같은 편견의 눈으로 쳐다보며 다시 여성다움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여성 선수들은 운동을 그만둔 후 또 다른 정체성 갈등을 경험한다. 따라서 운동부 내에서 여성 운동선수들이 남성문화의 논리에 따라 엄격하게 여성성을 제약받거나 통제되는 문화는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 강화와 같이 여학생들의 직업적 역할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결론: 정책제언

Ⅴ. 결론 :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성인으로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행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생으로서, 운동선수로서, 남자/여자 성인으로서 보장 받고, 보호 받고, 제공 받아야할 권리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다. 이에 연구의 방향을 분석하는 회의 과정에서도 성인 학습자로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권리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지속되었다. 실태조사는 이러한 순환적 과정을 거치며 크게 대학교 운동부 문화의 특성,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진로 실태, 폭력 실태, 성폭력 실태 등 4가지 실태로 구분되어 분석하였다.

1) 대학교 운동부 문화의 특성

실태조사 결과 대학교 운동부는 주로 운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종목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일 2-3회, 3-6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있었고, 절반 정도의 운동부가 연간 3-4회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고교 때보다 힘든 운동부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성적에 관한 스트레스(64.3%)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에 대한 중요성(51.5%)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훈련 외 생활 어려워 졌고(46.7%), 훈련 량(45.3%)이 고교 때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대학교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및 통제 문화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조사결과, 운동부 규율은 자신의 의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74.9%), 운동부의 규율이나 지도자의 지시(87.4%)에 따라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인 자신의 자유 시간 사용(41.3%)이나, 외모와 복장(56.8%)과 같은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주의 대학교 운동부에서 성 차별적 사고관이 존재하며, 여학생들은 그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여자는 운동선수로서 적합하지 않다(30.8%)는 운동부 내의 인식 속에 운동선수로서 여성성을 포기(35.9%)해야 하기도 했고, 남학생에 비해 제한적인 진로상황(46.8%)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통념과 운동부 내의 차별적 인식에 따라 여자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여자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과 갈등하고, 그러한 갈등은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2) 대학교 학생선수의 학업과 진로 실태

조사 대상자들의 지난 학기 출석 정도가 50%미만인 학생이 41.5% 정도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수업 출석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훈련일정(89%), 훈련으로 인한 피로감(60.3%) 등 주로 훈련관련 이유 때문에 수업에 불참하고 있었다. 결국 시합과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이 자연스럽게 용인되면서 대학 학생선수들에게 수업에 빠지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전문 운동선수 진로를 제외하고 제한적이며, 이외의 진로준비 또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생선수들(남 73.0%, 여 49.3%)은 실업팀이나 프로팀으로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약 50% 정도의 학생들이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적 여건상 이들은 운동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하는 동시에 운동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

3) 대학교 학생선수의 폭력실태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99.2%)는 스포츠 폭력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타(86.9%), 욕설(80.1%)과 같은 신체적이나 언어적, 정서적 폭력뿐 아니라 외출, 외박 및 자유시간제한(53.2%)과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훈련강요(49.8%) 등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통제도 폭력이라 인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선수(89.7%)는 합숙소나 훈련장소와 같이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지도자나 선배들에 의해 1주일에 1-2번 이상 상시적으로 다양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고, 기합(74.5%)이 가장 비율이 높은 폭력형태로 나타났다.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67.7%)과 모욕적 말이나 욕설(67.0%)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폭력 형태는 고교 때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태도 및 규율(69.8%), 팀워크, 정신력, 경기력 향상(39.2%) 등 훈련과 관련하여 폭력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거나 감정적 문제가 원인(37.0%)이라 생각하는 학생선수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한 폭력에 의해 '운동을 그만 두고 싶어지고'(55.5%),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의 심리적 어려움'(49.9%)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의 불가(18.2%)와 불면, 자살 충동(12.2%) 등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폭력 경험에 대해 학생선수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거나(69.9%), 폭력이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39.5%), 운동부에서는 당연한 일(20.8%)이거나 운동부에선 대응해봐야 소이 없는 일(36.5%)로서 체념하고 폭력을 대부분 참고(84.6%)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폭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폭력문화를 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교 학생선수의 성폭력 실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성폭력 인식은 남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녀 학생들의 인식적 차이는 명백한 성폭력 행위인 '강제적인 성행위(여 94.9% vs 남 79.7%)'부터 비교적 성폭력의 수위가 낮은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여 70.6% vs 남 32.0%),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적 접촉(여 82.5% vs 남 47.7%)', '훈련을 핑계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여 77.9% vs 남 46.5%)', '성적 농담이나 놀림(여 74.3% vs 남 46.7%)' 등의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유형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교 학생선수는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경험하는데 성정 농담이나 놀림(8.1%)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폭력 유형이었으며,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7.2%),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및 '원치 않는 신체접촉'(3.3%), '훈련을 핑계로 하는 불필요한 신체접

촉'(2.5%) 등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신체노출 강요, 원치 않는 성행위 강요, 강제적인 성행위와 같은 심각한 성폭력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지만, 조사의 특성상 응답을 꺼려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가 없다고 판다하기는 어렵다.

대학교 운동부에서의 성폭력 특성은 특정 공간(합숙소, 경기장, 훈련장소, 코치/감독실, 회식자리)에서 특정 가해자(주로 감독 /코치, 선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 남학생들 간의 동성 간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폭력 경험에 대해 상당수의 학생선수들(여 41.2% vs 남 58.2%)이 성폭력 경험이 자신에게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모욕감/ 두려움/ 공포의 경험(여 55.9% vs 남 21.8%), 오랫동안 불안/우울/자살 충동 등의 경험(여 8..8% vs 남 7.3%)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거나, 운동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여 11.81% vs 남 23.6%)이나 합숙소나 팀 이탈(여 5.97% 남 7.3%)과 같은 운동 문제를 경험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학생 학생선수들은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고(49.4%), 그 자리를 피하거나(28.2%), 혼자참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는(27.1%)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 이유로 여학생들의 경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37.5%),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며(31.3%), 장난이라고 생각해서(28.1%) 순으로 응답했고, 남학생은 장난이라고 생각해서(47.1%),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27.5%),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23.5%)의 순서로 응답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학업보다는 운동이 주가 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로인한 학습권 문제는 물론, 폭력, 성폭력 경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학기 출석 정도가 50%미만인 학생이 41.5%로 나타났고, 폭력 경험이 89.7%, 성폭력 경험 또한 16..2%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은 주로 운동 경기력, 운동부 규율, 선수관리라는 형태로서 정당화되고 있다. 인권침해상황은 또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경험을 발생시키며, 미래의 꿈을 제안하는 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인권침해상황은 단순히 대학교 운동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체육계 전반의 인권지수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의제임을 보여준다.

2. 정책제언

앞서 밝혔듯이 대학교 운동부의 반교육적, 비교육적인 구조는 고등학교 운동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교 학생선수의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적인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절에서는 첫째, 학생선수 관련 인권정책에 관하여 관장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학생선수 인권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권고안을 꾸준하게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안을 중심으로 최근 학생선수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둘째,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 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학생선수 학습권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구체적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 셋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대학교 학생선수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하고자 한다.

1) 학생선수 인권정책 탐색

학생선수와 관련된 정책분석은 앞서 제시한대로 정부차원에서 제시한 정책과 국가 인권위원회,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정책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 사건, 무리한 감량으로 인한 레슬러 김종두 선수의 죽음, 당시 중학생 수영선수였던 장희진양의 학습권에 대한 외침은 체육계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대두 시켰다. 이에 2007년 11월 안민석 의원 등의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이후로 하여 학생선수와 관련된 문제들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공론화 되었다. 이후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09년 학교 체육법에서 학생선수와 관련된 것은 제 9조와 제 10조, 제 11조이다. 제 9조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확대, 제 10조는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제 11조는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와 지원 및 제재에 관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07년 학교체육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서 보다 학생선수가 가진 기본권의 관점을 폭넓게 바라본다. 이러한 학교 체육법은 전인교육의 한 축으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이 없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고, 본 의회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 법안발의 이후로 정부기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 발의는 입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현행 학원체육의 왜곡된 구조에 관심을 갖고 학원 체육의 정상화를 요구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을 필두로, 2008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9년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2006년 초등학교 학생선수 연구는 조사 대상 중 14.9%의 학생이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2007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성폭력 관련 권고가 있었다. 이러한 체육계의 반인권적 상황은 2008년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로 이어졌다. 실태조사는 중·고등학생의 학습권,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심각한 상황임을 보고하고 있다. 폭력과 관련해서는 전체학생의 78.8%가 폭력을 경험했고,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63.8%의 학생선수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중도탈락 학생선수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중도탈락 현상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학생선수 시절 장기간의 수업결손, 운동부 구성원들만의 관계 형성, 운동 경력 등이 중도탈락 이후의 삶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2010년 학생선수의 학습권, 스포츠 폭력, 스포츠 성폭력을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국회의 학교체육법과 결의안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교육청, 체육회 담당관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안)을 제시한다(이명선 외, 2008).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보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계획(안) 등을 활발히 보고하고 있다. 2009년 체육과학연구원에서도 학생선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최저학력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이상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과도한 훈련을 강요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기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의 학교체육법안은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여러 안건들을 담고 있으며, 학습권과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기본적으로 학원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학생선수의 전반적인 인권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습권과 더불어 폭력 및 성폭력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이끌어 냈다는 의의를 가진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2007년 제시한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안)과 2009년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보면 대부분 일관성을 가진다. 다만 변경된 사항으로는 여성 지도자 할당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고, 합숙훈련 금지를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종합하면, 각 기관 별 학교 운동부 정책은 학습권 보장, 합숙소 및 합숙훈련 규제, 폭력 및 성폭력 예상과 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학습권 보장은 학교운동부의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접근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 등은 최저 학력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2) 인권 가이드라인 : 폭력, 성폭력, 학습권

연구 결과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폭력, 성폭력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자신이 경험하는 폭력과 성폭력에 있어서는 운동 상황, 운동부 규율과 관련시켜 상당히 관대한 측면을 보인다. 그 이유는 훈련 및 운동부 규율 유지를 위해, 선수 통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성적 폭력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수업보다는 운동이 주가 되는 대학교 운동부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습권을 논하기는 힘들다. 이렇듯 스포츠 상황에서의 폭력/성폭력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는 규정하기 힘들다. 학습권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폭력/ 성폭력, 그리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폭력 가이드라인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스포츠 분야의 폭력 방지를 위해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 폭력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폭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스포츠분야의 폭력은 신체적·언어적·정서적으로 행해지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힘이라는 점에서 폭력과 일반적 특징을 공유하지만 둘째, 스포츠분야의 폭력은 지도자와 선수, 선배와 후배간의 위계적인 구조를 통하여 선수들에 대한 권한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양상은 폭력을 재생산하는 순환적 구조를 가진다. 셋째, 스포츠 관계자들 사이에서 일정부분의 폭력은 허용가능하다는 인식이 통용됨에 따라 스포츠 폭력은 훈련과정의 형태로 위장 될 수 있다. 넷째, 스포츠 분야의 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일상화 되는 특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스포츠 분야의 폭력은 집단의 폐쇄성을 가진 스포츠공동체의 특성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고,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폭력 피해자는 주체적으로 폭력에 대항할 힘을 가지기 어렵다.

<표66>과 같이 스포츠 폭력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포츠 분야 폭력의 유형을 크게 신체적 피해로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과 언어 및 정서적 폭력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력의 개념은 스포츠와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영역을 포함하고, 신체적 피해, 언어적 정서적 피해를 수반 하는 직접 적인 행위와 간접적인 폭력(과도한 훈련, 운동량과 시간의 강요, 자유 시간 제약 또는 박탈, 귀가시간 임의조정, 집단생활 중 불이익)까지 포함하여 기존의 폭력의 개념 보다 확장되 폭력의 개념을 제공한다.

폭력의 피해로는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분노, 불안, 우울, 소외감과 같은 정서적 피해로 전이되며, 중도탈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신이상, 신체장애, 자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장애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 스포츠 성폭력 가이드라인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역시 폭력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성폭력의 유형을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시스템과 정책 마련의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 66> 스포츠 폭력 사례

폭력	,신력 강화를 이유로 행해지는 체벌 및 폭력행위
	기량, 노력 부족, 훈련 태도, 성적불량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체벌 및 폭력행위
	위계적인 규율과 통제 속에 행해지는 체벌 및 폭력행위
	경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행해지는 체벌 및 폭력행위
	계획이나 합의,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운동량 증가를 강요하는 행위
	기량, 노력 부족, 훈련 태도, 성적불량 등의 이유로 일정 시간 집단으로부터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지도자의 분노, 좌절, 힘의 과시 등에서 비롯된 체벌 및 폭력 행위
언어 및 정서적 폭력	개인, 전체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어사용으로 자존감을 해치는 행위
	권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진로선택, 경기 참여를 제한하는 협박이나 강요 행위
	불성실한 집단생활, 팀워크, 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일대일 뿐 아니라 다수의 대중 앞에서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기량, 노력 부족, 훈련 태도, 성적불량 등의 이유로 계획, 합의 없이 자유 시간, 귀가시간을 임의로 변경시키거나 조정하는 행위
	신체적 접촉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으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

스포츠 성폭력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공간적·관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총칭하며, 이는 이성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뿐 아니라 동성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모두를 포함한다. 둘째,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은 일방적, 강제적인 권력행사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지위나 성별, 위계 등 불평등한 권력을 이용해서 한사람(집단)이 다른 사람(집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다. 셋째,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은 스포츠를 매개로 활동하는 사람(지도자, 동료나 선후배, 자원봉사자, 심리 및 의료 전문가, 행정 담당자, 기관 책임자)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장소(훈련장, 합숙소, 전지훈련숙소, 호텔, 이동차량)에

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성폭력의 특징으로는 첫째, 스포츠 영역에서의 권력 불평등에 기반 한다. 둘째,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은 성폭력 발생 위험요소를 더 많이 제공한다. 셋째, 훈련, 교육, 치료 등 스포츠 관련 일반 활동을 가장해서 성폭력이 발생하며 규율, 체벌, 장난, 농담 등의 형태와 혼동된다. 넷째,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은 흔히 선수에 대한 '보호'나 '애정표현'을 가장한다. 다섯째, '남성지도자-여성선수'간 성폭력은 불평등한 성별권력 구조에 기인하는 전형적 성폭력 유형이며 '성적 길들이기(grooming)'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은폐되기 쉽다. 따라서 성폭력의 피해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또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표<67>은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되는 구체적인 스포츠 성폭력의 예이다.

<표 67> 스포츠 성폭력 사례

성폭력 사례	쉬는 시간, 숙소 등에서 상대에 대해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유혹을 암시하는 휘파람이나 응시, 몸을 훑어보는 행위
	성이나 성적 정체성에 기반 한 모욕, 괴롭힘, 별명 부르기,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특정 개인에 대한 성적 사실관계에 대한 과도한 질문,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내용을 포함 한 일방적이고 불쾌한 메시지 문자나 이메일, 전화, 편지 등을 보내는 행위
	성적인 광고물이나 포스터, 사진 등을 공공장소(훈련장, 라커룸, 휴게실, 공동숙소, 등)에 게시하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상대에게 특정한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
	훈련이나 친밀함을 가장해서 입맞춤, 무릎에 앉히기, 뒤에서 껴안기, 몸의 밀착, 귓속말, 애무나 마사지 요구 등 신체적 접촉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뒤풀이, 식사, 모임 등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농담,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추자고 강요하는 행위
	지도자가 선수에게 사적인 만남이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데이트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위를 이용해 강요하는 행위

(3)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학생선수는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학생(개인)은 교육환경과 기회로부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학생선수들이 학습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긍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교육기관과 이해 당사자(학생선수, 교사, 학부모, 지도자, 행정담당자, 자원 봉사자)들이 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 규범과 세부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권 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도자 권익보장 및 책임을 확대하여 지도자의 신분이나 지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해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및 성폭력을 구분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운동선수의 측면만이 아닌 학생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개념을 규정지었다. 이는 스포츠 인권문제를 규정한 첫 번째 시도이자 폭력 및 성폭력의 범위를 스포츠 상황에 맞게 확장·규정하고, 학생선수에게 적합한 학습권의 개념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3) 대학교 운동부 정책제언

텍사스 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며 로스쿨 진학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 장희진 선수는 자신의 꿈을 국제 변호사라고 소개한다. 그녀에게 국가대표 운동선수 경력은 남들과 차별화되는 커다란 이중 경력(double-career)이다. 그녀는 대학의 학생인 동시에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하지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선 찾아보기 힘든 낯선 광경이다. 우리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어떠한가?

앞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 실태는 '단절된 섬 문화', '일방적인 위계소통 문화', '운동이라는 외길 문화'가 존재하는 고등학교 운동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대학교 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는 대학생의 신분이 아닌 단지 운동선수의 측면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으로서의 가져야할 기본적인 자율성 또한 제한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교 학생선수의 인권 개선 정책은 성인 대학생으로서, 성인 운동선수로서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대학교 학생선수의 인권 개선 정책을 우선 보장(guarantee)의 측면에서 미성년이 아닌 성인 대학생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자율권 우선 주목하고, 학생과 선수의 측면 모두를 보호(protection)하고 증진(promotion)할 수 있는 대학교 운동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강요'가 아닌 '선택'이 주가 된 대학교 운동부 정책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면담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학교 운동부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강제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우선 엘리트체육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국가 슬로건 아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1970년 이후 '국위선양'을 최우선 목적으로 다수의 체육정책을 발표한다. 특히 그중 1972년 '체육특기자 제도'가 생겨나면서 학생선수들은 학업성적에 상관없이 운동 성적만으로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 이전까지 전국대회 4강에 든 선수들만이 선발되도록 한 체육특기생 제도가 대학 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체육특기생 입학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 체육특기생 '동일계 진학' 정책이 발표되면서 체육 특기생들은 체육관련 학과에만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이었지만, 대학생선수들의 '학업선택권의 원천 봉쇄'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다음으로 최저 학력제의 도입이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2006년 조사된 학생선수(중학교 1, 2, 3학년, 고 1)의 학년석차에서 하위 80%미만이 87%에 달하며, 고등학생들의 경우 하위석차 비율이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운동부의 문제를 학습권의 문제로 제안하며, 최저학력기준(최저 학력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체육과학연구원(2009)에서 제시한 최저학력제의 구제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최저학력 목표를 위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전국규모 대회 참가금지를 주요 제재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정책 방향과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학생선수들의 상당수가 훈련과 시합일정 등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하고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학점이 보장되는 현실 속에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학생선수들은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에 의해 학업 선택을 제한 받고 있으며, 운동을 하기 위해 학업 성적을 강요받는다. 즉 성인으로서 보장 받아야 할 선택의 자유보다는 주로 강제적 측면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교 운동부의 구조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소외(Isolation)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시공간(Time and Space)의 소외문제이다.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운동부 전용 합숙소에 거주하며 단체 생활을 한다. 운동부 합숙소에 거주한다는 것은 언제나 운동할 할 수 있는 시·공간적 환경에서의 생활을 의미한다. 운동선수로서의 시공간적 환경은 보장 받지만 성인으로서, 학생으로서의 즐기고 영위해야할 시공간적 삶에서 단절을 경험한다. 운동이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및 규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주체적 삶(Independent life)으로부터의 소외문제이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엄격한 위계와 통제 문화 속에 객체화된 삶을 강요받고 있다. 경기력을 이유로, 때론 운동부 규율을 이유로 개인적인 자율성(복장, 외모 치장, 훈련이외 자유 시간 등)을 통제 받는다. 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합, 폭력, 체벌 등이 사용되며, 이를 운동부 규율(69.8%)이나 경기력 향상(39.2%) 등과 같은 운동부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드린다. 자신의 의견보다는 지도자/선배의 지시(87.4%)나, 운동부 규율이 우선(74.9%)으로 따라야하는 운동부 문화이기에 가능하다. 이는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지도자에 의해 조장되고 강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없고 '우리', 혹은 '지시'가 우선시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운동부 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셋째, 학습(Study)의 소외문제이다. 학습권은 '학생으로서 학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 학생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업의 선택제한을 경험한다. 이는 상급학교진학이 아닌 진로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 운동부의 목적과 매우 낮은 비율의 학생선수만이 전문 운동선수로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운동부의 피라미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운동이 주가 된 생활을 해오던 학생선수들에게 학습권의 보장은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운동 이외의 다양한 직업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학습권은 대학교 운동부 문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학습권에 대한 해결 노력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이다.

이상을 보장(Guarantee)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대학교 운동부의 반 인권적 구조는 철저히 규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아야한다. 이를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증진의 측형 면에서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전문선수나 그 이외의 직업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대학교 운동부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인권 보장을 위한 환경 구축

인권 관점에 입각한 체육정책이라는 분명한 정책 패러다임을 전제로, 대학생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 보장, 증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의 인권 종합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 종합대책은 첫째, 미래지향적 삶을 위해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반인권적, 비교육적 구조를 예방 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셋째,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민감한 인권의식이 요구된다.

① 학업 선택권 보장

▸ **배경** : 대학은 직업을 가지기전 최종형태의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에서의 학과 및 세부전공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체육 특기생들은 대학 입학 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일계 진학만이 허용된다. 이들은 대학에 들어옴과 동시에 학업 선택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한다. 학습권 보장, 최저 학력제 도입에 앞서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학업을 선택하고 시작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 **내용** : 동일계 진학은 말 그대로 체육 특기생들은 무조건 체육관련 학과에만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대학에서 운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원천 봉쇄를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경험 또한 제한 당한다. 미성년이 아닌 성인 대학생의 측면에서도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② 학습권 보호

▸ **배경** : 누구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체육과학연구원(2009)이 '학생선수 학습능력 제고 방안'으로 제시한 최저학력제는 보호적 관점을 갖는 정책이다. 그러나 전교 석차 80~90%이내에 도달하는 것,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경기출전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학습권 보호의 목표인가란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 대학교 운동부의 문제를, 예를 들어, 학습권, 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학습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학교 학생선수들에게 학업을 병행해야하는 의무를 지워주는 것보다는 학업병행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 **내용** : 최근 정책들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학교 운동부 문제 해결의 정책적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최저 학력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현실은 학업보다는 훈련이 주가 된 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운동 및 시합 스케줄, 힘든 운동으로 인해 수업에 빠져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압박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강요가 아닌 학업선택

을 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요구된다.

③ 대학교 학생선수 인권 교육 :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배경** : 200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인권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인권교육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이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사업의 전문화, 교육의 제도화 및 정례화가 요구된다.

▸ **내용**

주제별(학습권·폭력·성폭력) 인권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 교육의 전문화 정례화를 위해서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교육인 양성이 필요하다.

주제별(학습권·폭력·성폭력) 인권 교육 프로그램 :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규정, 발생 배경, 사례 및 실태, 대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방교육의 정례화 및 제도화 : 대학교 학생선수들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포함한 엘리트 체육 전반의 인권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운동기간에 길어짐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운동부라서' 참아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관대한 입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운동부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초·중·고·대학 운동부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이고 연계성 있는 인권교육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또한 종목 간 연계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별(학생선수 및 학부모, 지도자,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 학생선수들 뿐 아니라 지도자, 학부모, 운동부 관리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및 간담회 등이 요구된다. 단순히 인권교육의 장이 아니라 운동부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나 모임으로 활용가능하다.

아직까지 체육계 내의 학생선수 관련 연구와 보고서에서 폭력 및 성폭력은 다양하게 규정

된다. 다양한 규정에 따라 스포츠 폭력, 성폭력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이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혼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한 스포츠 인권가이드는 현장에 적용되기 전 다음과 같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체육계 내에서 스포츠 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한 학문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혼란 및 왜곡을 방지하고,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성 때문이다.

둘째, 스포츠 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학교 운동부의 인권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운동부에서 행해지는 폭력, 성폭력, 학습권과 관련된 인권의 문제를 '운동을 위해서라면', '운동선수니까'라는 개인이 전문운동선수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이번 인권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미선(1999). 학업태만과 중도타락에 관한 일례. **, 12**, 57-70.

고은하 외(2005). **운동선수 구타 실태 조사 및 근절방안**. 체육과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TF팀 회의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학생건강안전과.

구본행(2000). 대학운동선수의역할사회화에영향을미치는제요인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4(2)**, 5-14.

권인숙(2010). **젠더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김양종, 정구영(2002). 대학운동선수의 학업능력과 선수-학생 역할만족도 및 역할현저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15(2)**, 471-482.

김기형, 박중길(2008). 대학운동선수의 사고양식과 목표성향이 내, 외적 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143-161.

김동규(1998). 대학 운동선수의 전공영역 설정과 관련한 제 문제.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김미숙, 정희석(2009). 독일스포츠 성폭력 방지책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17(2)**, 11-28.

김민섭, 김영미, 오정수(2004). 대학운동선수들의 운동지속 동기와 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3(4)**, 77-89.

김상겸(2009).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보장에 관한 연구: 스포츠교육의 정상화 관점에서. **스포츠와 법, 12(1)**, 11-36.

김석희(2003). 대학 엘리트 선수의 오늘과 내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2)**, 981-990.

김석희(2003). 대학 체육문화 연구(2) 엘리트스포츠. **한국체육학회지, 42(2)**, 19-33.

김석희(2007). 대학운동선수들의 체벌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173-185.

김세웅, 임기태(2006). 멘토링의 역할이 대학스포츠선수들의 조직문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8**, 511-522.

김세웅, 장경로(2005). 대학운동선수들의 조직사회화 과정에서의 멘토링의 역할.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8(1)**, 87-101.

김세웅, 장경로(2006). 멘토링의 역할이 대학스포츠 선수들의 선수생활 만족과 선수생활 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17(2)**, 111-122.

, 조지현(2004). 한, 일 대학 유도 선수들의 생활실태 및 진로선택에 관한 비교 연구. **츠사회학회지, 17(3)**, 189-207.

김양종, 정구영(2002). 대학운동선수의 학업능력과 선수-학생 역할만족도 및 역할현저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5(2)**, 471-482.

김영미, 유정숙(2001). 대학운동선수의 미래포부 결정 요인 탐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6**, 1067-1079.

김영미, 유정숙(2009).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 실태 조사 및 성폭력 경험과 운동 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8(5)**, 75-92.

김영인(2000). 대학 운동선수와 일반학생들의 사회조직망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3**, 137-143.

김정명(1999).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 체육특기생. **한국청소년학회지, 6(2)**, 21-40.

김지영(2007).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트레스와 불안, 공격성 및 운동 중도탈락의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현준(2006). **중도 탈락한 체육특기자의 자아정체성 형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춘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남상우 외(2007).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인식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6(4)**, 21-40.

남상우, 이석호, 여정권, 박장선(2007).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인식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6(4)**, 117-127.

남승구(2007). 대학운동선수들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6(2)**, 95-104.

남행웅, 서진교(1998). 대학운동선수들의 탈사회화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0**, 45-58.

류태호 외(2003). **학교 체육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류태호 외(2009).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박병국, 김경호(2007). 대학운동선수의 참여특성과 학교생활태도 및 운동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6(1)**, 193-202.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05). **선수폭력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10). **2010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서진교(1996). **은퇴한 프로선수들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손석정, 김병주(2005). 운동선수의 사회적 관계망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4(6)**, 237-246.

송형석(2009). 유소년 경기스포츠 개혁담론의 한계. **한국체육학회지, 48(3)**, 79-90.

, 주도욱(2002).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중도탈락 위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학회지, 41(1)**, 275-287.

신현균, 이학준(2004).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운동문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12(2)**, 267-280.

안문용, 김상원(2000). 엘리트선수와 일반대학생들의 정보화 실태 비교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4)**, 1014-1022.

안민석, 고려대학교 스포츠 교육학실(2006). **학생선수도 공부하고 싶다: 학교운동부 실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안용규(2008). 대학 교육으로서 엘리트 스포츠의 방향성 탐색. **한국체육철학회지, 16(3)**, 15-29.

오응수, 문선호(2008). 대학생 운동선수의 대인간 갈등 유형 측정 질문지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2)**, 1053-1062.

유승용(2005). **중학교 학생선수 학부모의 생활과 교육**.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슬기, 이경헌, 최성희(2006). 대학팀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체육학회지, 45(3),** 159-166.

윤여탁, 이형일(2002). 대학운동선수들의 일상 의식과 태도에 대한 질적 분석. **체육연구논문집, 9(1)**, 91-103.

이경훈(2004). 대학 여성운동선수의 스포츠경험과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7(2)**, 223-235.

이만석, 신형교, 이한주, 권자연(2009). 학생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일상생활경험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8(2)**, 67-77.

이명훈, 이근모, 이남미(2003). 중등학교 체육특기자들의 중도 탈락 영향 요인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157-172.

이명선 외(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철, 민병남(2009). 운동선수의 피학대 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 및 폭력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8(5)**, 65-74.

이승희, 전태준(2006). 중,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운동능력과 의사결정 및 진로결정 효능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6)**, 133-144.

이연호(2001). **고등학교 육상선수들의 중도 탈퇴원인 및 진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 대학원.

(2008). 학원축구 학습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 학교운동부 정상화 방안모색. **주최 2008 윈저어워즈 세미나 자료집**.

이정래(2003). 고등학교 중도탈락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6(2)**, 513-529.

이종길(2004). 대학 운동선수의 미래포부와 자아실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3(4)**, 141-151.

이창섭, 남상우, 박창선, 여정권(2006). 스포츠성희롱 질문지의 타당화.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1(2)**, 1-9.

이충삼(1997). 대학 운동선수와 일반 학생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6(1)**, 15-30.

이학래, 고재곤(1994). 대학 운동선수들의 학교생활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33(3)**, 3029-3040.

이학준(2005). 학벌사회 속 운동선수. **한국체육철학회지, 13(1)**, 23-33.

이형(1986). 전인교육 증진 학교체육 특기자. SPORTS KOREA, 210, 66-67.

이형일(2003). 신체적 담론에 대한 여성운동선수들의 저항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6)**, 107-116.

임용석(2005). **운동특기생 중도탈락 이후 사회적응과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장호중(2006).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상담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4)**, 149-157.

전재완(1979). 체육특기생, 절름발이인간이 된대서야. SPORTS KOREA, 142, p.57.

조광민(1996). 위험에 직면해 있는 대학스포츠 선수들: 학업 성취적 측면. **96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 자료집, 2**, 750-755.

조광민 외(2006).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광민(2007). 대학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제언: 선수학생에서 학생선수로. **한국체육학회보, 90**, 10-16.

조은희(2008).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과 중도탈락의도의 가설적 인과 모형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현익, 손영호(2007).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가 운동 몰입 및 운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6(6)**, 205-218.

주종미(2007). 운동부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네 가지 법적 이슈: 약물, 폭행, 성폭력, 그리고 안전관리. **스포츠와 법, 10(2)**, 267-300.

주종미(2008).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스포츠와 법, 11(3)**, 219-245.

체육과학연구원(2009).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최효진, 임수원, 권기남(2008). 고등학교 중도 탈락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3)**, 609-624.

(1997). 대학운동선수와 일반 대학생의 인지적 도덕가치 판단에 관한 비교연구. **회학회지, 8**, 153-164.

함정혜(2003). 올바른 대학운동선수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산소운동과학회지, 7(1)**, 73-85.

함정혜(2005). 대학운동선수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9(5)**, 95-111.

함정혜, 박현애(2007).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철학적 접근.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1(2)**, 51-62.

허현미, 황정임, 선보영(2008). 여성선수 성폭력에 대한 여성 지도자의 인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2)**, 401-421.

황정임 외(2007). **프로스포츠 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 조사**. 문화관광부.

황정임, 허현미, 선보영(2008). 직장운동부 여성선수의 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4)**, 77-89.

Brackenridge, C. H. (1987). Ethical problems in women's sport. *Coaching Focus, Leeds: National Coaching Foundation, Summer, 6*, 5-7.

Brackenridge, C. H. (1991). Cross-gender coaching relationships: Myth, drama or crisis? *Coaching Focus, Leeds: National Coaching Foundation, Spring, 16*, 12-147.

Brackenridge, C. H. (1994). Fair play or fair game: Child sexual abuse in sport organisation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29(3)*, 287-299.

Brackenridge, C. H. (2001). *Spoilsports: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sexual exploitation in sport*. London: Routledge.

Cense, M. (1997). *Red Card or Carte Blanche. Risk factors for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in sport. Summary,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rnhem: Netherlands Olympic Committee Netherlands Sports Federation/TransAct.

Crosset, T. (1986). Male coach/female athlete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Sport Sciences, Sole, Norway, November*, 15-16th.

Fasting, K. & Brackenridge, C. & Sundgot-Borgen, J. (2003).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and abuse among Norwegian elite female athletes and non-athlete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4(1),* 84-97.

Fasting, K. & Brackenridge, C. & Sundgot-Borgen, J. (2004). Prevalence of Sexual Harassment among Norwegian Female Elite Athletes Inrelation to Sport Type.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9(4)*, 373-386.

Kirby, S. L., Greaves, L., & Hankivsky, O. (2002). Women under the dome of silence: sexual harassment and abuse of female athletes. *Canadian Woman Studies, 21(3)*, 132-138.

Lenskyj, H. (1986). *Out of bounds: Women, sport and sexuality*. Women's Press.

Lenskyj, H. (1991). Combating homophobia in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Sociology of Sport Journal, 8(1)*, 61-69.

Nelson, M. B. (1994). Unfair play. *Trouble and strife, 29(30)*, 14-21.

Toftegaard Nielsen, J. (2001). The forbidden zone: Intimacy, sexual relations and miscondu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es and athlete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6(2)* 165-183.

Palzkill, B. (1993). Körper und Bewegunsentwicklung in Gewaltverhaltnisses: Was Hat sport Mit Sexueller Gewalt Zu Tun?'. *Frauen und Sport in Europa. Sankt Augustin: Academia.*

Tomlinson, A. and Yorganci, I. (1997). Male coach/female athlete relations: Gender and power relations in competitive sport.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21(2)*, 134-155.

Volkwein, K., Schnell, F., Sherwood, D., & Livezey, A. (1997). Sexual harassment in sport: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American female student-athlete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23(3)*, 283-295.

부록1 : 설문지

ID					

대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단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이 대학생운동선수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운동선수 경험에 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하여 실시·관리됩니다.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관한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수집된 설문지는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최종 보고서 역시 여러분의 개인 신분이나 소속 학교를 추측할 수 없도록 작성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조사와 관련해 저희 연구진과 더 자세한 이야기나 인터뷰에 응해주실 뜻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9월

고려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
연구책임자 : 류 태 호 교수(sport386@hanmail.net)
설문지 담당자 : 임 용 석 (99310066@korea.ac.kr, 010-5213-7654)

다음은 현재 여러분이 대학에서 하고 있는 운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운동 종목은 무엇입니까? (_____)

2. 운동선수 생활은 언제 시작하였습니까?
 ① 초등학교 (____ 학년, 만 ____ 세)
 ② 중학교 (____ 학년, 만 ____ 세)
 ③ 고등학교 (____ 학년, 만 ____ 세)

3. 귀하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시합이 없을 때 약( ) 시간 ② 시합이 있을 때 약( )시간

4. 귀하의 하루 평균 운동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시합이 없을 때 약 ( ) 회 ② 시합이 있을 때 약 ( )회

5. 귀하는 1년 동안 대략 며칠 정도 합숙합니까?
 ① 없다 ② 약( )일

6. 귀하는 1년 중 몇 회 정도 대회에 참가합니까?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회~8회 ⑤ 8회 이상

7. 귀하는 **고등학교 때와 비교해 볼 때 대학 입학 이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해당사항에 √ 표 해 주세요)

내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훈련양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전반적으로 운동부 생활이 힘들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3) 경기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5)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대학 입학 후 운동부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에 √ 표 해 주세요)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훈련이외 시간을 내 의지대로 쓸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외모나 복장(머리길이, 염색, 귀걸이 등)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생각보다 운동부 규율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코치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운동선수로서 혹은 운동선수에 대한 귀하의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 해 주세요)

항 목 \ 수 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서 내가 운동 하는 것을 지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운동으로 인한 몸의 변화 때문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운동선수인 게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반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여자는 남자보다 운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여자선수의 진로는 남자선수들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여자운동선수는 여성스러움을 포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운동부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해당되는 사항에 √ 표 해 주세요.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운동부시설	①	②	③	④	⑤
(2) 감독, 코치 등 지도자의 자질	①	②	③	④	⑤
(3) 운동시간	①	②	③	④	⑤
(4) 동료 및 선후배와의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의 관심과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운동부의 경기력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가 대학 입학 후 경험한 학업 및 향후 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하는 지난 학기에는 전체 수업 일수 중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출석했습니까?

① 30%미만 ② 30-50%미만 ③ 50%-70%미만
④ 70%-90%미만 ⑤ 90% 이상

12. 귀하가 학기 중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u>두 가지만</u>** ( ) 안에 √표 해 주세요)

( ) ① 훈련이나 시합과 겹쳐서	( ) ②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오니까
( ) ③ 운동부 분위기 상 수업에 안 들어가서	( ) ④ 훈련 때문에 피곤해서
( ) ⑤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 ) ⑥ 수업이 낯설고 어색해서
( ) ⑦ 기타(_____)	

13.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실업팀이나 프로팀으로 취업 ② 운동과 관련 없는 업종의 취업
③ 대학원 진학 ④ 관련종목의 코치나 감독 같은 지도자 수업 ⑤ 사회체육 지도자
⑥ 기타 (_____)

14.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 해 주세요)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코치와 감독은 나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가 현재 대학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u>두 가지만</u>** √ 표시해 주세요)

① 운동관련 전문직업을 얻기 위해서
② 운동 이외에 대안이 없어서
③ 대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④ 부모님이 원해서
⑤ 운동이 좋아서
⑥ 기타 (_____)

다음은 폭력 및 성적 폭력에 관한 귀하의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다음 중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 표시해 주세요.

( ) ① 벌로 경기 출전 제한	( ) ② 자유 시간, 외출, 외박 등의 제한
( ) ③ 일정 시간 격리 혹은 훈련 제외	( ) ④ 무리한 훈련 강요
( ) ⑤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 ) ⑥ 기합
( ) ⑦ 구타	( ) ⑧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 ) ⑨ 과도한 음주강요	( ) ⑩ 집단 따돌림

17. 다음 중 성적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 표시해 주세요.

( ) ① 성적 농담이나 놀림	( ) ②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
( ) ③ 원치 않는 신체접촉	( ) ④ 훈련을 핑계로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 ) ⑤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	( ) ⑥ 술자리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적 접촉
( ) ⑦ 개인적인 데이트나 만남의 강요	( ) ⑧ 몸의 노출 강요
( ) ⑨ 원치 않는 성적 행위의 요구나 강요	( ) ⑩ 강제적인 성행위

다음은 귀하의 대학 운동부에서의 폭력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귀하는 대학 입학 후, 소속된 운동부에서 다음의 경험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아래의 '**횟수**'에서 ①, ②, ③, ④, ⑤에 해당되는 경우 '고등학교 때와 비교해서', '누구로부터', '어디서' 경험하였는지 **모두 골라주세요**)

내용	횟수	고등학교와의 비교	누구로부터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어디서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1) 구타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없다	고등학교 때보다 ① 아주 심해졌다 ② 약간 심해졌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약간 덜해졌다 ⑤ 아주 덜해졌다	① 코치 ② 감독 ③ 선배 ④ 동기 ⑤ 기타(_____)	① 합숙소 ② 경기장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라커룸 ⑥ 코치실/ 감독실 ⑦ 회식자리 (술자리, 노래방 등) ⑧ 외부숙소 (전지훈련, 시합 중) ⑨ 사람 없는 한적한 곳 ⑩ 기 타 (_____)
(2) 기합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없다	고등학교 때보다 ① 아주 심해졌다 ② 약간 심해졌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약간 덜해졌다 ⑤ 아주 덜해졌다	① 코치 ② 감독 ③ 선배 ④ 동기 ⑤ 기타(_____)	① 합숙소 ② 경기장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라커룸 ⑥ 코치실/ 감독실 ⑦ 회식자리 (술자리, 노래방 등) ⑧ 외부숙소 (전지훈련, 시합 중) ⑨ 사람 없는 한적한 곳 ⑩ 기 타 (_____)
(3)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없다	고등학교 때보다 ① 아주 심해졌다 ② 약간 심해졌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약간 덜해졌다 ⑤ 아주 덜해졌다	① 코치 ② 감독 ③ 선배 ④ 동기 ⑤ 기타(_____)	① 합숙소 ② 경기장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라커룸 ⑥ 코치실/ 감독실 ⑦ 회식자리 (술자리, 노래방 등) ⑧ 외부숙소 (전지훈련, 시합 중) ⑨ 사람 없는 한적한 곳 ⑩ 기 타 (_____)

내용	횟수	고등학교와의 비교	누구로부터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어디서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4) 집합, 기합, 체벌을 받을 것 같은 공포감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없다	고등학교 때보다 ① 아주 심해졌다 ② 약간 심해졌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약간 덜해졌다 ⑤ 아주 덜해졌다	① 코치 ② 감독 ③ 선배 ④ 동기 ⑤ 기타(_____)	
(5)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없다	고등학교 때보다 ① 아주 심해졌다 ② 약간 심해졌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약간 덜해졌다 ⑤ 아주 덜해졌다	① 코치 ② 감독 ③ 선배 ④ 동기 ⑤ 기타(_____)	
(6) 벌로 받은 경기 출전 불이익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없다	고등학교 때보다 ① 아주 심해졌다 ② 약간 심해졌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약간 덜해졌다 ⑤ 아주 덜해졌다	① 코치 ② 감독 ③ 선배 ④ 동기 ⑤ 기타(_____)	
(7) 벌로 받은 격리 또는 훈련 제외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없다	고등학교 때보다 ① 아주 심해졌다 ② 약간 심해졌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약간 덜해졌다 ⑤ 아주 덜해졌다	① 코치 ② 감독 ③ 선배 ④ 동기 ⑤ 기타(_____)	
(8) 자유시간, 외출, 복귀시간, 외박 등의 제한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없다	고등학교 때보다 ① 아주 심해졌다 ② 약간 심해졌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약간 덜해졌다 ⑤ 아주 덜해졌다	① 코치 ② 감독 ③ 선배 ④ 동기 ⑤ 기타(_____)	
(9) 과도한 음주강요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없다	고등학교 때보다 ① 아주 심해졌다 ② 약간 심해졌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약간 덜해졌다 ⑤ 아주 덜해졌다	① 코치 ② 감독 ③ 선배 ④ 동기 ⑤ 기타(_____)	

내용	횟수	고등학교와의 비교	누구로부터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어디서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10) 집단 따돌림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없다	고등학교 때보다 ① 아주 심해졌다 ② 약간 심해졌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약간 덜해졌다 ⑤ 아주 덜해졌다	① 코치 ② 감독 ③ 선배 ④ 동기 ⑤ 기타(_____)	

*** 위의 18번 문항에서 응답한 운동부 경험 중 한 항목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다음의 19-1, 19-2, 19-3, 19-4항에 응답해 주세요.**

19-1. 위의 18번에서 귀하가 경험한 상황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만** √ 표시해 주세요)

① 이유 없이 또는 자기 기분에 의해 (기분이 나빠서, 날 미워해서 등)
② 상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③ 선배나 친구들의 시기 때문에(자신의 운동 기량이 높아서 등)
④ 경기력, 정신력, 팀워크 등의 향상을 위해서
⑤ 훈련 태도가 나쁘거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
⑥ 경기 결과가 부진해서
⑦ 기타 (_____)

19-2. 위의 18번에서 응답한 귀하의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 표시해 주세요)

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②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
③ 꽤 오랫동안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을 경험했다.
④ 신체적 상해를 경험했다.
⑤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
⑥ 합숙소나 팀을 이탈할 정도로 힘들었다.
⑦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⑧ 기타 (_____)

19-3. 18번의 경험에 대해 당신은 주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해 주세요)

① 참았다.
②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③ 그만하라고 말했다.
④ 합숙소나 팀을 이탈했다.
⑤ 주변 사람들(부모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⑥ 대한체육회 등의 스포츠 폭력 상담소 등에 상담을 요청했다.
⑦ 법적으로 대응했다.
⑧ 기타 (_____)

19-4. 귀하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표 해 주세요)

① 대응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② 대응하면 더 맞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팀에서 방출, 출전 제한, 진로 제약 등)
③ 나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피해볼 것 같아서(단체 기합 등)
④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⑥ 운동부에서는 당연하니까
⑦ 기타 (_____)

다음은 귀하가 대학 입학 후 소속된 운동부에서 귀하가 혹시나 경험했을 수 있는 성적 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20. 대학 입학 후 소속된 운동부에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횟수**'에서 ①, ②, ③, ④에 해당될 경우 '누가', '어디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내용	횟수	누가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어디서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남자	여자	
(1) 훈련을 핑계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내 몸을 만지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한두 번 있다 ⑤ 전혀 없다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2)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한두 번 있다 ⑤ 전혀 없다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3) 술자리나 노래방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부르스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한두 번 있다 ⑤ 전혀 없다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4) 데이트나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한두 번 있다 ⑤ 전혀 없다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5) 성적 농담(음담패설 등)으로 인해 불쾌한 적이 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한두 번 있다 ⑤ 전혀 없다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내용	횟수	누가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어디서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남자	여자	
(6) 누군가 내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 적이 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한두 번 있다 ⑤ 전혀 없다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합숙소 ② 경기장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라커룸 ⑥ 코치실/ 감독실 ⑦ 회식자리(술자리, 노래방 등) ⑧ 외부숙소(전지훈련, 시합 중) ⑨ 사람 없는 한적한 곳 ⑩ 기 타 ( )
(7) 무릎위에 앉히기, 귓속말, 껴안기, 입맞춤, 마사지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한두 번 있다 ⑤ 전혀 없다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합숙소 ② 경기장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라커룸 ⑥ 코치실/ 감독실 ⑦ 회식자리(술자리, 노래방 등) ⑧ 외부숙소(전지훈련, 시합 중) ⑨ 사람 없는 한적한 곳 ⑩ 기 타 ( )
(8) 성기나 몸의 노출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한두 번 있다 ⑤ 전혀 없다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합숙소 ② 경기장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라커룸 ⑥ 코치실/ 감독실 ⑦ 회식자리(술자리, 노래방 등) ⑧ 외부숙소(전지훈련, 시합 중) ⑨ 사람 없는 한적한 곳 ⑩ 기 타 ( )
(9)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한두 번 있다 ⑤ 전혀 없다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합숙소 ② 경기장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라커룸 ⑥ 코치실/ 감독실 ⑦ 회식자리(술자리, 노래방 등) ⑧ 외부숙소(전지훈련, 시합 중) ⑨ 사람 없는 한적한 곳 ⑩ 기 타 ( )

내용	횟수	누가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어디서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남자	여자	
(10) 두려움, 위협, 폭력 등으로 인해 강제로 성 행위를 당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한두 번 있다 ⑤ 전혀 없다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감독 ② 코치 ③ 선배 ④ 동기 ⑤ 후배 ⑥ 기타(____)	① 합숙소 ② 경기장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라커룸 ⑥ 코치실/ 감독실 ⑦ 회식자리(술자리, 노래방 등) ⑧ 외부숙소(전지훈련, 시합 중) ⑨ 사람 없는 한적한 곳 ⑩ 기 타 ( )

*** 위의 20번 문항에서 어느 한 항목이든 경험한 적이 있다면 21-1, 21-2, 21-3번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21-1. 위의 20번 문항에서 경험한 상황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 표 해 주세요)

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②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짜증,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을 느꼈다.
③ 꽤 오랫동안 불안,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등을 경험했다.
④ 신체적 상해를 경험했다.
⑤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
⑥ 합숙소나 팀을 이탈할 정도로 힘들었다.
⑦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⑧ 기타 (_____)

21-2. 20번 문항의 경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 표해 주세요)

① 혼자 참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갔다.
②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③ 뿌리치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④ 그 자리를 피했다.
⑤ 하지 말라고 말했다.
⑥ 주위사람들(친구, 부모, 선생님 등)에게 이야기했다.
⑦ 상담소 등에 전화를 하거나 도움을 청했다.
⑧ 법적으로 대응했다.
⑨ 기타 (_____)

21-3. 귀하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 표해 주세요)

① 민망하거나 부끄러워서
②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③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팀에서 방출, 출전 제한, 진로 제약 등)
④ 상대의 호의나 친밀한 관계를 잃기 싫어서
⑤ 상대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⑥ 나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피해볼 것 같아서
⑦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⑧ 훈련 중에 생긴 일이라서
⑨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⑩ 기타 (_____)

*** 다음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23. 현재 귀하의 나이와 학년은 무엇입니까?
( )년생, 대학교 ( ) 학년

24. 귀하의 가정 형편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어렵다 ② 보통이다 ③ 풍족하다

25. 귀하의 현재 운동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국가대표 ② 상비군 ③ 유니버시아드대표(대학선발)
④ 시·도 대표(해당 시와 도를 대표한자) ⑤ 학교 대표
⑥ 기타 (_____)

26. 학기 중 주로 어디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① 집 ② 친척집 ③ 기숙사 ④ 자취나 하숙 ⑤ 합숙소
⑥ 기타 (_____)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대학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0년 11월 30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전 화 02-2125-9700 (代)
http://www.humanrights.go.kr
인쇄처 제일문화사(02-921-7221)

이 책의 저작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6114-222-9 93370